

어사매 (제18호)

於斯買



도유형문화재 제22호 음하리석불좌상

황성문화원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을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 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
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
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
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황성의 상징



황성군

군기

21세기를 향한 황성군민의 무한한
도약과 인간 중심의 밝고 희망찬
삶을 뜻한다.



군의새 / 백로

온백의 눈부신 자태는 군민의
순결함을 뜻하며 서원면 압곡리
일대에 무리지어 여름을 난다.



군의꽃 / 함박꽃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말하며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밝은 미래를 뜻한다.



군의나무 / 느티나무

군목의 느티나무는 나무의 수명이
길뿐만 아니라 우람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황성군을 뜻한다.





▲ 학술세미나



▲ 향토문화 연구발표회

- 발 간 사 횡성문화원장 이일영 · 9
- 축 간 사 횡성군수 조태진 · 10
- 축 사 횡성군의회 의장 박명서 · 11
- 축 사 횡성교육청 교육장 김부길 · 12

I. 향토문화 창달

- 문화의 향기가 있는 예향의 고장 횡성 이일영 · 15

II. 강원문화 인물 선양

- 박원 정현석先生의 문화활동 성무경 · 23
- 독립운동가 최 양 옥(崔養玉)지사 박순엽 · 39

III. 향토문화 연구문 · 향토사료

- 전설의 황 장군과 황상중의 상관성에 대한 시론 이영식 · 45
- 회다지 마을 정금리 박관수 · 57

IV. 학술세미나 연구논문

- 태기산성의 유적현황과 역사적 고찰 유재춘 · 69
- 태기산 주변의 구비전승 이대범 · 87
- 태기산성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화 방안 김병철 · 109



V. 어사매 문화마당 (산문, 수필, 시, 한시, 기행문)

- 우리 산 이야기 김승기 · 125
-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이효자 · 132
- 할머니의 봉투 이미진 · 138
- 겨울나무 정하영 · 139
- 마라도 기행 전태규 · 140
- 축중도발전(한시) 송인석 · 141
- 삼배봉월단추모효자 송도선생(한시) 정병류 · 142
- 유적답사 기행문 임나연 외 · 143
- 전통문화 체험기 김미혜 외 · 154

VI. 향토문화행사 입선작

- 제17회 태기문화제 입선작..... 165
- 제18회 태풍문화제 입선작..... 169
- 故이연승시비건립 6주년기념 입선작 171

VII. 문화원 소식 및 회원명부

- 문화원소식.....176
- 임원및 회원명부182



發 刊 辭



이 일 영

형성문화원장

癸未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즈음 우리고장의 향토문화전반을 수집·정리·보존한 「어사매 18호」의 發刊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地域文化暢達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文化家族여러분 그리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聲援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고장의 숨은 鄉土史 發掘을 통해 조상의 얼을 선양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함양에 기여해 온 향토지 어사매는 물밀 듯 밀려오는 外來文化 속에 우리문화를 가꾸고 지키는 地域文化의 求心點이 되고자 鄉土史의 研究와 發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해를 거듭해온 어사매가 형성인의 정서에 맞는 견고한 橫城文化의 틀을 형성시키면서 군민에게 건전한 문화보급과 선양에 이바지하는 완숙한 鄉土綜合文藝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고장의 대표적 鄉土誌인 「於斯買」의 壯途를 지켜보아주시고 이번18호가 군민여러분의 文化慾求를 充足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귀중한 玉稿를 보내주신 文學人 그리고 학술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기산성과 형성」의 연구문을 출품 발표해주신 패널님들께 재삼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觀心과 愛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刊 辭



조 태 진

횡성군수

『어사매』제18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계승시키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첨단사회를 따라잡는 것 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횡성문화원을 기축으로 하여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작업에 앞장 서고 계신 이일영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사매』속에는 횡성군의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소중한 문화유산이 가득 담겨있기에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말이 있듯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알고 계승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기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후손에게 우리고장을 바로 알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전통문화 발굴에 힘써 횡성군민의 문화수준향상과 정서함양에 선두자가 되어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제18호『어사매』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박 명 서

횡성군의회회장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어사매 제18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의 각국은 자신만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다른나라에 자신의 고유문화를 전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없다면 언젠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수한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및 계승, 발전과 새로운 향토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계신 이일영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다수의 문화라는 것은 서구문명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것을 우리 문화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사매의 발간은 우리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우리 지역의 전통과 뿌리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하여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지역간의 체감거리가 가까워지고 지역의 특성이 퇴색되고 있는

이때에 향토애의 제고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지역 특유의 전통문화가 있고 이를 계승 발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유지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군민의 관심과 애정속에서 탄생하는 어사매 제18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진정한 지역문화의 선도자로서 우뚝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김 부 길
황성교육청 교육장

황성의 향토 문화지인 <어사매>의 열 여덟 번째의 태어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어사매>는 황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가슴속에 그리움 일게 되돌아 보는 고향이요, 고개 돌리면 눈에 들어와 있는 고향이요,
항상 마음속에 담고 다니는 고향입니다.
아침이 열리는 가슴 벽찬 하늘에서 단아한 빛깔의 저녁 산등성이까지의 하루 하루를
반복하며 늘 식지 않는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문화 유산의 결실입니다.

물 밑 듯 밀려오는 서구 문화를 접해야 하는 현 실정에서 그래도 우리의 올바른 문화
예술 창달과 전통문화 함양을 위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군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정신 문화와 애郷심을 가지고 생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후손에게
물려 줄 문화적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을 벗하며 풍요속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더불어 사는 정을 베풀어 가시는「어사매」
발간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모쪼록 향토지인 『어사매』가 황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깨닫
도록 하는데 늘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어사매 (제18호)

I. 향토문화창달

- 문화의 향기가 있는 예향의 고장 횡성



문화의 향기가 있는 예향의 고장 횡성

이 일 영 / 문화원장



1. 머리말

21세기는 지식정보와 문화예술체육의 시대이며 국제화시대이고 지방화 시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횡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손색없는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과 문화예술 사료들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인고로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과 같이 다양한 문화예술에 접하지 못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수용할 시설이 태부족이고 유물과 민속품과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보관할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기능을 보유한 인재도 부족하다.

오늘을 사는 우리 횡성인들은 선조들의 얼과 혼과 숨결과 삶과 애환과 재능과 지혜가 담긴 향토의 문화유산과 유물과 예술을 발굴 정리 전승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횡성의 정체성과 문화예술의 중요함을 깨닫게하여 횡성군민의 우수함과 자긍심을 가지고 애국 애족의 후예답게 문화 군민답게 살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문화예술 유산의 전승 보존 및 새로운 문화예술 창출 문화란?

우리의 생활모습 그 자체가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구상에 이룩하여 놓은 모든 것이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은가? 횡성의 문화예술은 횡성인이 횡성땅에 이룩하여 놓은 모든 것들이 아닌가? 중금리 삼층석탑과 같은 유형문화재 정금 회다지소리 같은 무형문화재 기능을 보유한 인간문화재 이모두가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를 예전의 것으로만 여기고 현재 또는 미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횡성의 선조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격란 속에서도 현재와 같은 횡성의 문화를 전하여 주었듯이 우리는 전통문화예술 유적 유물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여

보존하고 전승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한 전통에 바탕을 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품격의 독특한 우리 문화예술을 창출하여 나아가야 한다.

3. 관내 문화예술의 현황

문화관 속빈강정의 외형적인 비대함보다는 내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문화예술 수용시설이 없는 공간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관내에는 10개 부문에 35개 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들이 문화관 이외에는 학습하고 연습할 공간과 전시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

4. 횡성 문화예술의 발전구상

우리 횡성군민은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예술 유적 유물을 발굴 전승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출하여가며 문화예술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하고 또 문화예술인을 발굴 육성하고 전문인(학예사) 육성도 필요하다.

A. 문화예술 시설확충

ㄱ. 문화예술종합복지관 건립 필요? 자라는 청소년들과 우리군민의 문화예술활동과 그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 (문화예술회관)

ㄴ. 박물관 신설 제시→ 박물관은 관내 주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에게 우리의 문화를 한자리에 압축하여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요즘 학교교육은 견학과 체험을 통한 현장학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우리관내에는 박물관이 없어 우리학생과 주민은 타 지역으로 견학을 가는 실정이다. 우리고장을 방문한 관광객은 무엇을 보고 갈 것이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물관은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고 문화예술도 상품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예술을 상품화하여 수 익성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금 회다지소리가 있다. 다시 말해 장례와 관련된 노래 그리고 율동만큼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예술성은 물론이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의 통과의례박물관 같은 것을 만든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도 우리고장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물론 민속생활박물관 건립도 함께 제의 합니다.

ㄷ. 애국의 고장 상징탑 건립 제의 → 우리고장의 선조들은 거란침입때나 임진왜란때는 물론이고 일제의 강점시 그들의 만행과 치욕에 항거하여 3.1운동당시 4월 1일 온군민이 일본헌병과 일경에 맨손으로 맞서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독립운동을 한 독립만세를 외친 애국의 고장이다. 한편, 우리고장은 매년 4월 1일 (1919년 4월 1일) 당시를 잊지 않고 당시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4.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고 있다. 3.1공원에는 동아일보에서 우리군민과 함께 세운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와 현충탑과 우리나라를 위하여 6.25때 참전하여 북한 괴뢰군과 싸우다 희생감리교회에서 장렬히 전사한 고 오우덴중령비가 있다. 고 오우덴비는 새말에 있는 화란군 참전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1공원은 주위를 넓히고 재정비하여 애국공원으로 단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1만세운동 애국의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 건립이 바람직하다.

ㄹ. 문화예술인촌 유치 건의 → 지방문화재 69호인 풍수원 성당 주변에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우리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인 측면과 관광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그와 연계하여 서원면이나 공근면에 적지를 택하여 문화예술인촌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ㅁ. 태기산과 태기산성의 재조명 → 민족의 명산 어머니의 가슴과 젖과 같이 우리 횡성을 품고 보호하여 주는 백두대간의 배의 부분에 해당하는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동북서로 흐르는 섬강 동남서로 흐르는 주천강이 우리 횡성발전에, 문화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제 태기산과 섬강과 주천강을 재조명하고 특히 태기산성을 재조명하여 어답산관광단지와 태기산성을 연계하여 청소년 체험학습장내지는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ㅂ. 산촌특유의 민속촌 유치 → 어답산 관광벨트 내에 전형적인 산촌특유의 민속촌 건립 유치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ㅅ. 대단위 국민문화관광지 유치 → 강림면 부곡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민문화관광지로 매우 적합하다는 말이다. 북서남으로 병풍처럼 둘러싼 산 그 가운데 자리잡은 넓은 들 서쪽산에서 동으로 흐르는 맑은 시냇물 국민문화관광지로는 최적지라

는 평이다. 남쪽 북향을 한 산비탈에는 스키장, 뽕밭에는 부곡자연농원 (각종위락시설, 동물원, 식물원 등) 북쪽에는 시루봉까지 케이블카 설치 전문가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 는 구룡사 쪽보다는 부곡 쪽이 적지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국민종합문화 휴향 관광지로 최적지라고 합니다.

B. 문화예술활동지원 활성화

ㄱ. 문화사랑방, 문화학교 적극지원 활성화 →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랑방 문화학교 운영이 활성화 되어 남녀노소 많은 군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ㄴ. 각종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 우리군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시 군보다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많다. 그러나 더 많은 분야에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시의적절한 때 우리 군에 조직 활동이 없는 군립교향악단, 연극단도 조직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ㄷ. 각종강연회 및 문화예술공연 확충 → 현재 자치단체와 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나 우수한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을 좀 더 확대하여 군민모두가 양질의 문화예술 혜택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ㄹ. 각종공연 전시 활성화 → 공연장이나 전시장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수시로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이 수시로 관람하고 감상하여 질 좋은 문화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ㅁ. 문화예술 역사마을 만들기 → 문화관광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전국 각시군중 한마을을 선정하여 문화 역사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듯이 우리군도 각읍면에 1동리를 선정하여 문화예술 역사마을만들기를 권장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ㅂ. 한우와 더덕을 소재로 한 특색있는 음식만들기 → 우리군의 특산물인 한우와 더덕 은 전국 최고가 아닌가 이에 걸맞는 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먹거리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횡성한우, 더덕을 강조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비, ○○구이, ○○순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이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소나 더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재로 한 음식을 먹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1차 산업인 생산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어 부가가치를 높여야하겠다.

스. 특색있는 건축문화 지도 → 주택이나 각종건물을 건축할 때 천편 일률적이 아닌 문화예술성이 있는 독특한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도 권장하고 가로수도 개성이 있는 수종을 택하여 식수하여 도로변 건물과 가로수가 조화를 이루어 문화예술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리와 마을들로 가꾸었으면 합니다.

C. 태풍문화제 명칭 재고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 큰 풍년과 국민을 기원하는 태풍문화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군민이 태풍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고 상징성이 빈약하여 명칭을 개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배경을 띄고 상징성을 가지며 우리군의 변영과 국민을 띤 좋은 명칭으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의 박식한 의견으로는 저희 횡성군 발전과 횡성문화예술 형성에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민족의 명산 태기산의 명칭을 따서 태기문화제로 개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명칭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횡성군민과 우천 면민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마다 음력 정월대보름에 열리고 있는 태기문화제는 우밀민속문화제나 봉화산민속문화제로 개칭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의하고 문화제 제례는 태기산 정상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단에서 제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5. 맺는말

우리 횡성군민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문화군민이 아닌가 이제 우리군민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선조들의 후예답게 전통문화예술 발굴 전수 보존과 새로운 문화예술 창출에 군민의 예지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 문화예술 체육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큰 몫을 담당한다.

우리군민이 문화의 향기가 있는 예향의 고장으로 생기가 넘치는 체육의 고장으로 각광받는 관광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 군민의 힘과 역량을 쏟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군은 더 많은 문화예술시설과 관광시설과 체육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II. 강원문화인물선양

- 박원(璞園) 정현석(鄭顯奭)先生의 문화활동
- 독립운동가 최양옥(崔養玉)지사



격변의 19세기 중·후반, 지방 목민관의 문화대응과 실천

- 박원 정현석의 문화활동에 대하여 -

성 무 경 (成 武 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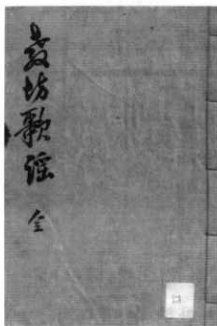
I. 박원 정현석은 누구인가

우리가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 볼 때, 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한 사회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한 집단에 의해 공유(共有)되고, 학습(學習)되고, 축적(蓄積)되는 가치 창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근대화의 격변에 놓이면서 전통사회의 가치들이 한 순간 무너지는 전통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다. 다행이 근래 우리 사회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우리의 독서문화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대중적 글읽기의 척도를 가늠하는 베스트셀러가 대개 ‘우리의 고전과 전통문화’에 관련된 책들이라는 점이다.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세계화’를 국가정책의 방향으로까지 설정하는 등, 국가적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고전과 전통문화의 발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이 같은 현상은 글로벌시대를 맞은 우리가 거꾸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질 수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정신 문화적 대응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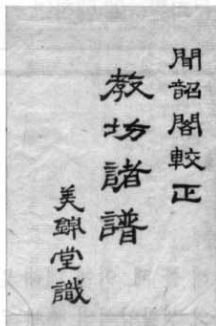
문화관광부는 2002년 8월, 가객(歌客) 박효관(朴孝寬)을 ‘이 달의 문화인물’로 지정하여, 그의 문화활동 전반에 대하여 집중 조명함으로써 일반인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운애(雲崖) 박효관의 가계와 행적은 별반 알려진 바 없지만, 당대 가곡의 명인으로서 조선시대 ‘가곡(歌曲)’을 정리한 3대(大) 가집(歌集)의 하나로 평가되는 『가곡원류(歌曲源流)』를 제자 안민영(安旻英)과 함께 편찬함으로써 우리 국문학과 음악분야에 다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 주목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가곡의 명인 운애 박효관의 문화활동을 넘어서거나 거기에 필적하는 동시대 또 한 명의 문화인물이

다름 아닌 박원 정현석이라고 생각한다.

19세기 중·후반 고종의 즉위와 맞물려 대원군이 집정하던 시기, 서울 필운대의 운에



박원 정현석이 편찬한 『교방가요』
(고본)표지



<교방제보>라는 명칭의 고대본
『교가요』속지

산방(雲崖山房)에서 박효관과 안민영을 중심으로 한 예인들이 폭넓은 예술활동을 벌이고 있을 무렵, 진주와 김해지방의 목민관으로서 선치(善治)를 펴면서 당대 지방의 관변 예술문화와 민속예술인 판소리에 폭넓은 관심과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곧 박원 정현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원 정현석은 일반인들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그 이

유는 박원이 조선 후기 유일한 지방 관변의 교방문화보고서, 즉 『교방가요(敎坊歌謠)』라는 귀중한 책을 편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이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과 『교방가요』가 종합예술보고서인만큼 책의 전체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교방가요』를 통해 박원 정현석이 단순히 문화 채록자나 보고자의 입장에만 있지 않았으며, 실천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중요한 문화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이후 덕원부사로 부임했을 때 고종의 윤허를 받아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의 문화활동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된다. 나아가 박원은 격변의 19세기 후반,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근대민족주의의 표상인 청년 시절의 백범 김구와도 절묘한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으니, 그가 역사 전환기 구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봉건관료의 한 명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러한 박원 정현석의 행적을 통해 주목되는 그의 문화활동을 살펴 보면서 그가 당대 실천적 문화인물의 한 명이었으며, 나아가 그의 그러한 노력이 오늘날까지 우리 문화의 발굴과 계승, 그리고 창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 글의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형성이 낳은 중요한 문화인물인 동시에 나아가 우리 근세사에서의 드물게 만나는 실천적 문화인물인 것이다.

II. 정현석의 행적을 통해본 그의 문화활동

박원 정현석의 행적은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온전한 연보의 작성이나 관련자료의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방가요』나 정현석에 관련된 연구가 더러 있었으나, 그것은 『교방가요』에 기록된 “璞園鄭顯奭 草溪人 官至海伯 世居橫城郡”[국립본], “璞園鄭顯奭 草溪人 官至黃海監司 高宗時人”[통문관본], “璞園鄭顯奭 草溪人 官至海伯 高宗時人 其子孫現居橫城邑”[고대본] 등의 단편적 기록에 의지했을 뿐이며, 판소리연구에서 정현석이 전라도 고창(高敞)의 판소리 대방가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에게 보낸 「증동리신군서(贈桐里申君序)」(1873)라는 두 통의 편지가 강한영 선생에 의해 보고된 바 있어, 그가 판소리의 이론적 지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정도였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추적하면서 추가로 밝혀진 행적들을 보충하여 박원의 문화활동과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현석은 초계정씨(草溪鄭氏) 대제학공파(大提學公派, 關東派)의 인물로, 정홍관(鄭鴻觀)의 계자(系子)인 혈오재(歇五齋) 정기화(鄭琦和 : 1786~1840)의 아들이다. 부친 정기화는 삼사(三司 :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를 두루 역임하고,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 : 세자나 왕자들과 글을 토론하고 강의하는 직책, 정4품)을 지낸 분으로, 심성(心性)을 의인화한 『심사(心史)』(일명 『천군본기(天君本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라는 작품을 남긴 인물이다.

정현석은 부친 정기화와 모친 안동권씨 사이에서 순조 17년(丁丑年, 1817년), 1월 8일에 태어났으며, 자(字)는 보여(保汝), 호는 박원(璞園)이다. 박원은 24세 때인 1840년 부친상을 당하여 3년 상을 치른 후, 28세 때인 1844년(甲辰年) 증광진사(增廣進士)에 합격하고, 30세인 1846년(丙午年)에 음직(蔭職)으로 후릉참봉(厚陵參奉, 종9품)을 지냈다. 이 때 이후 20여 년간의 행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내직(內職)으로 삼조(三曹)와 사부(四府)를 거치고, 외직(外職)으로 열 번의 수령에 한번의 감사(관찰사)를 지냈다”는 족보의 기록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내 · 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원이 50세 때인 1866년(丙寅年)에 진주목에 속하는 삼가현(三嘉縣)의 현감(縣監)을 지냈다는 사실이 『삼가읍지』, 「형승」조에서 발견된다. 곧 “수정지(水晶

池)는 정금당(淨襟堂) 앞에 있는데, 병인년에 현감 정현석이 새로 파고 연꽃을 많이 심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는 같은 책, 「읍선생안」의 이름 석 자로 다시 뒷받침된다. 다음해인 1867년(丁卯年, 高宗4년) 박원의 51세 때의 행적은 『청선고』와 『진양지』, 「임관」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는 선치의 공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에 오르고, 이해 8월에 진주목사(晉州牧使)로 부임한다. 이를 통해보면 이 시기 박원은 진주지방에서 거푸 현감과 목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진주목사로 부임한 다음해인 1868년(戊辰年)에 박원(52세)은 병사(兵使)와 의논하여 논개(論介)의 사당인 의기사(義妓祠)를 중수하고, 이해 6월에 순전히 기녀들만으로 치러지는 방식의 매우 특이한 풍류제례인 「의암별제(義巖別祭)」를 실시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교방가요』의 「의암별제가무」조의 서문과 이 별제의 <상향악장>으로 부르는 가곡창사의 “戊辰年 六月 日에 단을 모아 焚香하여”와 이에 달린 주의 “년즉수칭(年則隨稱: 해는 때에 따라 달리 칭한다)”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알게 된다.

장수 기생 노은개(魯隱介)는 절도사의 소실이었다. 진주병영에 있을 때 임진년의 병화를 당하여 성이 함락되니 6만여 명이 함께 구덩이에 묻히었다. 논개가 매우 아름답게 단장하고 축석루 아래 강가에 있는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으니 왜장 가운데 가장 사나운 괴수 하나가 바위 위로 뛰어 올라왔다. 기녀는 웃으며 맞이하여 희롱하다가 왜장의 허리를 끌어안고 강물로 떨어졌다. 이로부터 왜군들은 병졸을 수습하여 달아났다. 뒤에 조정의 영으로 인하여 의기사(義妓祠)를 세우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냈다. 내가 진주에 부임한 다음 해, 병사와 함께 의논하여 그 사당을 중건하고 의암별제(義巖別祭)를 베풀었다. 6월중 택일하여 일을 치렀는데 제관(祭官)과 선발된 기녀(妓女)를 차출하여 절차를 익히도록 하고, 감히 의식에 실수가 없게 하여 해마다 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제를 지낸 다음날 밤 꿈에 두 여자가 한 부인을 부축하고 들어와 앞에 서거늘 “누구냐?”라고 물으니 “노은개입니다.”라고 대답하고는 홀연히 사라지니 또한 기이한 일이었다. 남강에서는 빨래하는 여자들이 해마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해부터 이와 같은 재난이



박원 정현석의 실시한 <의암별제>도판

없어지니 읍내 사람들은 별제의 효험이라고 여겼다. (『교방가요』, 『의암별제가무』조, <서문>)

이 제례의 절차는 박원 정현석에 의해 오로지 된 것인데, 정현석 목사의 의암별제 설치는 병인년의 양요(丙寅洋擾, 1866)를 계기로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정세적 위기감이 첨예하게 의식되자, 당대 관료들에게는 관민결속의 문제가 중요한 책무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바, 이러한 사회문화적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민결속이라는 당대의 현실적 요구에 응한 한 지방관의 문화적 대응방식으로 읽혀진다. 이러한 사회·문화사적 흐름의 이면에는 1862년의 진주민란이 계기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박원의 의암별제 실시 목적은 예의 적중하여 진주는 물론 전국적인 축제적 제례로 확대되었음이 확인된다. 「의암별제가무」의 성격은 절차 자체가 제례이면서 동시에 축제이고, 구체적으로는 정제종목의 하나이기도 하다는 대단히 미묘한 특징을 나타낸다. 「의암별제가무」는 『교방가요』에 기록된 가장 정제 있는 지방 교방의 악·가·무(樂歌舞)라 할만한데, 일찍이 [통문관본]을 바탕으로 『교방가요』에 대한 서지론을 쓴 백영 정병욱 선생은 「종합예술로서의歌舞와時調 - 『교방가보』의 미발표 가사 <의암별곡>과 時調를 중심으로」(1973)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이상 소개한 ‘의암별제’의 절차는 오늘날 진주 지방에서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에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면 지방의 문화적 행사로 웅당 복원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화재의 인멸을 한탄하는 뜻 있는 인사들의 눈에 이러한 자료가 결코 헛되어 한갓 문헌으로 남기에는 너무도 전통문화를 위하여 아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방의 고로(古老)들 중에 이 행사를 보았거나 듣고 자란 분이 생존해 계시다면 그분을 찾아 내어 하루 속히 복원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백영 선생이 우려했던 대로 의기 논개를 기리던 「의암별제」는 일제시대에 실제로 일제의 간섭을 받아 전승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백영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이 글을 보지도 못했던 한 여성(성계옥, 76세)의 노력으로, 진주교방 출신인 고로(古老: 최순이, 작고)의 증언과 『교방가요』, 「의암별제가무」조의 기록을 바탕으로, 1992년 민간단체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를 주축으로 ‘의암별제’가 복원되어 올해까지 10년 동안 제례가 봉행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뜻 깊고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에서 「의암별제」를 실시했던 박원 정현석은 54세 때인 1870년(庚午年, 高宗 7

年) 6월 진주목사에서 곧바로 김해부사로 부임한다. 이 사실은 『김해읍지』, 「환적」조에 나타난다. 박원의 김해부사 시절의 치적은 김해의 이곳저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 전한다. 1871년(辛未年, 고종 8년)에는 퇴락한 김해의 분산성(盆山城)을 개축한 바 있고(분산성 개축과 관련된 「흥선대원군만세불망비」와 「부사통정대부정헌석영세불망비」가 현재 분산성 부근의 ‘충의각(忠義閣)’ 안에 세워져 있다), 김해향교를 중수했으며, 허황후 왕비릉 내에 있는 파사각(婆娑閣)의 유명한 ‘파사석탑(婆娑石塔)’도 원래 호계사 부근에 있던 것을 박원이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또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대(鳳凰臺)’의 산 정상부 암벽에는 박원이 새겼다고 하는 “봉황대(鳳凰臺)”라는 각자(刻字)가 남아 있기도 하다.

박원이 김해부사로 있던 1872년(壬申年, 고종 9년) 2월, 박원(56세)은 당시 부사의 거처로 추정되는 미금당(美錦堂, 김해부관아 공해에서 『교방가요』를 편찬한다. 이 사실은 『교방가요』의 서문으로부터 알 수 있다. 즉 서문의 “내가 진주목사로부터 김해부사로 부임해서까지 공무에 여가가 있어 교방을 베풀어 가무를 연습시키고, 가요 가운데 채록할 만한 것을 좇아 시구(詩句) 약간 수를 이루었다…임신년 중순 박원 늙은이 미금당에서 씀”이란 기록에서 보듯이 박원은 김해부사 시절 미금당에서 『교방가요』의 서문을 썼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대본]의 표지 배면에는 “美錦堂識”라 하여 ‘미금당’이란 당호가 나타나 있어, 이를 박원 자신의 호(號)로 썼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정현석의 호는 ‘박원(璞園)’이 옳을 것이다.¹⁾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교방가요』는 박원이 진주목사를 지내던 시절부터 손을 대서 김해부사를 지내던 1872년에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교방가요』에 수록된 교방의 악·가·무(樂歌舞)는 진주 축석루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 「의암별제가무」조를 제외한 여타

1) 이는 박원이 『교방가요』를 편찬한 다음 해인 1873년(癸酉年, 高宗 10年) 6월에 쓴 「증동리신군서」의 표현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증동리신군서」는 박원이 자신의 판소리에 대한 이론적 견해를 담아 고창의 신재효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인데, 그 각각의 말미에 “계유년 중순, 부득이 벼슬은 하고 있으나 마음은 은거(隱居)하고자 하는 박원은 씀(癸酉仲夏 璞園吏隱鉞)”이라는 기록과 “미금당거사는 장난 삼아 씀(美錦堂居士 戲寫)”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보면 박원은 『교방가요』의 서문에도 “書于美錦堂”이라 표현하였고, 편지에도 “美錦堂居士”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미금당’이 김해부 관아의 당호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박원의 김해부사 임기는 1870년 6월 9일부터 1872년 12월 27일까지이므로, 결국 『교방가요』의 편찬이나 신재효에게 보낸 편지인 「증동리신군서」는 모두 김해부 관아 부사의 거처였던 ‘미금당’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여겨진다. 공해의 당호(堂號)는 채적시 임시로 쓰는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항목들은 진주나 김해 등 어떤 지방의 교방에서든 보편적으로 연행되던 일반적 공연물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드러난다. 그렇더라도 박원은 김해의 경우에 “설교방(設敎坊)”이라 하였으므로, 『교방가요』가 함의하고 있는 문화적 도상은 진주 교방의 풍류문화를 전범으로 하여 그려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교방가요』는 일관된 체제나 완결된 형태의 깔끔한 서책이 아니다. 추록(追錄)을 위한 여백면도 두어 군데 있고, 또 권두에 ‘총목(總目)’이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인 수록 내용을 전부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방가요』의 수록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네 부분을 수록 순서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곡(歌曲)과 가사(歌詞)를 수록한 부분

둘째, 악기(樂器)와 무곡(舞曲, 악장(樂章)의 목록)·정재의 시작 연주곡목·정재창사목록, 그리고 가곡실연에 관련된 가품(歌品, 가곡의 風度形容)·가절(歌節, 매화점장단)·가곡 5장에 대한 노랫말 배분형식·가곡의 실연도(實演圖)·연창(演唱)의 순서 등에 대한 설명 부분

셋째, 각종 정재(呈才)에 관한 설명과 기록 부분

넷째, 판소리·잡희·잡요·단가에 관한 단편적 설명과 기록 부분

이상의 네 부분 가운데서도 교방의 ‘가(歌)와 무(舞)’를 기록한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이 『교방가요』 편찬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볼 수 있는데, 권두의 총목은 주로 이 두 부분에 대한 세부목차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원 정현석의 『교방가요』



도반(桃盤)과 선녀(仙女)가 각각 4개와 4으로 기록된 『교방가요』의 <한반도>

편찬의 주요 목적이 ‘교방(敎坊)의 가무(歌舞)에 대한 기록’과 ‘가요(歌謠)의 채록’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그가 쓴 서문에도 여실히 나타나며, 실제의 기록 분량도 이 두 부분이 가장 많다.

『교방가요』가 지방 교방의 관변풍류를 함의하고 있는 문화 보고서라는 점은 「의암별제가무」를 통해 여실히 나타나는 바이지만, 이 책에 실린 23종의 정재 가운데 하나인 <헌반도> 하나만 들어보아도 그 성격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정재는 『고려사』, 「악지(樂志)」, 「당악정제」 조에 처음 나타나

는데, 이후 조선 성종 때의 『악학궤범』은 물론 조선 후기의 각종 의궤와 정제 관련 기록들에 일괄적으로 <헌선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박원이 편찬한 『교방가요』에는 그 명칭이 <헌반도>라고 되어 있지만 명칭 아래에 작은 글자로 ‘일명 헌선도’라고 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은 없다. <헌선도>는 상상 속의 선계(仙界)인 요지에 사는 동선(童仙)과 선녀(仙女)가 내려와 삼 천년에 한번 열린다는 선도(仙桃)를 바치면서 축수한다는 내용의 당악정제이다. 그런데 『교방가요』에 기록된 정제의 절차와 도판을 살펴보면 궁중에서의 그것과는 인원과 절차가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궁중정제의 <헌선도>와 『교방가요』의 <헌반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궁중정제의 <헌선도>에서 선도를 바치는 인원과 도반(桃盤)이 1인(서왕모)과 1개인데 반하여, 『교방가요』에 기록된 <헌반도>에서는 4명의녀와 4개의 도반이 나타난다는 것이



1795년 『정리의궤집』의 <헌반도> 궁중정제에서는 이처럼 도반 1개와 선녀인으로 나타난다.

다. 궁중에서 헌수를 받는 사람은 왕이나 왕비 등 1인인데 반하여, 『교방가요』에 기록된 것은 지방 관아에서는 관장을 비롯한 좌상이 동시에 선도를 받는 경우가 일반화 된 사정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궁중정제에서는 정제 중간 중간에 부르는 창사(唱詞: 노래)가 <원소가회사(元宵嘉會詞)>, <일난풍화사(日暖風和詞)>, <여일서장사(麗日舒長詞)> 등 한시창사를 부르는 데 반해, 지방 교방에서는 국문 가곡(歌曲) “요지에 봄이 드니 벽도화 뒤단 말가 / 삼천년 미친 열매 옥반에 다마시니 / 진실노 이 반곳 바드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라.”를 계면조 농가(弄歌)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 후기 예술문화에 있어 연행 주체였던 기녀들이 뜻 모르고 부르던 한시 창사를 건어치우고 정제창사를 국문가곡으로 대신한 것인 바, 당악정제 <헌선도>를 실질적으로 향악화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²⁾

2) 『교방가요』가 구체적으로 지방교방의 문화도상을 그리고 있지만 그 문화대상물들은 서울의 그것(가곡, 정제 등)과 종목들에서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당대 지방 관변에서 각종 기예를 담당하던 교방의 기녀들이 진연·진찬과 같은 궁중의 각종 큰 잔치에 선상되어 궁중 장악원에 소속, 보다 세련되고 고급의 기예를 익혀 여연(御宴)에 참가하고, 역(役)이 끝나면 다시 본향의 지방 교방으로 내려와 문화를 전파하는 독특한 문화소통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대로 조선 후기에는 지방에서 창조된 각종 기예가 문화의 중심인 서울, 특히 궁중으로 진출하는 예도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향간 대등한 문화창조와 교류는 오늘의 서울 중심의 문화구조와 소비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처럼 『교방가요』의 중요성은 19세기 중·후반 지방 교방의 기녀들이 이습하고 연행했던 공연물의 실상, 즉 지방 관변의 악·가·무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라는 데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교방가요』의 이본은 총 4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교방가요』,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본 『교방제보』, 통문관 소장본 『교방가보』, 전북대 임미선 교수 소장본 『교방제보』 등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네 이본의 서문은 모두 ‘교방가요서(敎坊歌謠敍)’라 하였으므로 결국 책의 원제목은 『교방가요』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872년(壬申年, 고종 9년) 2월 『교방가요』의 편찬 이후, 박원의 행적은 1873년(癸酉年, 高宗 10年) 6월(仲夏)에 쓴 「중동리신군서」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이 「중동리신군서」는 박원이 자신의 판소리에 대한 이론적 견해를 담아 고창의 신재효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로 국문학계는 이 자료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판소리의 이론정립은 신재효가 <광대가>에서 표명한 “광대라 하는 것이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그 지차 득음이오, 그 지차 너름새라”라는 소위 ‘판소리 4법례’가 금과옥조로 알려져 있지만, 신재효의 이러한 판소리 이론정립은 박원 정현석의 판소리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신재효의 판소리 다섯 마당 개작 역시 국문학계에 금·부정론이 팽배해 있지만, 그의 판소리 정리작업도 박원의 이론적 지도가 계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³⁾ 박원은 광대의 판소리 교육에 관한 견해는 물론, 실제 연창현장에서의 명창의 조건 등을 소상하게 기록하여 이경태를 통하여 고창

3) 박원 정현석이 동리 신재효에게 보낸 「중동리신군서」 2번째 편지 :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등은 쉽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 충분하지만, 그 나머지는 들을 만한 것이 없다. 요즘 불려지는 노래를 하나하나 다 들어보니, 서사(敍事)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이 많고, 또한 전해진 사실들은 간혹 조리가 없었다. 하물며 글을 아는 자가 창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고지가 뒤바뀌고 미친 듯이 소리나 내질러서, 열 구절을 들어 한 두 구절을 알아듣기가 어렵다. 또 머리를 흔들고 눈동자를 굴리며 온 몸을 난잡스럽게 놀려대니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조차 없다. 이러한 폐단을 고치려면 우선 노랫말가운데 그 비속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제거하고 문자로 윤색해야 하며, 일의 정황을 제대로 형용함으로써 한 편 전체에 문리(文理)가 이어지게끔 하고, 언어를 단아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에는 광대 중에서 용모가 단아하고 목의 음색이 넓고 우렁찬 자를 뽑아, 수천 자를 가르쳐서 평성과 상성, 청성과 탁성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한 후에 노랫말을 외우게 하여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가르쳐야 한다. …(중략)… 소리판에 올려보내 소리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의 발음을 분명하게 하고, 서사를 조리 있게 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몸가짐은 단정하고 바르게 하도록 해야 한다. 한 번 앉고 한 번 일어서고, 한 번 부채를 들고, 한 번 소매를 들어 찡구는 것이 모두 절도에 맞아야 비로소 명창이라고 할 것이다. 동리(桐里)에게 이 말을 부치니 모름지기 이 비결을 시험해 보도록 하오. 미금당 거사 희사(戲寫) (추신, 생략)」

의 신재효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김해읍지』, 『환적』조에 따르면 박원은 1873년(癸酉年, 高宗 10년) 12월 27일(57세) 돈녕도정(敦寧都正, 정3품)을 제수 받아 서울로 이거(移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원의 내직 발령에 따른 돈녕도정(왕실 외척 관리 직책) 제수는 1873년 말 10년 동안 집권하여 온 대원군의 실각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당시 고종의 친정(親政)과 개화파의 집권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후 1883년 1월 덕원부사로 부임하기까지 약 10여 년간의 행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주로 내직(內職)을 지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원의 행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 10년 사이 조선 정부는 1876년 10월에는 부산(釜山)을 개항하고, 1880년 4월에는 원산(元山)을 개항하고, 1883년 1월에는 인천(仁川)을 개항하게 된다.

1883년 1월 박원 정현석(67세)은 고종으로부터 개항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동래(東萊)의 예를 참고하여 선참후개(先斬後啓)하여도 무방하다는 허락을 받고 덕원부사에 부임한다. 신용하 교수에 의해 밝혀진 바 있듯이, 박원은 덕원부사 시절, 1883년 덕원부(德源府) 원산사(元山社)에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元山學舍)’를 설립하고, 같은 해 8월 28일에 도감영(道監營)과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는 장계를 올려, 이를 왕명으로 윤허 받는다. 이 때 원산학사의 설립기금 총 6,765냥 중, 민간인인 향중부형 118명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총금액이 5,215냥이었고, 원산상회소가 50냥을 출의했으며, 관료로는 덕원부사 정현석과 서북경략사 어윤중, 승지 정현시(정현석의 아들) 등이 각각 100냥씩 출의했다. 이 때 원산해관에 고용된 외국인도 760냥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원의 이 같은 행적으로 그는 역사학계에서 온건 개화파관료로 분류되기도 한다. ‘원산학사’ 설립과 관련된 이 같은 박원의 행적은 『춘성부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책의 원본 역시 박원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사진본으로 남아 있는 이 『춘성부지』는 편찬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춘성부지』의 서문은 ‘덕원부지서(德源府誌敍)’이고, 을유년(乙酉年, 1885년) 중춘(仲春)에 정현석이 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책의 주기(註記)에 따르면 원소장자는 정운철(鄭雲澈)이고, 1940년(昭和 15年) 11월 20일 이궁복(李肯馥)이란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소장자 정운철은 곧 박원의 직계 증손이다.⁴⁾ 이

4) 참고로, [국립본] 『교방가요』는 송신용이란 사람이 소장한 원본을 누군가가 1941년(昭和 16年)에 등사한 필사본이며, [고대본]은 ‘문소각교정(聞韶閣校正)’이라 되어 있다.

처럼 박원 정현석이 덕원부사로 부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 수업을 시행하는 등의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막은 『승정원일기』나 『덕원부계록』 등의 관·민 기록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박원이 직접 편찬한 『춘성부지』에는 원산학사 설립기금 기부자 현황과 학교 운영 규정인 「학사절목」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박원의 덕원부사 시절의 행적 가운데 사적(私的)인 것으로는 부친 정기화(鄭琦和)의 유고인 『심사(心史)』(일명, 『천군본기』) 100본(本)을 발간(필사본이었던 것으로 보임)한 일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 『심사』의 필사기에 “不肖男 顯奭 校, 孫 憲時 編, 乙酉秋刊”(77면)이라 하였고, 또 “憲時 時在外衙門參議 刊出一百本, 乙酉九月 日余在德源任所”(79면)이라 하였으니, 혈오재 정기화가 지은 『심사』의 발간은 아들 현석이 교정을 보고, 손자 현시가 엮어, 1885년(乙酉年, 69세) 9월에 덕원 임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 이 『심사』는 박원의 손자인 정호봉(鄭鎬鳳) 대(代)에 『천군연의』의 부록으로 실려 활자본으로 발행(翰南書林, 1914, 1, 10. 刊行)되기도 했는데, [국립본] 『심사』는 필사본 100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추정된다. 『덕원부지서』에서 “乙酉 仲春 八溪 鄭顯奭 敍”라고 한 것이나, 『심사』의 2면에 붓으로 그린 “八溪 后人”이라는 낙관을 통해보면 이 시기 박원은 자신의 집안 내력이 초계정씨 중흥조로 칭송되는 팔계군(八溪君 : 恒齋, 鄭宗榮, 16世)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력을 더듬다 보면 『심사』의 발문 끝의 “不肖男顯奭涕泣謹跋”이라는 목적은 더욱 선연해 보인다.

이후 박원은 1894년(甲午年, 78세)에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하는데, 이는 『청선고』나 『교방가요』의 필사기 등에 나타난다. 불행히도 박원의 황해도관찰사 시절의 행적은 동학도의 해주감영 습격과 관련되어 있으며, 박원은 이 때의 일을 「갑오해영비요전말(甲午海營匪擾填末)」이라는 수기(手記)로 남긴다. 후손 분의 말씀으로는 이 때 동학도가 박원의 인품을 잘 알아 감사가 계신 곳은 피해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여 충돌이 있었으며, 일본군의 매복과 발포로 사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난다. 동학도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때 해영을 공격한 동학도의 주력은 김창수(金昌洙) 부대였고, 이 사람은 곧 어린 시절의 백범(白凡) 김구(金九)이다. 이는 역사적

5) 『춘성부지』, 「부사선생안」에 “癸未正月到任 乙酉四月特仍”이라 한 것으로 보아, 박원은 임기가 끝나를 을유 4월, 다시 연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행이기는 하지만 봉건군주제도의 통치권과 민중의 힘이 부딪치는 역사의 변전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후 박원은 82세였던 1898년(戊戌年, 光武 2年)에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오르고, 이듬해인 1899년(己亥年, 光武 3年, 83세), 술한 관직 생활을 뒤로하고 6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박원의 묘소는 횡성군 공근면 학곡리 금판촌 뒷산 건좌(乾坐)에 있으며 부인 최씨와 합장했다. 묘소에 비석은 세우지 않았고, 망주석과 석수 2기가 있다. 족보에 보이는 “官至戶曹參判”은 증직인 것으로 보이며, 『용비변사고(戎備蕃司考)』, 『용비고(戎備考)』, 『유원록(柔遠錄)』, 『경개록(傾蓋錄)』, 『여지고(與地考)』, 『기기도설(器機圖說)』, 『백행록(百行錄)』, 『오총도관견록(五摠圖管見錄)』, 『시종록(始終錄)』 등 많은 저술이 있었다고 기록되었으나, 현재 이 책들은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책의 제목만으로 보더라도 국방, 외교, 지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저술을 남겼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후손 분의 말씀에 의하면 박원이 살던 고택(古宅)은 현재의 횡성군청 앞마당 자리에 있었으며, 6·25전쟁 때 인민군이 사용하였고, 이후 폭격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박원의 소저(所著)들은 대부분 이때 인멸되었을 것이다.



박원 정현석 선생의 묘소
(횡성군 공근면 학곡리 금판촌 건좌)

III. 문화인물로 재조명되어야 할 박원 정현석

문화란 개념은 실상 매우 폭넓은 개념이고, 또 인간생활의 어느 곳에서도 그것은 인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상적 실체를 포착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문화의 개념은 조금은 더 구체적이어서 “문치교화(文治敎化)로서 이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행위 일체”라는 효용론적 견해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봉건 관료였던 박원 정현석의 문화활동 역시 시(詩)서(書)예(禮)악(樂)형(刑)정(政)이 유기적 질서를 이루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화활동을 수행한 것이었다. 그의 『교방가요』 편찬에서의 악부시(樂府詩) 수록방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형정(刑政)의 통치보다는 예악(禮樂)의 인치(仁治)가 봉건관료에게는 최고의 선(善)이었던 바, 박원은 이러한 봉건관료로서의 ‘문치교화’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원이 실천한 여러 행적들은 그가 개방적 사고를 가졌던 유능한 관료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자학적 명분론보다는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덕원부지서』, 참조) 박원의 여러 행적 가운데 주목되는 문화적 활동을 짚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박원이 진주목사로 부임한 다음해(1868) 관민이 어우러지는 풍류제례인 「의암별제」를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1862년의 진주민란의 후유증과 병인양요(1866) 등으로 침예해진 서세동점의 정세적 위기감이 별제를 실시하게 된 직·간접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곧 관민결속이 지방관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되었던 시기였던 것이다. 더불어 이 시기는 대원군이 경복궁의 중건을 강행하면서 왕실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분투했던 시기이며, 대원군 집권기에 있어서 그의 권력 장악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였다. 경복궁을 중창하던 차에 양요(洋擾)를 만난 대원군이 “西舶煙塵天下晦 東方日月萬年明(서양 배들의 포연으로 천하가 어두워도 동방 일월은 만년토록 밝다)”이라고 강개한 기상을 펴 보이던 시기이기도 하다. 논개가 누구인가. 그러한 시점에서 논개를 제사하는 제레이자 관민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 박원의 의도는 관민결속이 요구되는 정세적 요구에 응하는 한 지방관의 문화적 대응과 실천으로 읽기에 충분하다. 대원군의 시구(詩句)에서 감지되듯 19세기 중·후반 조선은 거대한 서양의 물질문명에 동방문명의 우월감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원

이 지방관료로서 「의암별제」를 실시한 3년 뒤인 신미년에 대원군은 “양이(洋夷)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으면 강화(講和)하자는 것이요,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신미년, 척화비)이라는 다급하고 강경한 목소리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⁶⁾ 어쨌거나 박원의 「의암별제」 실시는 이후 매우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안지정의 『열상규조』에 의하면 고종 30년(1893), 진주성 함락 300주기 추모제에 모인 관광남녀 수가 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의기사(義妓祠) 제향에서의 기생들의 여흥 또한 대단히 흥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선해어화사』에 기록된 달성 기녀 현계옥의 일화는 박원의 문화적 대응이 일제시대에 이르러 되살아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달성의 명기 현계옥은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서 진주 논개의 사당을 중수했다가 경관에게 알려진 바 되어 여러 번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으며, 이후 동지들과 함께 극단을 조직해서 평양으로 갔다가 압록강을 건너 상해의 한국 정부를 찾아가서 연극을 해서 얻은 돈을 남김없이 군자금으로 희사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문화는 결코 물질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일제시대에 중단되었던 「의암별제」는 1992년 한 여성의 노력으로 복원되어, 현재 진주 민속예술보존회를 주축으로 매년 제례(의암별제) 겸 축제(진주논개제 겸 여성축제)로서 매년 봉행되고 있으니, 19세기 중·후반 박원의 문화대응과 실천이 오늘날까지 계승, 창조되어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박원이 진주목사 시절부터 손을 대서 김해부사로 부임해가서 완성한 『교방가요』(1872)의 편찬을 들 수 있다. 『교방가요』의 자세한 내용과 성격은 필자의 역주서에 미루어 두거니와, 이 책은 조선후기 지방 교방의 관변풍류라는 문화도상을 여실히 담고 있는 종합예술문화보고서이다. 거기에는 조선 후기의 가곡연행의 실제(편가)와

6) 동 시기 문화인물 박효관의 운애산방의 모습을 안민영의 『금옥총부』를 통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화(桃花)는 훗날리고 녹음(綠陰)은 퍼져온다
 피꼬리새 노는 연우(烟雨)에 구울거다
 마초아 잔(簫)드러 권하라 제 담장미인(澹粧美人) 오더라

신미년(고종 8년, 1871) 초여름, 운애선생과 함께 산방(山房)에 마주 앉았는데, 그 때 비는 시원스레 뿌리고 피꼬리가 울었다. 술을 따라 서로 권하는 차에 홀연 안존하게 단장한 한佳人(佳人)이 술한 병을 손에 들고 찾아왔다. 바로 이가 평양의 산홍(山紅)이었다. (『금옥』26번, 우조(羽調), 이삭대엽(二數大葉))

가사(가창가사), 각종 무곡(정재)들, 나아가 각종 음악적 설명들, 그리고 판소리, 잡요, 단가에 관련된 단편적 설명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분야에 걸친 당대 문화실상에 관한 보고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들은 국문학, 음악학, 무용학 등 국학 관련 제 분야에 두루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셋째, 박원이 덕원부사 겸 감리로 부임하여 읍민들과 함께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를 설립하고, 1883년 8월 28일 정부에 보고하여 고종의 승인까지 받은 사실을 들 수 있다. 신용하 선생에 의해 자세히 밝혀졌듯이 '원산학사'의 설립은 박원의 온건개화와 관료로서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는 교육문화활동에 관련된 치적이라 할 수 있다. 원산학사는 설립당시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나누어 구성되었고, 문예반은 경의(經義)를 가르치고, 무예반은 병서(兵書)를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문무의 공통과목으로는 산수(算數)와 격치(格致:물리), 기기(機器), 농업(農業), 양잠(養蠶), 광채 등에 이르는 실용학문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원산학사'는 이후 '원산학교'로 불렸는데, '원산소학교', '원산보통학교', '원산 제일 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고 전한다.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가 읍민의 요청과 개방적 성향의 관료의 수용으로 관민이 협동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은 앞서 박원이 관민이 어우러지는 「의암별제」를 실시했던 행적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박원이 읍민과 협력하여 설립한 '원산학사'는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가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6년 6월에 세운 '배제학당'이라는 기존 견해보다 앞선 것이며,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의 설립이 개항장 민중들의 요청에 개화와 관료들이 적극 협력(合力)하여 이뤄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19세기 후반, 자주적 근대사를 이룩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기울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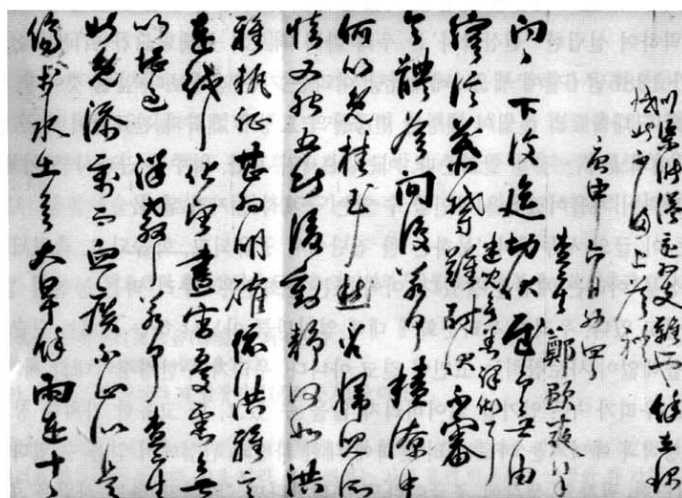
필자는 이 글의 서두에서 '문화는 한 집단에서 공유되고, 학습되고, 축적되는 가치창조의 산물'이라는 개념을 들었다. 이에 모든 문화권은 '우리'라는 동질적 정체성을 범주로 삼고 있다. 우리가 우리문화에 대해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바쁜 세상에 쓸데없이 사로잡히는 고민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의 세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또 고유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경쟁력과 에너지는 바로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의한다면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옛 글을 함께 음

미해 보았으면 한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좋아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즐기기는 더욱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격변의 19세기 중·후반, 지방 목민관으로서 문화활동을 꾀던 박원 정현석의 행적은 이제 겨우 우리 앞에 그 모습을 조금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다. 앞으로 박원 정현석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박원의 문화활동에 관한 제반 연구와 관심이 따른다면 박원 정현석은 우리 근세문화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화인물의 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원이 그리하였듯이 이러한 노력들에서도 관·민이 협력(合力)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성격상 참고문헌을 기록하지 않았다. 참고문헌과 보다 자세한 도움 글은 필자의 역주서, 『교방가요』(보고사, 2002)의 해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임형택 선생께서 며칠 전 여타 4종의 쪽지 간찰과 함께 필자에게 제공해 준 박원의 친필 서간이다. 미처 자료활용을 하지 못한 신 자료임을 밝힌다.

6) 동 시기 문화인물 박원관의 운에산방의 모습을 안민영의 『금옥총부』를 통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 발견된 박원 정현석의 친필 행초 서간(年: 1860) : 임형택 선생 제공

독립운동가 최 양 옥(崔養玉)지사

(1893. 12. 5 ~ 1983. 5. 3)



박 순 업 / 횡성초등학교 교장

지사는 구한말 나라의 안팎이 어수선하여 국운이 기울던 1893년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부친 최재건 모친 진주강씨 사이에서 4남 2녀 중 맏으로 태어났다. 유년시절 화전리에서 자란 그는 신학문에 눈을 뜬 부친의 교육열에 힘 입어 1913년 4월 원주보통학교에 입학 1917년 졸업하였으며 청운의 뜻을 품고 그 해 3월 서울 중동중학교에 진학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과 항일사상이 투철한 그는 학생의 신분으로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으며 그 후 학교를 중퇴 고향인 횡성에서 동지를 규합한 뒤 천도교인들과 합세하여 횡성 4·1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국내외에서 광복이 될 때까지 30여 년 간 가시밭길 독립운동의 길을 걷는 운명적 계기가 되었다.

망거미가 깔려도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그칠 줄을 모르고 열기가 더해 갈 때 일본 헌병은 만세운동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횡성 장날 수천 명 군중이 참여했던 만세운동은 다섯 명이 일본 헌병이 쏜 총에 맞아 순국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체포되어 현장에서 또는 감옥에서 고문 등 고초를 겪은 인사가 적지 않았다.

피범벅의 이수라장이 된 가운데 지사도 현 횡성군청 옆 느티나무 밑에 죽은 척 쓰러져 있다가 어둠을 이용 안흥면 상안리 처가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잠복한 일경에 체포되어 압송도중 횡성읍 추동리에서 수갑을 찬 채 탈출에 성공, 친구의 집을 찾아 몸을 숨겨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친구의 아버지는 '옛날 같으면 3대가 멸족하는 역적일세' 하며 냉정히 거절하여 비참한 심경이었다는 지사는 혈안이 된 일경의 추격을 피하여 갖은 고생을 겪다 상경하게 되었다. 지사는 횡성 만세운동에 깊숙이 관련되었음에도 훗날 횡성 사람들에게는 그의 애국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횡성 만세 현장에서 탈출하여 당시 수형이나 재판 받은 기록의 흔적도 없었으며 증언 해 줄 함께 했던 동지들

도 이미 세상을 다 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횡성이 배출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항일 애국지사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애국 동지들의 도움으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 그곳에서 이동령, 박은식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였다. 표면상 만주농림주식회사를 창립하던 신태영을 1920년 7월 서울에서 만나 신태영, 노형규 등과 부한청년단(扶韓靑年團)을 조직, 대동단원 전협과 연락하면서 농림주식회사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 전남에서 많은 군자금을 모집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다.

위급시 일경에 대항하기 위해 권총을 휴대하고 신태영, 노기준과 함께 전남 담양군, 곡성군에서 군자금 모집에 진력하다 동년 11월 5일 자동차를 타고 광주로 가던 도중 노기준과 함께 일경에 체포되어 갇은 고문 끝에 1921년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연도를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26년 출옥하였다.

출감 후 집에 오니 부친은 4개월 전 별세하셨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가정형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였다. 가족을 수습 돌보며 한달 여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 잘 먹고 살게 해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일경의 회유와, 이제는 독립운동 할 만큼 됐으니 가정 좀 돌보라는 가족의 간곡한 청도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 만주에서 기별이 왔다. 동지가 할 일이 많으니 빨리 오라는 그런 전갈이었다. 번뇌 끝에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치기로 굳은 결심을 한 지사는 가족의 만류를 뒤로하고 다시 만주로 발길을 향하였다.

지사는 중국 산서성 태원부에서 안창남, 신태영, 이용화, 김정연 등 여러 동지와 더불어 독립운동단체인 공명단을 조직 단장에 피선되었다. 1927년 안창남(비행사), 신태영, 김정연(숭실전문학교 재학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하였고 평양 숭덕소학교, 숭실중학교, 광주 숭일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공명단원이 됨), 이선구(평안북도 일인 지사 자동차 운전수로 공명단 국경 비밀 단원이 됨) 등과 북만주에서 독립군 비행사학교를 양성할 목적으로 비행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그 기금 모금과 서울에 공명단 지부를 설치하고자 1929년 4월 서울에 잠입하였다. 일경은 지사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중 양동에 갓 시집간 지사의 딸집에 잠복하였고 안방에 들어오려는 일경을 제지하다 높은 뜰 아래로 밀쳐져 딸은 척추가 부러졌고 그로 인해 1년간 꼼짝못하고 누워있다 숨을 거두었다. 옥중에서 딸의 비보를 접한 지사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술회하였다. 독립운동의 길은 이렇게 험난하였지만 지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에 잠입한 지사는 일제가 주체하는 만국박람회 장소를 폭파하려다 경비가 삼

엄하여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신출귀몰 일제를 괴롭히다 동월 20일 김정연, 이선구와 함께 서울 교외 망우리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가는 일본 우편물 수송차를 습격하여 정차시켰다. 그리고 지사의 일행은 차 속에 실었던 우편물을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뒤 일인의 우편물은 모두 불태워 버리고 동족의 우편물만 남겨 두었다. 이 때 이곳을 지나던 자동차를 모두 정차시킨 뒤 운전자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골 쪽으로 끌고 가서 앉혀놓으니 그 수효가 70명이었다. 이 같이 산 밖으로 정보가 새지 않게 한 후 지사의 일행은 행장을 수습하고 강원도 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뒤 미쳐 이 급보를 받은 일경은 경기, 황해, 강원, 충북, 충남 등 5도의 일경과 일군 제 19사단의 응원을 얻어 천마산을 포위함에 지사의 일행은 이를 상대로 전투를 시작하여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면서 1주야를 악전고투하였으나 탄환이 떨어지고 지쳐 결국 일경에 체포되었다. (지사 일행이 압송되는 장면이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과감한 행동으로 일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후 이들이 체포 될 때의 광경을 당시<동아일보>에서는 ‘동 의거에 주동적 역할을 한 단장 최양옥의 체포에 대하여 백여 경관 포위하고 작일 미명에 돌입 포박 최후까지 대담한 최양옥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그 후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 간의 예심을 거쳐 1929년 9월 20일 지사는 징역10년, 김정연은 9년, 이선구는 6년의 연도를 받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만기 출옥하였다. 이선구는 일제가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며 고문 후유증이 겹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고 지사는 회고하였다.

애국동지, 천도교인과 규합하여 황성 4.1만세운동을 주도한 지사는 조국이 광복된 훗날 매년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던 황성 3.1공원 느티나무 밑을 찾아 순국한 동지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였다고 하였다. 독립운동 당시의 그 지긋지긋한 형무소! 하지만 무슨 전생의 인연이 있었는지 광복 후에는 서대문 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였고 승진하여 인천형무소장을 역임하다 정년 퇴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2년 3월 1일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지사는 말년에 황성군 갑천면 전촌리에서 독립운동으로 생전에 못한 효를 실천, 조상의 묘소를 돌보며, 때로는 후세 사람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민족혼을 역설하다 1983년 5월 3일 91세를 일기로 격동의 생애를 마치고 전촌리 부모님 묘소 밑에 묻혔다.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일제와 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는

지사는 후세에 남기기 위한 기록이나 자료가 별로 없다. 그것은 오직 항일 그 자체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내 또는 이역 만주에서 독립운동으로 17년 간의 옥살이를 증명하듯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살다 가신 애국지사이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일제의 잔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독립운동에 몸바친 지사의 행적을 조명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오늘을 빛내는 것은 후세를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독립사 (서울, 한국독립사 편찬위원회), 김승학, 김국보 공저
2. 대한민국 독립운동 공훈사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김후경 저
3. 1982년 8월 생전의 지사에 대한 녹취록

Ⅲ. 향토문화 연구문 · 향토사료

- 전설의 황 장군과 황상중의 상관성에 대한 시론
- 회다지 마을 정금리



전설의 황 장군과 황상중의 상관성에 대한 시론

이 영 식 / 황성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위원



1. 머리말
2. 황 장군 전설
3. 소위장군 황순명과 가선대부 황 공
4. 현리 황상중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만큼이나 구전되는 설화가 많다. 그리고 그 많은 설화 중에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머무는 것도 있지만 사료로서 귀중한 것도 있다.¹⁾ 아울러 우리는 수십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민족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사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당시를 겪었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을 겪고, 이를 구술 또는 기록해 놓은 개인의 체험담은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이를 참고하여 역사로 기술한다.

황성군 또한 전승되는 설화가 많은데, 특히 전설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분포를 이루고

1) 설화가 말로 전승된다고 하는 점은 본디 양식이 그러할 뿐이며 기록되어 전승되는 것도 아주 많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사기』의 「열전」에는 많은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몽인의 「어우야담」, 이회평의 「계유야담」, 이원명의 「동야회집」 그리고 「청구야담」 등과 같은 야담집은 편자가 당시까지 구전되던 것은 물론 다른 설화집의 것을 재정리해 놓은 것이다.

있는 전설과 더불어 특정지역에서만 구비전승되는 전설이 있다. 그 예를 몇가지 들자면, '안흥면 안흥 4리 말무덤이'와 '강림면 강림 2리 용말숲'은 '용마와 아기장사'의 전설이 있는 곳이지만, '용마와 아기장사'와 관련된 전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전설은 두 지역에서만 구비전승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선조 태종과 윤곡 원천석에 대한 전설은 강림면 일대에서 전승되는데, 이 전설은 횡성군의 다른 면은 물론 강원도, 나아가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유형의 전설이 전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태종과 원천석'에 대한 이야기는 특정지역, 즉 횡성군 강림면 일대에서만 구비전승되는 전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말미라는 마을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용마가 묻혔다고 해서 사람들은 '말무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용마의 무덤만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용마와 아기장수' 전설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마산리의 '말무덤이'에는 '아기장사'가 아닌 실존했다고 믿어지는 '황 장군'²⁾이라는 특정 인물이 등장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용마전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존했다고 믿어지는 '황 장군'과 상상의 동물인 용마가 결합하여 민중들에 의해서 구비전승된 것에 대하여 일차적 관심을 갖고, 나아가 '말무덤이'에 조성되어 있는 봉분과 석물 그리고 사료(史料)에 전하는 '황상중(黃尙中)'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2. 황 장군 전설

횡성읍 마산리에 있는 '말무덤이'에 대한 전설은 『횡성군지』³⁾와 『횡성의 전설과 설화』⁴⁾에 '용마총 전설'로, 그리고 『횡성의 지명유래』에 '말무덤이'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다.⁵⁾

2) 제보자에 따라서는 '황 장사', '황 장수', '황 장군' 등 그 호칭이 다양하다. 이에 발표자는 글 전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인용한 글을 제외하고는 '황 장군'으로 통일한다.

3) 『횡성군지』, 횡성군, 1986, 1003~1004쪽.

『횡성군지』(증보판), 횡성군, 2001, 1394~1395쪽.

4) 『횡성의 전설과 설화』, 횡성문화원, 1998, 25~27쪽.

5) 이영식,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35쪽.

먼저 '용마총 전설'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1. 고려시대에 황 장사라 불리던 장사가 황성에 살았다.
2. 그는 황소 한 마리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힘이 장사였다.
3.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자 용마와 더불어 무술연마에 충실했다.
4. 활쏘기, 칼쓰기 등 모든 무술을 다 연마하였다.
5. 용마를 시험하기 위하여 화살과 용마 중 누가 빠른가를 시험했다.
6. 용마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화살이 보이지 않은 까닭에 말의 목을 쳐서 죽였다.
7. 그때 화살이 날아왔다.
8. 황 장사는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며 말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9. 황 장사는 장군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활과 칼을 버리고 종적을 감추었다.
10. 이후로 말이 묻힌 마을이라고 하여 '말미', '마산리'라고 한다.

이상은 마산리의 '말무덤이'에 대한 전설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먼저, 사건의 시대적 배경은 고려이며, 주인공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성은 황씨라는 것, 그리고 힘이 장사고 무술 또한 뛰어났다는 것, 용마를 얻었으나 황 장사의 경솔함으로 죽였으며, 그로 인하여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설을 그대로 믿으면 말무덤이에는 '황 장군'의 무덤은 없고 용마의 무덤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자료 1]의 내용과는 달리 '말무덤이'에는 말의 무덤 뿐만 아니라 '황 장군'의 무덤도 같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마산리에 거주하는 '황 장군'의 유일한 후손과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자료 2]

조사자 : 마산리가 왜 마산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황성한 : 그 알고 오셨을 텐데.

조사자 : 아니, 그래도 아시는 게.

6) 황성한(남, 64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말미. (200년 9월 2일 조사) 황성한은 마산리에 생존하는 유일한 황 장군의 후손이라고 한다. 집안의 족보가 있으면 묘의 사연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황성한이 태어나기 전에 화재로 인하여 족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황성한 : 그 말무덤이 요 근네에 있어요. 요 근네에 말무덤이 있는데, 요기가 말미. 마산
리 말미 그렇고.

조사자 : 말무덤이 있어서 마산리라 그랬어요?

황성한 : 그 말무덤이 때문에 그렇지.

조사자 : 그 말무덤이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황성한 : 그거야 황 장군이라고, 화살을, 용마를 얻었는데, 화살을 요렇게 쏘면서 목적
지까지 빨리가면 니가 용마고, 만약에 니가 화살보다 늦으면은 용마가 아니다
이래서. 와서 목적지에 와 보니까, 그 화살이 온데간데 없더라고. 그래가지구
선은 넌 용마가 아니다 하구선 말의 모가지를 치구나니까 그제서 화살이 들어
오드래.

조사자 : 아, 황 장군이라는 분이 성질이 급하셨구나! 조금만 기다려보시지. 그래서 그
말을 여기다 묻은 거라서 말 무덤이?

황성한 : 그래서 이제 그 황 장군이라는 분이 말 모가지를 찢르고 생각해 보니까, 용마
를 죽이고 나니 용마없는 장사가 뭐가 되겠어.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자결한 거지.

조사자 : 그래서 황 장군하고 말, 용마하고 같이 묻은 게 그.

황성한 : 아이, 같이 묻을 수가 없죠. 따로따로 이제 꼭대기 이제 장군 묘지가 있고,
밑에 이제 용마를 묻었지.

조사자 : 그럼 두 개가 있겠네요, 지금?

황성한 : 그럼요.

조사자 : 그럼 그 산을 뭐라고 합니까?

황성한 : 황룡고데이.

조사자 : 그 산 이름이 황룡고테이에요?

황성한 : 네.

조사자 : 황 장군이 집안되신다는 말을?

황성한 : 그 선조지.

조사자 : 몇 대 선조되시는지 아십니까?

황성한 : 족보가 불에 타가지구. 그래서 선조인줄만 알고 금초만 하고 있지.

조사자 : 비석도 있고 그렇습니까?

황성한 : 거 있지.

조사자 : 옛날부터 내려온 비석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황성한 : 아, 옛날부터 그 한 거지.

[자료 1]과 [자료 2]을 서로 비교하면, '황 장사'가 '황 장군'으로 변하였으며, '황 장군'은 실제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황 장군'의 무덤 아래에 딸의 무덤이 있으며, 무덤이 있는 산 이름을 '황릉고데이'라고도 한다는 내용들의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다.

3. 소위장군 황순명과 가선대부 황 공

조선시대의 묘비는 '묘갈(墓碣)'과 '묘표(墓表)'로 세분할 수 있는데, 묘갈은 서(序)와 명(銘)이 있는 것을 정체(正體)로 하는 비문이며, 묘표는 명이 없이 서로만 쓰여지는 비문이다.⁷⁾ 그런데 '말무덤이'에는 총 7기의 봉분과 묘비, 상석, 문인석, 향로석 등 여러 개의 석물이 있다. 따라서 묘비에 새겨진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황 장군'과 용마와 관계에 대하여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먼저 봉분을 비롯한 석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3]

1.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총 7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맨 아래에 있는 묘는 쌍분이다.)
2. 첫 번째에 있는 묘에는 봉분, 비대(碑臺), 상석, 향로석이 있다.(비석은 없다)
3. 두 번째에 있는 묘에는 봉분만 있다. 현재 산주(山主)인 김 씨 집안의 묘라고 한다.(황성한의 증언)
4. 세 번째에 있는 묘에는 봉분과 더불어 깨진 비석이 비대 위에 얹혀있으며, 상석, 향

6) 황성한(남, 64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말미, (200년 9월 2일 조사) 황성한은 마산리에 생존하는 유일한 황 장군의 후손이라고 한다. 집안의 족보가 있으면 묘의 사연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황성한이 태어나기 전에 화재로 인하여 족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7) 김우림, 「용인지역 분묘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月蒙文化研究』제6호, 용인대학교 박물관·전통문화연구소, 2001, 12쪽.

8) 후손인 황성한은 장군석(무인석)으로 알고 있으나, 머리 모양이나 옷의 형태로 볼 때 문인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로석 그리고 문인석이 좌우로 있다.⁹⁾ 묘비의 전면에는 “(無)昭威將軍黃順命之墓(우) □鄭氏之□(좌)”¹⁰⁾, 후면에는 “長子(義)成 次子(義)建 長孫世柱 世(庭)世昌 次孫世(徹)(우) 丙申三月日立(좌)”이라고 세로로 새겨져 있다.

5. 네 번째에 있는 묘에는 봉분만 있고 봉분 주위에 50개의 돌이 박혀있으며, (지표에 나와 있는 돌의 수) 봉분이 다른 것보다 크다. 용마가 묻혀있는 무덤이라고 한다.(황성한의 증언)
6. 다섯 번째에 있는 묘에는 봉분, 비대, 상석, 향로석, 그리고 두 조각으로 깨진 비석이 상석 옆 바닥에 놓여져 있다. 묘비의 전면에는 “嘉善大夫黃公之墓(우) 貞夫人江陵崔氏府左(좌), 후면에는 “陰記(우) 康(熙)三十七(年)戊寅八月日立(좌)”이라고 세로로 새겨져 있다.
7. 여섯 번째에 있는 묘는 쌍분으로 봉분만 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묘갈’과 ‘묘표’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자료 3]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에 있는 묘비는 묘표라 할 수 있다.¹⁰⁾ 세 번째 묘비 전면에 새겨진 “(無)昭威將軍黃順命之墓(우) □鄭氏之□(좌)”와 후면에 새겨진 “長子(義)成 次子(義)建 長孫世柱 世(庭)世昌 次孫世(徹)(우) 丙申三月日立(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무덤의 주인은 ‘소위장군 황순명’이라는 것, 그리고 병신년 3월에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석의 윗부분이 없는 까닭에 거기에 새겨져 있었을 글의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소위 장군이 현직이었는지, 아니면 추증직(追贈職)이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다섯 번째 묘비 전면에 새겨진 “嘉善大夫黃公之墓(우) 貞夫人江陵崔氏府左(좌)와 후면에 새겨진 “陰記(우) 康(熙)三十(八年)戊寅八月日立(좌)”에서 무덤의 주인은 ‘가선대부 황 공’이며, 1698년에 비문을 새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순명의 묘비에 새겨진 ‘병신’은 1656년, 1596년 또는 그 이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조선시대의 여성은 남편의 직위에 따르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9) (無): 무자로 추측되나 확실하지 않음을 뜻하며, (우) 또는 (좌); 비석의 우측과 좌측을 뜻한다. ?; 글은 새겨져 있으나 판독할 수 없는 경우이다.

10) 묘갈의 경우 망인의 공적 및 사물의 내력을 넋 자(字)를 한 구(句)로 하여 운(韻)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묘갈이 신도비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김우림, 앞의 글, 13~14쪽 참조)

11) 묘를 조성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임을 생각할 때, 위에 있는 묘의 조성연대가 더 오래 되었다는 생각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황 공은 황순명의 아들 또는 그 손이 될 것이다.

‘숙부인(淑夫人)’ 등과 같은 봉작을 부여 받으며,¹²⁾ 사망시에는 그 칭호와 더불어 본관 그리고 성씨만을 비문에 새긴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비문에 현직(現職)이든 중직(贈職)이든 그 직책과 더불어 성과 이름을 함께 새기는 것이 원칙이다.¹³⁾ 그런데 ‘말무덤이’의 비문에는 가선대부보다 낮은 계급인 소위장군 황순명의 경우 이름을 밝혔음에도 가선대부 황 공의 이름이 없는 것이 의문이다.¹⁴⁾

지금까지는 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석물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견된다. 이에 각 석물의 크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⁵⁾

(첫 번째 봉분에 있는 석물)

종류	가로	세로	높이	깊이
상석	104	62	27	
향로석	27	27	24	
비대틀	64	42	묻혀있음	
비대속	38	16		9

(세 번째 봉분에 있는 석물)

종류	가로	세로	높이	깊이	비고
상석	107	67	17.5		
향로석	26	20	23		
비대틀	76	43	묻혀있음		
비대속	40	16		11	
비신(碑身)	35	13.5	60-65		깨져있음
문인석	26(좌) 25(우)	16.17(좌우, 앞뒤)좌 15.16(좌우, 앞뒤)우	76(좌) 73(우)		가로는 깎면, 세로는 머리기준

12) 남편이 추증직(追贈職)의 경우라도 거기에 맞는 칭호를 부인에게 사용하는데, 다만 칭호 앞에 증(贈)을 추가로 붙인다.

13)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인지방에 산재해 있는 묘비에 새겨진 비문의 내용을 추려서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편이상 부인들의 이름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한다. 먼저 이예견의 경우는 “朝鮮 嘉善大夫人司諫 贈左贊成李公禮堅之墓”(1763년), 정보의 경우 “有名朝鮮司憲府監察 贈吏曹參議鄭公保墓”(1731년), 정명선의 경우 “贈戶曹判書鄭公明善之墓”(1660), 유형원의 경우 “有名朝鮮國進士 贈執義兼進善備溪 柳先生聲遠之墓”(1768), 이후의 경우 “贈戶曹參判李公?之墓” 등과 같이 성과 더불어 이름을 밝히고 있다.(이상은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의 분묘문화』, 용인시사편찬위원회·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1.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황 공의 비문은 이들의 격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가선대부’는 동반(문반)의 중2품에 해당되는 품계이며, 소위장군 ‘은 서반(무반)의 정4품에 해당되는 품계이다.

15) 단위는 cm이며, 땅에 묻혀있는 석물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다.

(다섯 번째 봉분에 있는 석물)

종류	가로	세로	높이	깊이	비고
상석	98	65	28		
향로석	22(앞), 24(뒤)	24	29		
비대틀	62(앞), 58(뒤)	41	문혀있음		
비대속	33	17		10	
비신(碑身)	39	14	94		중간 부분 깨졌음

먼저 위의 표에서 다섯 번째 봉분에 있는 비신과 비대의 크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신을 끼우는 비대 속의 크기가 가로의 경우, 비신은 39cm이지만 비대 속은 33cm로 6cm의 차이가 있다. 아울러 다섯 번째에 있는 묘비가 맞는 묘대는 그 속의 크기로 볼 때 세 번째 봉분에 있는 묘대만이 비신을 끼울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의 봉분에 있는 비신이 세 번째 봉분에 있던 것이라면, 세 번째 봉분에 있는 비신이 35cm이므로 첫 번째 봉분에 있는 비대에만 끼울 수 있다. 이에 비신과 비대의 크기만을 고려한다면 다섯 번째 봉분에 있는 묘비의 주인인 황 공은 세 번째 봉분으로, 세 번째 봉분에 있는 묘비의 주인인 황순명은 첫 번째 봉분으로 자리를 옮겨야 맞는다. 따라서 현재 놓여있는 상태로라면 묘주와 묘비에 새겨진 인물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묘비의 인물과 묘주는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¹⁶⁾

사정이 이와 같아서 [자료 2]의 증언처럼 네 번째 봉분이 용마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의 묘주는 가선대부 황 공이 되므로, 황 공이 전설의 황 장군이 된다. 그런데 황 공은 추정직도 아닌 문반의 가선대부라는 종2품에 해당하는 품계의 인물이므로 전설의 황 장군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애당초 ‘황 장군’으로 생각되었던 소위장군 황석명의 비신을 끼울 수 있는 비대는 첫 번째 봉분이다. 따라서 그 묘주는 황석명이 되며, 앞에 있는 봉분, 즉 김 씨의 묘가 용마의 무덤이 되는 꼴이 된다.¹⁷⁾

16) 황성한은 예전에 묘비가 흩어져 있어서 적당한 곳에 놓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17) [자료 2]에서 황 장군의 묘는 용마의 무덤 위에 있다고 하였다.

4. 현리 황상중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료 1]과 [자료 2] 그리고 [자료 3]의 석물에 근거하여 황 장군과 용마의 정체를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발표자는 전설과 석물의 내용과 다른 역사적 사료를 통하여 추론을 하고자 한다.

[자료 4]

태종 14년 9월 3일(계묘)

강원도에서 강무(講武)하였다. (중간 생략;발표자) 군기감에 소속한 잡색 군정, 시위군의 대장·대부, 경기도 당령 선군·재인·화적을 징발하여 구군으로 충당하였는데, 모두 5천 명이었다.¹⁸⁾

태종 14년 9월 7일(정미)

횡천 사기소에 머물렀다. 수중한 신하와 군사들에게 5일간의 식량을 주라고 명하였다. (이하 생략;발표자)

태종 14년 9월 9일(기유)

여가가 횡천 화동에 이르렀다. (이하 생략;발표자)

태종 14년 9월 13일(계축)

돌아와 횡천 실미원에 머물렀다. 임금이 말이 뛰는 바람에 떨어졌으나, 다치는 데 이르지 않았다.

태종 14년 9월 13일(계축)

구군(驅軍)을 풀어 주었으니,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태종 14년 9월 14일(갑인)

원주 각립사에 거둥하였으니, 잠저 때 옛날 공부하던 곳이었다. (이하 생략;발표자)

18) 『국역 조선왕조실록』CD-ROM, 서울시스템. 이하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내용은 모두 이것을 참고했다.

태종 14년 10월 8일(무인)

횡천 현감 정면(鄭綿)이 파면되었다. 임금이 횡천에 거동하였을 적에 횡천 현리(橫川縣吏) 황상중(黃尙中)이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쏜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도록 명하였었다. 정면이 황상중의 하직을 고(告)하지 않은 것에 노하여 그 어미를 가두었으므로, 불공죄(不恭罪)에 연좌되어 의금부에 내렸다가 드디어 파직하였다.

이상의 [자료 4]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1. 태종이 횡성에서 강무(講武)를 하였는데,¹⁹⁾ 당시 동원된 인원은 5천명이다.
2. 태종은 횡성에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황상중을 불렀다.
3. 황상중의 어미를 옥에 가둔 횡성 현감 정면은 불공죄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여기서 발표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9월 3일(계묘)과 10월 8일(무인)의 기록이다. 당시 동원된 인원이 5천명이나 되었음에도 현리 즉, 현의 아전에 지나지 않은 황상중이 특별히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횡성에서는 뛰어난 무인이었으며, 그 소문은 임금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런 황상중이 자신의 상관인 현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임금에게 달려갔으니, 현감은 꽤 씌하여 그의 어미를 대신 옥에 가두었을 것이다. 황상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고 억울한 일이며, 이러한 사정은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어 현감에게 그 죄를 묻은 것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임금과 같이 사냥을 한 황상중은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웅이며, 부러움의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익히 소문을 들은 민중들은 황상중의 무예 솜씨를 보지 않고도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에 대하여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그로 인하여 현감이 파면되는 일까지 벌어지니 민중들에게 있어서 황상중은 대단한 인물인 것이다. 나아가 민중들은 황상중을 장군감으로 주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한낱 현리로 머물 수 밖에 없는 그에게 민중들은 장군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어 현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로 전승

19) 왕이 사냥하는 것을 강무라고 한다. 그런데 강무는 장수와 군사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주장(正堂)하여 사냥을 하며, 겸하여 무예를 연습하던 일이다. 아울러 횡성은 강원도의 회양, 평강, 김화 그리고 경기도의 광주, 황해도의 해주와 더불어 조선시대 때 유명한 강무장(講武場)으로 꼽히던 곳이다. (韓?勳 외, 『譯註 經國大典』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삼판), 384쪽, 418쪽, 624쪽 참조)

시킨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말무덤이의 황순명과 황 공은 '소위장군과 가선대부'로 정4품과 종2품의 품계까지 올랐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름이나 명성이 회자 되던 인물은 아니다. 따라서 민중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평범한 소위장군과 가선대부일 뿐이다. 그런데 황상중의 경우는 일개 현의 아전이면서도 임금의 부름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즉, [자료 1]의 내용에서처럼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공을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그 동안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황성에 와서 강무를 함에 따라 그 일에 필요한 인물 황상중을 불렀으니, 그는 나라님 곧 나라의 명을 받아 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자료 1]의 전설과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6권 횡성현(橫成縣) 성씨(姓氏)조²⁰⁾와 『세종실록지리지』 횡성현의 내용을 보면 '토성(土姓)이 5이니 추(秋) · 고(高) · 조(趙) · 윤(尹) · 황(黃)'이라고 하였던 바, 시대적으로 볼 때 황상중도 여기에 포함되는 성씨라고 이해된다. 아울러 마산리의 말무덤이에 조성된 묘주들의 본(本)은 평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언제부터 뿌리를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산리에 평해 황 씨 봉분이 26기 정도 있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²¹⁾ 그들이 마산리에서 거주한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황 공의 묘비에는 중국 연호와 육갑(六甲)을 함께 병기하는 치밀함을 보였음에도 비문에 새겨 넣어야 할 이름을 빠트린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름을 새기지 못한 사연, 즉 묘주가 '가선대부'라는 신분과 일치하지 않은 이름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선대부'라는 칭호는 후손들이 임의로 새긴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으며, 그렇게까지 높여야 했을까? 발표자는 여기서 황상중과 연관시키고자 한다. 황상중은 일개 현의 아전임에 불과함에도 임금의 부름을 받고 5천 명의 군사가 있는 강무장에 나아갔다. 이러한 임금의 부름은 현리(縣吏)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개인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인 것이다. 그런데 황상중이 강무장에서 활약했던 것만큼 나라에서는 사후에 그에게 합당한 칭호를 내려주지 않았다. 이에 후손들은 구체적인 벼슬명을 명시하지 않고 가선대부라는 품계명과 성씨만을 새긴 것으로 추측

20)) 고전간행회, 『신증동국여지승람』, 서경문화사, 1994, 834쪽.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VI(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간행회, 1988, 62쪽.

21)) 황성한의 증언이다. 황성한 자신은 7대조까지만 묘소를 알고 그 이상은 누구의 묘인지 모른다고 한다. 아울러 말무덤이에 있는 황 공과 황순명의 묘소도 선조의 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조만 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광역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11기를 화장하였으며, 현재 15기가 마산리에 있다고 한다.

된다. 더불어 황순명의 비석에는 자손들의 이름을 명시했지만, 황 공의 비석에는 자손들의 이름이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가선대부 황 공과 황상중은 동일 인물로 보고자 한다.

5. 맺음말

현실적으로 용마는 존재할 수 없는 상상의 동물이다. 따라서 전설의 용마는 매우 잘달리는 좋은 말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황성의 민중들은 황 장군과 용마를 결합시켜서 구비전승시키고 있다. 이는 황 장군이 그 만큼 장군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아쉬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설은 일정한 민족 또는 지방에서 민중에 의해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전설은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있다. 따라서 전설은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역사에서 전설화했든가 또는 역사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역사가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라면, 전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문학적 상상력이 동원되어 또 다른 역사를 기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러므로 전설의 황 장군과 역사적 인물인 황상중 그리고 가선대부 황 공이 서로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추리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말무덤이’와 ‘황장군’ 그리고 ‘황상중’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시론(試論)이다. 따라서 논의를 펴는 과정에서 무리한 추측을 한 까닭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상기한다. 특히 평해 황씨의 족보를 확인하여 소위장군 황순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아울러 조곡리에 있는 일명 ‘숫을미’라고 지칭되는 고형산 모친의 묘와 ‘말무덤이’의 용마의 무덤은 묘 주위에 돌로 두르고 있는 형태가 너무나 유사하다. 또한 고형산이 1453년에 출생한 것과 황상중이 1414년에 활동한 것을 고려한다면 두 무덤의 조성시기는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두 묘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회다지 마을 정금리

박 관 수

오래 전이다.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으니 족히 40여 년 전은 될 거다. 정월 대보름에는 많은 놀이를 했다. 동네 어른들이 넓은 공터에 모여 농악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마을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쟁과리, 장구, 징을 쳤고 상모를 돌렸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장구를 치는 장구잽이가 제일 멋있게 보였었다. 등허리를 들썩거리고 머리에 쓴 꼬깔을 까닥이며 이쪽저쪽을 설새없이 왔다갔다 하는 장구채를 잡은 손놀림에 정신을 놓았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에게 장구를 칠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소고잽이들은 무슨 재미로 농악을 할까 생각하며 내가 농악대에 참여하면 소고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다. 왜 소고가 농악대의 일원일까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남자들이 소리도 나지 않은 소고를 두드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멋쩍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월 보름날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 가면 동네 한가운데에 판을 차리고 놀이를 한다. 전날 밤에는 논 한가운데에 달집을 세우고 불을 지펴 소지를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마당 한가운데에 대나무 가지를 꺾어와 세모틀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 위나 담장 위에 널린 호박 덩굴을 끌어다 쌓아 놓고 불을 지르면 불길이 하늘로 솟으며 불티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올려다 본 기억이 있다. 불티를 따라 올라가는 눈길이 둥그렇게 떠오른 달을 맞이한 기억이 아스라하다. 그리고는 마을 어귀로 나가 깡통에 든 술방울 불을 돌리며 놀았다. 동네 아이들이 여럿 모이게 되면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 술방울 불을 돌리며 다른 동네 어귀를 지나며 무력 시위를 했다. 다른 동네에 다가가갈 때는 긴 나무에 짚을 단단하게 묶어 가지고 간 짚무더기 끝에 불을 붙여 위세를 높이기도 했다. 상대 마을에서 놀던 아이들이 불놀이를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으면 우리 동네가 이긴 것이 되고, 우리들은 기세가 등등해 소리를 지르며 상대 동네를 스쳐 지나간다. 간혹 위세가 대등하면 불이 든 깡통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여러 동네를 한 바퀴 돈 뒤에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잠을 청하기도 했다.

다른 동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금리의 여러 민속놀이도 전승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금리에는 음촌(陰村), 양촌(陽村), 항촌(項村), 어둔마을, 쇠김 등의 자연 부락이 있었다. 그리고 각 마을에는 서낭이 있었고, 지금의 민속관 옆 동산에는 정금리 전체의 큰서낭이 있었다. 이 큰서낭에서는 장승이 썩어 새로 깎아 세울 때는 새로 깎아 만든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결혼시켜 세우는 행사가 있었는데, 80이 넘는 노인네들도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하며 정확한 연희의 방식은 모른다고 한다. 그러니 귀한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장승의 결혼식은 일제 초기에 맥이 단절된 것이다.

그리고 각 마을에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대기(大旗)’와, ‘令’이라고 쓴 가로, 세로 40cm 정도의 ‘영기(令旗)’가 있었는데, 논을 매러 나갈 때는 이 대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치며 논으로 갔다. 그러다 다른 마을의 대기를 만나기라도 하면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위세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을의 대기가 위세가 센 듯한 마을의 대기에 90도로 기를 굽혀 예를 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엉버티면 양쪽 마을 사람들끼리 치고 박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힘보다는 마을의 위세를 중시하는 풍습의 일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한 마을에서 큰 잔치가 벌어져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마을에서 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치며 들어올 때는 마을기를 앞세우고 나아가 서로 기를 숙이며 예를 표하며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놀이는 6.25 사변 이후에 없어졌으니 어언 반세기 전에 사라진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거주 이동이 잦아 자연 마을의 고유성이 파괴되고 위세에 의한 마을간 대결이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해방 뒤에 사라진 놀이 중에 ‘장치기’라고 하기도 하고 ‘꽂치기’라고 하는 놀이도 있었다. 이 놀이는 요즈음의 하키와 비슷한데, 소나무 광술로 주먹만큼의 ‘꽂’이라고 하기도 하고 ‘팽이’라고도 하는 공을 2m 정도의 하키채와 비슷한 막대기로 쳐 상대방 골문에 집어 넣는 경기였다. 골문은 지게 등을 양쪽에 놓아 만들었는데, 그 간격은 2m 정도였다. 이 놀이는 주로 20대 이하의 장가 안 간 청년들이 하였는데, 간혹 다른 동네 아이들과 시합을 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 감자나 고구마를 구어 먹기도 하였다. 개울가에 가서 나무를 모아 불을 지핀 다음 돌을 달군 다음, 돌을 헤치고 감자나 고구마를 그 안에 넣고 덮은 다음 그

위에 물을 뿌려 그 증기로 감자나 고구마를 익혀 먹었다. 이를 ‘상꽃놀이’라 하였다. 아마도 지금 냇가에 나가 그렇게 감자나 고구마를 익혀 먹으면 별미일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아이들에겐 허기를 달래는 수단이면서 하나의 놀이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구리, 멧머구리, 뱀 등을 잡아 구어 먹기도 하면서 놀았다. 또한, 들에 가서는 뽕뽕을 뽑아 먹고 산에 가서는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놀기도 하였다.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잔뜩 들어 있어 언제든지 꺼내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로는 ‘지계상여’도 있었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나무를 하러 갈 때는 모여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지계들을 끼워 이어 상여처럼 만든 다음 상여처럼 메고 가면서, 어떤 아이는 상두꾼이 되어 선소리를 주고 상여를 메고 가는 다른 아이들은 이를 받기도 했다. 나무를 하다가 심심하면 모여 회다지를 하기도 한다. 한 아이가 선소리를 주면 그 소리에 맞추어 나머지 아이들은 회를 다지는 흉내를 내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을 하는 어떤 노인은 그 옛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허기가 나 죽을 판에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들고 뛰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를 하다 나무도 못하고 집에 와서는 부모로부터 혼이 나기도 했다고 한다. 여하튼 이러한 놀이는 일종의 장례 의례의 사전 연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장례의례를 보고 들으면서 모방 유희를 통해 저절로 문화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보름날 놀이로는 ‘망월이’가 있었다. 말대로 달을 맞이하는 것이다. 대보름날 저녁 달을 맞이하기 위해 저릅(삼 껍질을 벗겨낸 삼대)이나 싸리가지를 모아 단단히 묶거나 그 속에 광술을 집어 넣고 묶어서 불을 붙여 달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다. 달을 맞이한 다음에는 달 모양새를 보고 농사점을 치기도 한다. 달이 빨간 빛으로 보이면 그 해에 가뭄이 들 거라고 예상하고, 맑고 하얀 빛으로 보이면 비가 자주 올 거라고 예상한다. 한 편으로 달을 보고 액이 사라지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대체로 “○○생 아무개는 ○○년 ○○일에 소원을 빙니다” 정도를 서두로 말한 다음 자신이나 집안의 기원을 말한다. 이 놀이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50대의 어른들도 참여했다. 조금이라도 먼저 달을 맞이하려고 횃불을 들고 일찍 산을 오르기도 한다. 강통에 솔방울등의 불을 담아 돌리는 것은 6.25 이후에 나왔다.

2,30여 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나면 너도나도 참여하는 분위기였다. 북이라도 어디서 울리는 소리가 나면 흥이 나서, 구경하고 싶어, 무슨 일이 났나 궁금해서 사

람들이 모여 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공식적인 놀이가 있으면, 여인네들은 자발적으로 막걸리를 내오고 국수를 삶아 오기도 했다. 혹 관련자들이 그 놀이에 참여를 안 하면,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웃어른인 영좌에게 혼이 나기도 했다. 놀이에는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뒤따랐던 것이다. 정금리에는 대략 250여 호가 살았는데, 음촌, 양촌, 향촌, 쇠깎, 어둔리 등 다섯 부락에는 각각 농악대가 있었다. 그러니 다른 마을에 비해 호수가 적은 부락의 경우는 가가호호가 농악대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정금리의 다섯 부락이 모여도 농악대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소일거리가 없어 농악으로 흥을 세울 시대는 아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구경해도 재미가 있다.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 서로의 궁금증을 풀 필요가 없이 전화를 들면 서로를 접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도회지로 모두 나간다. 직장을 따라 가야 하니 타지에 가야 하고 도회지에 가야 돈을 벌 기회가 많으니 고향 마을을 떠나야 한다. 정금리에서 20여 년 동안 노인네들이 40여 분이 돌아가셨으니 그 분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기 마련이다. 옛날엔 젊은이들이 하던 일을 노인들끼리 해야 하니 여유로운 시간이 없다. 여자 노인들이더라도 하루 품삯이 3만원 정도이고, 남자 노인들은 5만원 정도이니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려야 하고 손주들 용돈을 마련해야 하는 즐거움에 거울이 되어서야 그나마 설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정금리에서는 20여 년 동안 매해 태풍문화제, 태기문화제,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등에 참가했다. 이런 민속놀이에 참가하기 위해 일 년에 30일 이상은 논밭 일은 하지 않고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 농번기에 대회에 참가하기라도 하면 보통 일이 아니다. 1982년도에 강원도 제1회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농악으로 2등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민속경연대회 참가가 이어져 내려오니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문화전승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마저 흔들리기 일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처음 민속경연대회에 나갈 때만 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음촌의 양두환이 민속단장을 맡고 이종호가 총무를 맡아 음촌의 유학계장인 엄재순과 향촌의 유학계장인 권두희의 협조 아래 농악대의 구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속경연대회 참가 댓가로 얼마간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하더라도, 원만하게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나마 정금리 주민들의 민속 전승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대회 참가를 가능하게 한다.

1984년에는 강원도 대표로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회다지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상여소리는 우영진이 선소리를 주고, 회다지는 그 당시 46살인 양중하(집안 이름은

양중환)가 선소리를 주기로 했는데, 우영진이 갑자기 아픈 관계로 양중화가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의 선소리를 주어 대통령상을 받게 되고, 뒤이어 그는 강원도 제4호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양중화가 소리를 잘 하기도 하였지만, 횡성의 회다지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얼마나 달랐던지 그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심사위원석에서 내려와 횡성에서는 진짜로 그런 식으로 회다지를 하나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횡성 회다지는 가사보다는 그 동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달리 다른 편이다. 횡성의 바로 옆 지역인 양평, 평창, 영월과도 서로 다르다. 민요는 지역성을 지니기에 지역별로 가사나 동작이 다르기 마련이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 회다지는 그 전승지역이 제한적이다. 어러리의 경우는 그 전승지역이 강원도 전역이다. 강원도를 넘어 충청북도, 경기도까지 주변 전승지역이다. 논매는소리인 '단허리'나 '상사데야'도 그 전승지역이 넓은 편이다. 회다지가 다른 민요에 비해 그 전승지역이 제한적인 것은 회다지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회다지는 어러리처럼 유희요나 노동요가 아니다. 그리고 '단허리'나 '상사데야'처럼 노동요도 아니다. 회다지는 노동요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의식요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기 때문에 그 행위가 쉽게 변할 수 없다. 회를 다지면서 발이 안 맞으면 회 다지는 행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을뿐더러 횃소리와 어울리지도 않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횃소리를 주게 될 때 회 다지는 사람들이 소리가 맞지 않는다면 회를 다지지 않는 경우를 전승현장에서 가끔 목격한다. 청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그 동네 사람이 횃소리를 주면 회다지가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집단적인 의식의 경우는 과거로부터 행해지는 대로 행해지게 마련이다. 한두 사람의 이탈은 용인되지 않는다. 옆마을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식대로 의식이 행해진다.

횡성군의 회다지가 다른 군의 회다지와 다름은 물론이다. 여주군의 경우는 8명이 선소리꾼의 북장단에 맞추어 광중 안에 서서 회를 다지고, 평창군의 경우는 광중 안에서 6명이 선소리에 맞추어 횃대를 들고 1번만 서서 다지고, 봉분을 쌓아가면서 6명 이상 횃대를 들고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여러 번 봉분을 다지고, 강릉시의 경우는 광중 안에서는 횃소리 없이 서너 명이 흙을 대충 밟은 다음 봉분을 쌓으면서 횃소리를 하면서 봉분을 여러 번 다지는데, 봉분 주위를 여러 명이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2줄을 만들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며 봉분을 다진다. 영월군에서는 광중에서 회를 다지는데, 횡성군에서처럼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없고, 매패가 끝날 때마다 선소리꾼이 '오조발에 새들었네'라고 외치면 횃꾼들이 '휘이'라고 외치면서 회다지를 끝낸다. 영월군 중에서도 영월읍 거운리

에서는 마지막 쾌에서는 횃꾼들은 물론 옆에 있던 횃꾼 이외의 사람들도 광이 있는 곳에 동그렇게 모여 서서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오오 신열이 났네’라는 후렴을 반복하면서 회를 다진다. 횡성군의 회다지 동작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데, 서원면 석화리나 창촌리에서는 매 쾌가 끝날 때마다 횃꾼들이 ‘어흥’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도 유별나다. 매 쾌의 마지막에 선소리꾼이 ‘어흥’이라고 하면, 횃꾼들도 따라 ‘어흥’ 하며 회다지를 끝낸다.

이렇게 지역별로 회다지 동작이 차이가 있지만, 횡성군의 회다지 동작은 그 중 독특하다. 광중에는 6명의 횃꾼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선소리꾼의 느린 소리에 맞추어 옆 사람끼리 등을 마주대며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며 1바퀴를 돈다.(청회) 회를 다지는 발 디딤을 보면 광중 구석구석을 밟는다. 그러면서 준비운동을 겸하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선소리가 빨라지면서 ‘두발지기’를 하며 1바퀴 또 돈다.(연회) 그런 다음 ‘세발지기’는 돌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발을 굴러 이쪽저쪽 힘차게 다진다.(방회) 회다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두발지기도 잘 맞추지 못하지만, 이 세발지기는 몇 번 연습한 것으로는 쉽다. 그리고 힘이 들어 얼마큼 하다가는 횃꾼들이 선소리꾼에게 ‘이제 고만해’라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장례의식에서 선소리 장단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다양한 동작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신비스럽기도 하다.(양중하에 의하면, 청회, 연회, 방회라는 단어는 원래 정금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종호가 서울에 가서 누군가에게 이를 듣고 와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라고 한다.)

이런 회다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구슬픈 상여소리가 이어지고 상여 뒤를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는 후손들의 모습에서 장례의 경건함을 느끼다 회다지에서는 돌연 흥겨움마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느린소리로 선소리를 하다 빠른소리로 바뀔 때와 함께 이루어지는 동작에서도 흥을 느낄 수 있다. 선소리 가사에는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많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가사들에서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먼 데손님은 듣기가 좋게 / 가차운사람은 보기가 좋게.” 선소리꾼은 먼 곳에서 온 손님들(문상객)의 귀가 즐겁도록 소리를 잘 해야 한다. 소리를 잘 해 나쁠 거는 없지만, 그 소리가 망자나 상주를 향하지 않고 있다. 그 소리는 문상객을 향하고 있고 게다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횃꾼들은 문상객들이 보기에 좋게 동작을 해야 한다는 말도 망자의 시신이 들게, 여우, 너구리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는 회다지의 근본 취지에서는 벗어난 말이다. 그러니 그러한 가사는 문상객들을 위해 회다

지 소리나 동작 자체의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선소리꾼이 그런 가사를 부른다고 해서 횃꾼들이 회를 잘 다지지 않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사는 상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엇나가게 하는 데 일조를 함에는 틀림없다.

회다지에서는 횃꾼들이 장난을 하기도 한다. 횃꾼들은 광증을 다 다지고 봉분을 쌓기 전에 망자의 만사위를 연춧대에 싣는다. 연춧대 여러 개를 가운데를 묶어 세모 모양의 꼭지가 맞닿은 모양으로 세운 다음 그 묶어 놓은 가운데 위에 만사위를 올려 놓는 것이다. 이를 '사위를 달다' 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 밑에 청수아리(어린 소나무 생가지)를 꺾어 불을 놓아 매운 연기를 그에게 쏘이는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술이나 음식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상주 집안에서 음식을 내오기도 한다. 일종의 장난인 것이다. 회다지에서는 이런 정도의 장난이 허용된 것이다.

이러한 장난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회다지에서의 장난은 너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은 거 같다. 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매 때가 끝날 때마다 선소리꾼은 상주나 상주 친인척을 부른다. 돈을 걸라는 것이다. 망자의 노자돈이라고 말하기는 한다. 어떤 경우 돈이 안 걸리면 3일장을 하지 않고 5일장을 하겠다고 엉버틴다. 장난이기는 하지만, 심하다. 상주가 기분이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불안하기도 하다. 과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2,30년 전부터 있어 온 풍습이라고 한다. 양중하는 이러한 것은 회다지가 장례 의식이란 점을 고려하면 좀 지나친 장난이라고 했다.

정금리 대보름 행사인 '태기문화제'는 올해로 17년째 지속되어 왔으니 이제는 연륜이 깊은 편이다. 행사를 알리며 입장하는 농악도 옛것을 이어오고 있다. 상쇠의 경우 이중옥의 쇠를 이중환, 윤양선이 이어받고, 그들로부터 현 민속단장인 이계범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계범으로부터는 조명화, 손상남, 김동근 등 젊은이들이 배우고 있다.

보름날 행하는 놀이를 보면, 윷놀이, 장기, 갇신삼기, 목침뺏기, 투호, 줄다리기, 널뛰기 등이 있다. 각 놀이의 우승자에게는 상금도 주어진다. 한쪽에서는 인절미를 만들어 구경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점심 식사를 무료로 주기도 한다. 작년부터는 마을 행사에서 군 단위 행사로 확대되어서인지 제법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놀이를 즐긴다. 예전에는 많은 돈을 들여 타지역에서 뽕짝 가수를 초빙하여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금년에는 이를 하지 않았다. 뽕짝 가수들의 노래를 주민들이 즐기기 때문에 그들을 초빙한 것이기는 했겠지만, 문화제의 성격으로 보아 이들의 초빙을 지양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제17회 태기문화제 결산 보고서를 보면, 타지의 국악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한 것을

마을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유명 국악인이나 단체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타지 국악인의 초청 공연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은 아니다. 행사 집행부가 빠듯한 예산을 나누어 아끼는 상황에서 큰돈이 외부로 빠져나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행사 참가자들에게 상금을 더 많이 준다든지, 음식을 더 많이 대접한다든지 하여 행사 자체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그렇더라도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된다면 외부 국악인 초청도 무난하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보름날 행사 가운데 행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어러리 경창대회와 회다지 경연대회다. 회다지 하면 횡성이다 할 정도로 지명도가 있기에 회다지 경연대회는 충분히 있을 법한 행사다. 그렇지만 어러리 경창대회는 좀 생소한 면이 있다. 우선 어러리라는 명칭이 그렇다. 횡성 주민들도 나이 많은 어른들 아니면 어러리라는 단어에 그리 익숙하지는 않다. 대부분 아라리라고 하거나 아리랑이라고 한다. 이런 어러리 대회를 착안했다는 자체가 고향 문화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자부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일일 것이다. 사실 어러리라는 명칭은 아라리라는 명칭보다 그 사용의 지역적 범위가 넓다. 어러리라는 명칭은 횡성은 물론, 영월, 평창, 홍천, 인제, 춘천, 양구 등에서 사용한다. 아라리라는 말을 물론 쓰기도 하지만, 어러리라는 말은 영동이나 정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어러리는 아라리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우선 후렴에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 얼었다 녹아지니는 봄철이로구나”라는 가사가 있다. 이러한 후렴은 영동이나 정선 지방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구별되는 점이 있다. 아라리의 소리는 늘어지고 꾸밈이 많은 반면, 어러리는 그 소리가 높고 딱딱 끊어지는 면이 있다. 시골의 나이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러한 어러리만의 특색을 현 정금리 민속단장인 이계범과 고문인 양중하가 포착한 것이다. 그들의 고향 문화에 대한 사랑 및 자부심의 발로로 어러리 경창대회가 작년부터 대보름 행사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태기문화제는 주민들의 완전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않는다. 자발적 참여가 문화 전승의 기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현실적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더라도 정금리 주민들은 각종 민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동안 유형, 무형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자긍심을 키웠고, 그러한 자긍심이 없이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금리에서의 문화의 전승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듯싶다. 자발적으로 모여 옛날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니다. 옛날처럼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농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습에 참여할 인적 자원은 점점 부족해 진다. 옆 마을인 하궁리나 산전리에서 놀이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셔와야 한다. 사람들이 모여 연습할 시간은 어떻게든지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 하루 일 나가면 적어도 몇 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냥 문화에 대한 자긍심만을 고취함으로써 행사에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화 전승이 악조건 하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적인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문화 전승을 이러한 방향설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문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즐기는 것이다. 전통문화를 주민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스로 즐기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문화 행사란 유리창 속에 갇혀 있는 박제 신세나 마찬가지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전승은 빠르면 10년 이내에 완전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남녀노소 누구나 부를 줄 알았던 어러리마저도 이제는 60살 정도 되는 노인들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러니 전승의 단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제도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그 여유의 즐거움을 전통문화 속에서 찾을 때 문화의 전승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Ⅳ. 학술세미나

- 태기산성의 유적현황과 역사적 고찰
- 태기산 주변의 구비전승
- 태기산성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화 방안



횡성 태기산성의 유적현황과 역사적 고찰

유 재 춘 /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상임연구원

1. 머리말
2. 입지조건
3. 유적현황
4. 태기산성의 성격
5. 맺음말

I. 머리말

城郭은 前近代時代의 國家防備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防備施設物이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農耕·定着生活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기 집단을 外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城柵을 발전시켰으며,¹⁾ 삼국시대의 오랜 전쟁과 후삼국의 패권 다툼, 고려시대의 여러 차례 外侵으로 인하여 수많은 城이 전국 각지에 築造되었다.

통일신라기의 성곽은 고대의 축성기법이 종합된 시기이며 통일에 따른 통치영역의 변화에 따라 방어시설이 재편성되었다. 특히 당시 통일신라의 입장에서는 唐과의 관계가 방어시설의 정비에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빚어진 唐과의 갈

1) 기록으로 보더라도 일찍이 사마천의《史記》朝鮮傳에 王儉城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고조선 시대에 상당히 발달한 성곽이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실제 성곽의 축조는 그보다 이른 부족국가시대에도 존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또《三國志》魏書 東夷傳에도 馬韓에는 城柵, 弁辰에는 城郭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등과 전쟁으로 신라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에 대비한 방어시설을 정비하게 되었다. 安北河의 관성·철관성, 서원경성, 남원성, 송악성, 우잠성을 비롯하여 개성과 한산주 관내에 여러 지역에 축성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721년 아슬라도의 장정을 징발하여 北境에 장성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신라기의 주요 관방시설은 일단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731년 일본 병선 300척이 동해 연변을 침입한 사건을 볼 때, 연해 지방에 대한 방어시설의 정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735년 唐은 신라의 溟江 이남 영유를 공식 승인함으로써 唐의 긴장은 훨씬 완화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신라가 추가적인 방어시설의 구축을 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라는 왕경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방통치의 중심지인 소경과 州, 郡, 縣에는 治所를 예위한 읍성이 영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경과 州는 지방통치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군사요충지였기 때문에 대부분 치소를 둘러싼 매우 견고한 성곽 시설이 구축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보다 하위 행정조직인 모든 郡·縣에 치소성이 구축되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으며 군·현의 치소성이 평지읍성이었는지 아니면 산성이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통일신라 말기에 각 지역이 반독립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견훤·궁예가 새로운 정치세력화 되어 후삼국으로 분열되면서 또다시 많은 성곽이 수축되게 되었다.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 통일되면서 방어시설은 다시 고려의 수도 개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고려가 건국되고 통일전쟁을 수행해 나가던 시기는 중원 지역에서는 唐宋 교체기로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한 시기이며, 특히 거란이 점차 강성해져 고려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가던 시기였다. 고려가 건국초기부터 평양성 축조를 비롯하여 북계지역과 서북로 거점지역의 방어시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란과의 전쟁과 여진의 침략이 장기화되면서 고려의 방어시설 구축은 대체로 개성을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에 집중되게 되었고, 덕종 2년(1033) 완성된 압록강에서 和州의 동해안에 이르기 까지 北境關防城(長城)은 실로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통일신라기~고려초에 자라잡은 성곽들은 몽고 침입과 함께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으며 농성전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성곽은 새로운 입보치가 모색되어 이전되는 등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편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중원에서의 위협보다는 전국 각지에 출몰하는 왜구에 대한 방어시설 구축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성곽은 국가방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때문에 築城은 실제 가장 중요한 國策役事였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3,000여개의 성터가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성터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의 경우 북한의 강원도 지역을 제외하고 17개(강원도는 18개 市·郡으로 되어 있으나 태백시에서는 확인된 성터가 없음) 市·郡에서 모두 94개소의 성터가 알려져 있다. 횡성지역에는 태기산성(덕고산성)을 비롯하여 갈풍리산성, 운무산성 등 3개의 城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태기산성은 태기왕 전설과 함께 횡성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산성이다.

강원지역의 성곽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논문으로서 「강릉지역의 고대 산성」²⁾과 「강원도 城址分布와 山勢考」³⁾가 있으나 고고·역사분야에서 연구되는 성곽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논문이다. 또 전적으로 성곽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穆祖와 紅犀帶考」에서 頭陀山城에 대한 조사내용이 언급되어 있다.⁴⁾

강원지역의 성곽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경부터이다. 원주지역의 대표적인 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산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⁵⁾ 「朝鮮時代 江原地域의 築城 研究」, 「朝鮮前期 江原地域의 城郭 研究」, 「驛에 대한 築城과 기능에 대하여—三陟 沃原驛城을 중심으로—」, 「북한강 유역의 전란과 성곽 연구」, 「麗末鮮初 東界地域의 변화와 治所城의 移轉 改築에 대하여」, 「강릉지역의 성곽 연구」, 「강원지역 관방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중세 산성의 특징적 유형과 변천」 등 강원도내 성곽유적과 관련된 여러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⁶⁾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강원지역내에 소재하

2) 李俊善, 『지리학』 제25호, 1982.

3) 玉漢錫, 『江原文化研究』 7집, 江原文化研究所, 1987.

4) 元永煥, 『江原史學』 제9집, 江原史學會, 1995.

5) 유재춘, 「원주 영원산성고」, 『鄉土史研究』 第9輯,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7.

6) 유재춘, 「원주 영원산성고」, 『鄉土史研究』 第9輯,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7.

유재춘, 「朝鮮時代 江原地域의 築城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第2輯,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유재춘, 「朝鮮前期 江原地域의 城郭 研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8.

유재춘, 「북한강 유역의 전란과 성곽 연구」, 『江原文化史研究』 제4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9.

유재춘, 「麗末鮮初 東界地域의 변화와 治所城의 移轉 改築에 대하여」, 『朝鮮時代史學報』 제15호, 조선시대사학회, 2000.

김홍술, 「강릉지역의 성곽연구」, 관동대 석사논문, 2000.

유재춘, 「강원지역 관방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학예지』 제8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1.

유재춘, 「中世 山城의 特徵의 類型과 變遷」, 『江原史學』 제17·18합집,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2.

는 성곽유적의 실태와 개략적인 유적현황이 파악될 수 있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성곽유적의 경우는 당시 우리나라 축성동향과 관련하여 상세히 소개되었다.

상기의 연구 논문외에는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성격을 갖는 보고서나 조사보고문이 있다.⁷⁾ 이외에 1996년에 출간된 『강원도 산성기행』(진용선, 집문당)이 있다. 이 책은 전문 성곽연구자에 의한 글은 아니지만 각 산성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적은 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곽유적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개별 성곽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전설을 필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성곽과 연결지음으로써 혼란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곽과 관련된 다수의 傳言·傳說이 수록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간접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2년에는 삼척문화원 주최로 오향리산성(요전산성)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 바 있다.⁸⁾ 그러나 아직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태기산성(덕고산성)⁹⁾에 대한 기존의 조사성과와 현재의 유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역사적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7) 강원대학교 박물관, 『한계산성지표조사보고서』, 1986.

한국보이스카웃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 1989.

春川市, 『春川鳳巖山城地表調査報告書』, 1993.

강원고고학연구소, 『홍천 석화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6.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旌善 古城里 山城과 松溪里 山城 및 古墳群』, 1997.

강원고고학연구소, 『홍천 대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7.

관동대 박물관·동해문화원, 『東海 頭陀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1997.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원주 영원산성·海美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1998.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영월 왕검성』, 1999.

윤경오·김남돈, 『평창군의 성곽』, 평창문화원, 1999.

육군사관학교, 『철원성산성지표조사보고서』, 2000.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춘천 삼악산성』, 2001.

강릉대 박물관, 『강릉 고려성지지표조사보고서』, 2001.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華川郡·春川市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2001.

이외에도 1994년부터 강원도 각 市·郡別로 발간되기 시작한 『○○市(郡)의 歷史와 文化遺蹟』에 각 지역별 관방유적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소개되었다.

8) 삼척문화원 주최로 2002년 11월 15일 삼척문화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요전산성의 고고학적 검토」(지현병), 「삼척 오향리산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배재홍), 「오향리산성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화 방안」(차장섭)이 발표되고 홍영호, 유재춘, 이청희의 토론이 있었다.

9) 이 산성에 대한 조선시대의 명칭은 '덕고산성'이며, 필자는 종전에 그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횡성지역에서는 대개 '태기산성'으로 알려져 있고 본 학술대회 주제도 그 명칭을 사용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는 그에 따라 '태기산성'이라 칭하였다.

II. 입지 조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외부적 침략에 대비한 산성을 많이 축조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성곽문화의 하나의 특징이다. 따라서 삼국시대 이후 수많은 산성이 축조되어 우리나라는 전국 어느 곳을 가든 수개 이상의 산성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산성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산성 입지와 관련한 많은 기사가 있는데,¹⁰⁾ 그 내용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산성의 입지 조건 가운데 水源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有水處」인 산성을 수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산성에 입보하게 되면 일단은 장기간 籠城하는 것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水源의 확보는 그 어떤 조건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는 산성의 水源에 관한 기록을 통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地理志 所載 산성의 水源池 현황

道 別	山城數	井·泉이 있는 城	川·溪·渠·池가 있는 城	井泉은 없으나 川·溪·渠·池가 있는 城	備 考
京畿道	5	4			
忠清道	27	25			
慶尙道	30	25	21	4	
全羅道	11	9	6	1	
黃海道	4	3	2	1	
江原道	15	9	5	4	
平安道	8	5	6	2	
咸吉道	11	6	5	4	
計	111	86	45	16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산성 111개소 가운데 77%인 86개소에는 井·泉이 있으며, 이 가운데 29개소는 별도로 川·溪·渠·池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구비하고 있었다. 또 井·泉은 없으나 川·溪·渠·池가 있는 곳이 16개소여서 실제 111개소 산성 가운데 102개소는 水源池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有水處」의 산성을 수축하도록 한 방침과 일치하고 있다.

10) 유재춘, 『한국중세축성사연구』

또한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산성에 있는 水源池의 상태에 대해서도 「冬夏不竭」「四時不渴」「雖旱不渴」「長流不渴」이라고 하거나 혹은 「旱即渴」「小旱則渴」「大旱則渴」이라고 하여 물이 작은 가뭄에도 마르는지, 혹은 크게 가물어야 마르는지를 표기하였으며, 한개의 城內에 여러 개의 井泉이나 川溪가 있을 경우 가뭄에 마르는 곳이 몇개이고 마르지 않는 곳이 몇개인지를 표시하였다. 井泉의 갯수는 10개 이내인 곳이 대부분이지만 평안도 慈山郡의 山城에는 무려 99개나 되어 전국에서 井泉이 가장 많은 山城이었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산성의 水源池 확보에 관한 것을 보면 한성부·개성부를 제외한 八道の 산성 41개소 가운데 71%인 29개소의 산성에 井·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川溪가 있는 곳이 17곳이며, 水源池에 관한 기록이 없는 곳이 서산성(옥천), 북산성(예안), 서산성(현풍), 남양현산성(홍양), 흘골산성(성천) 등 5개소이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所載 軍倉과 水源池 현황

구 분	성곽수	軍倉이 있는 城	井·泉이 있는 城	川·溪·渠·池가 있는 城	비 고
경기도	1	1	1	1	
충청도	9	8	8	2	
경상도	11	10	7	7	
전라도	5	4	4	4	
황해도	3	3	2	2	
강원도	2	1	2	—	
함경도	3	3	3	1	
평안도	7	7	2	—	
계	41	37	29	17	

※ 關防地域에 있는 軍倉 10개소는 포함되지 않음.

둘째는, 산성의 입지 조건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높고 험준한 지세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방어상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은 인원으로 손쉽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험준한 지형에 의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世宗實錄』地理志의 산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대체로 「高險」, 「險阻」, 「絶險」, 「天作之險」으로 표시되어 있는 산성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서도 그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험준하다고 하여 반드시 適地는 아니었다. 산성이 험준한 곳에 있더라도 통행로나 내부가 험하여 人馬가 통행하기에 불편하면 적당한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險地爲主의 입지 선정에 대해 유성

룡은 그의 「山城說」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만약 산성이라면 더욱 저만 홀로 우뚝하여 사면에 수목도 없고 암석도 없어 적이와도 엮드려 숨을데가 없어서, 城에서 돌을 굴리면 마치 관위에 탄환이 굴러가듯 하는 이런 지대야 말로 천연적으로 험한 곳인 것이다. 요즈음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고, 다만 적을 두려워함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해 숨을 생각만 가득하여 山林이 매우 뻥뻥하고, 돌벼랑이 입을 벌린 듯한 곳을 보기만 하면 적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이야말로 지킬만한 險地라고 말한다. 아! 이른바 험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 험하며, 이른바 크게 험하다는 것은 사실 험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러한 지대는 그 자신만 가리울 수 있어 적이 다람쥐처럼 여기저기 엮드려 숨거나 뱀처럼 구불구불 기어들어갈 수 있다. 성 위의 사람은 이미 적의 소재를 자세히 알 수 없게 되니, 비록 화살이나 돌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나무숲이나 큰돌에 막히게 되어 적을 맞힐 수 없는 것이다.」¹¹⁾

이는 험준하더라도 성밖에 나무나 바위같은 장애물이 많게 되면 은밀히 접근하는 적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발견하더라도 적이 은신할 곳이 많아 공격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임진왜란 당시 황석산성 전투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으로, 유성룡의 이러한 비판은 實戰事例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는 전략적인 입지 조건으로, 유사시 다른 지역과 상호 연계성이 좋고 요충지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柳成龍은 「옛성을 살펴보면 왕왕 깊숙하고 궁벽하여 숨을 만한 곳에 흔히 많이 있다. 이는 난을 피하는 계책은 될지언정 적을 진압하여 평정할 피는 못되는 것이니, 이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그 첫째이다」¹²⁾라고 하여 산성의 전략적 고려를 매우 중시하며, 예전의 산성들이 그러하지 못한 곳이 많음을 비판하고 있다.

넷째는 入保의 편의성 여부이다. 이는 邑治에서의 거리와 진입로가 人馬의 통행에 편리한가 하는 문제이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신속한 입보와 산성의 관리나 군수물자의 수송 등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안으로 입보할 경우 老弱者 등 가족은 물론이고, 牛馬를 끌고 가야하고, 또 평소 산성관리와 식량수송 등을 위하여 왕래하기 때문에 험준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곳의 통행로는 반드시 통행로가 편리한 곳이어야 했다.

11) 柳成龍, 『西厓集』雜著 山城說.

12) 柳成龍, 『西厓集』雜著 山城說.

다섯째는 산성내의 지형적 조건인데, 이는 산성내부에 창고시설, 혹은 官舍와 입보 人馬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또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내부가 험하지 않고 평탄하거나 완만한 경사지여야 적합한 곳이었다.

여섯째는 산성 수축의 편의성 여부이다. 성곽 축조에는 무엇보다 공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돌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했다. 古城을 수축하여 사용한 사례가 많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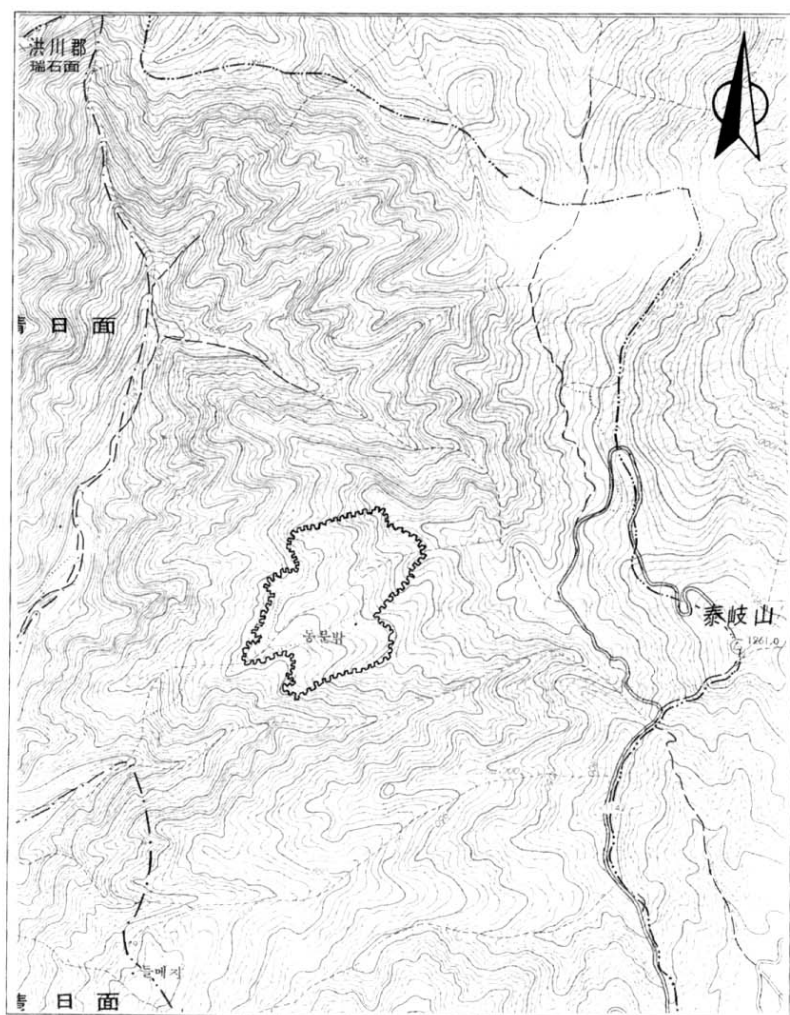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산성의 입지 선정에 주로 고려되는 것이나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준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앞서 柳成龍의 산성입지에 대한 주장을 소개하였거니와 임진왜란이라는 실전을 겪으면서 상기의 입지선정 방식은 변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입보주민수를 계산한 성내부의 공간확보 조건에 있어서도 실제 전쟁이 발발하여 주민이 흩어졌을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성들이 많았고, 또 입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벽수비가 허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柳成龍은 「성을 견고하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만약 성이 크고 넓으면 비용만 많이 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옛성은 산을 따라서 성첩을 쌓아 높이가 수척이 못되고 능선을 둘러싸고 있어 이쪽과 저쪽이 훨씬 멀어져 깃발과 북, 눈과 귀가 서로 미칠 수 없어서 장수가 호령을 하여도 즉시 통하지 못하니 이것이 해서 안되는 그 둘째이다」¹³⁾ 라고 하여 예전의 산성들이 입보인원과 축성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지나치게 크게 축성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횡성 갈풍리 산성이나 인제 서화리 산성과 같이 매우 작은 규모의 성이 임진왜란 동안에 수축되어 사용되었던 것도 그러한 당시의 입지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예상입보민수를 계산한 규모가 큰 산성은 실제 상황에서 주민들이 지정된 산성에 입보하기 보다는 山谷으로 도피하는 사람이 많아 守城人員이 빈약하게 됨으로써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기산성은 태기산 정상(해발 1,261m) 서쪽의 중턱 해발 800m~950m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산성 남동쪽에는 횡성 둔내에서 평창 봉평으로 넘어가는 양구두미재가 있고 서쪽으로는 횡성 청일면에서 홍천 서석면으로 통행하는 도로가 있다. 그러나 태기산성은 매우 깊은 산중에 위치한 산성으로 전략적 요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둔내 - 봉

13) 柳成龍, 『西厓集』雜著 山城說.

평간 통로를 控制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태기산성의 입지와 형세(1:25000 도엽번호 NJ52-10-10-3 진조)

태기산성은 청일면 신대리 버스종점에서 송덕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나오
고 이곳은 태기산성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천이 습水되는 지점이다. 이곳에서 태기산 등
산로를 따라서 작은성골을 지나 30분 정도 올라가면 좌측으로 계곡에서 능선으로 올라
가게 되는데 이곳에는 현재 나무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을 따라 올라가면 좁은 능선
이 나타나며 좁은 능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가면 산성이 나타난다.

산성이 위치한 곳은 산성 북동쪽 태기산 정상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벽이거나 절벽에
가까운 급경사지로 되어 있다. 특히 북쪽과 서쪽은 낮은 지대에 절벽이 둘러치고 있어서
산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남쪽도 현재의 등산로를 따라 접근하는 통로 외
에는 거의 산성으로 올라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유일하게 산성의 정상부인 북동쪽 부분
이 비교적 완만하나 이곳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태기산을 넘거나 둔내와 봉평 사이의
고개길에서 능선을 타고 접근하여야 하는데, 그 넓은 산속에서 이곳으로 접근해 산성을
찾아 공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태기산성은 사방이 매우 험준한 지대이지만 성 내부는 완만한 경사지로 되어 있어서 이
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화전민 정리가 되기 전에는 이 일대에 ‘태기리’라는
마을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남아 있는 집터로 보아 산성 내부
에도 상당히 여러 가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시냇물이 한 곳 있고, 長流하여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처럼 산성 내부에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어서 水源이 풍부하다. 아마 조선시대에 이
르기까지 이 산성이 사용된 것은 그러한 입지상의 이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III. 유적 현황

1. 문헌적 검토

이山城을 辰韓의 泰岐王이 築城하였는지는 전하는 이야기 이외에는 특별한 資料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종전의 古城을 改築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世宗實錄』 地理志에서 「縣의 東北으로 49里 50步되는 곳에 있다. 둘레는 568步 5尺이며 시냇물이 한 곳 있고, 長流하여 마르지 아니한다. 또 軍倉 5칸과 官廳 2칸이 있다」¹⁴⁾라고 하여 당시는 이 산성이 방위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管理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석축이며 둘레는 3,653尺으로, 안에는 우물이 1개 있으며 軍倉이 있으나 지금은 半은 頽落하였다」¹⁵⁾라고 하여 16세기 중반경에는 山城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점차 頽락하여 그 기능을 상실해 갔고, 18세기 중반에 발간된 『輿地圖書』에는 「今廢」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미 그 이전에 산성이 완전 革廢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에서 볼 때 현재의 무너진 산성은 조선중기 이후 頽락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산성의 명칭은 대체로 ‘덕고산석성’ ‘덕고산성’으로 불리워져 왔으나 현재는 산의 명칭이 ‘태고산’ 보다는 태기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개는 ‘태기산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태기산’이라는 명칭이 기록상 보이는 것은 19세기중반 편찬된 『대동지지』가 처음이다. 『대동지지』의 嶺南 山水條의 ‘덕고산’ 부분에서 ‘一云泰?山’이라고 하여 덕고산의 다른 이름으로 ‘태기산’이라는 명칭을 소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아마 덕고산은 그로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태기산이라고 불리워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기산성과 관련하여 흥미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산성과 관련된 전설이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나 일제강점시대에 발간된 『강원도지』의 덕고산성 부분에서는 이 산성과 얽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유사한 이야기 두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辰韓主 태기왕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 쫓겨어 이곳으로 들어

14) 『世宗實錄』 地理志 江原道 橫城縣.

15)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橫城縣 城郭.

16) 『輿地圖書』 江原道 橫城縣.

와서 성을 축조하고 居城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東史』의 내용에 나오는 辰韓主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게 꺾박을 받아 경주로부터 바다로 도망하여 북쪽의 영동에 이르렀다고 하는 대목을 인용하며 이것과의 연관성을 소개하고 있다.¹⁷⁾ 물론 이러한 전설적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향후 태기산성에 대한 정밀한 고고학적 학술조사를 통하여 이 산성의 역사를 증빙할 유물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유적 현황

산성은 태기산 서쪽 중턱의 해발 800~1,000m 정도되는 지대에 축조되어 있다. 산성의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950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흘러내린 능선을 따라 축성하였다. 현재 무너진 정도로 보아 당초부터 성벽을 높이 축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德高山城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3,653尺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실측에 의하면 총연장 약 1,840m 정도로 尺數를 布帛尺으로 환산한 것과 대략 같다. 내부에는 2개의 작은 능선이 있는 包谷式 산성으로, 성내에는 수량은 많지 않으나 시냇물이 한줄기 흐르고 있다. 또 내부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는 축대의 흔적이 남아 있고, 초석(51cm 3cm)과 장대석 등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는 『世宗實錄』地理志나 기타의 기록에 나오는 軍倉, 또는 官廳址로 추정된다. 동남쪽에는 望臺址로 보이는 터가 있으며, 동쪽의 성벽중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면 門址가 있는데 이곳이 산성의 東門이다.¹⁸⁾

성벽은 대체로 內托式으로 축조되었으며, 지형에 따라 협축을 한 곳이 있다. 서남쪽 문지 일대에는 길게 돌아 들어가는 曲城형태로 축조되었으며 그 안쪽에는 약간의 평탄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어 女牆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體城壁은 대체로 石築이 무너져 내려 있고, 南門址 주변이 비교적 성

17) 이와 관련하여 인근에 위치한 운무산성에 대해서는 高句麗, 혹은 弓裔가 활동하였던 시대에 쌓은 것이라고도 하지만, 秦岐王이 秦岐山城(덕고산성)에서 新羅軍에게 패하여 도주할 때 태기산성 동북방에 있는 지르매재를 넘어 운무산성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18) 현재 이 門址를 지나 태기산 쪽으로 더 올라가면 비교적 편편하고 넓은 지대가 나타나는데, 이곳은 예전에 화전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곳으로 이곳의 지명이 “동문밖”이다.

벽의 형태가 가장 잘 남아 있다. 현재 이 일대에는 여러 지점에 석축 잔존부가 남아 있는데, 길이 4m, 높이 145cm, 석축 6단 정도가 남아 있다. 이 산성의 축성 幅은 지형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100~110cm이며, 높이는 퇴락의 정도가 심하여 알 수 없다. 그리고 태기산성은 급경사나 절벽지형을 끼고 있어서 적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은 낮게 축성하였다. 석축은 하단부에 대개 반치석되거나 치석되지 않은 크고 긴 돌(긴 것이 110cm 전후)로 기초를 만들고 가로 30~50cm, 세로 15~30cm 정도되는 성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태기산성 성벽 모습 1



태기산성 성벽 모습 2

산성내에는 성황당터가 남아 있는데 현재는 거목이 한그루 있고 그 아래에는 돌이 쌓여 있다. 주변에 석렬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이곳에는 산성과 관련된 어떤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이 신앙공간인 성황당터로 남아 있는 것은 아마 당초에 이곳에 성황신을 모시는 당집이 자리잡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산성 상부쪽에는 우물지가 남아 있다. 지금도 정비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샘이 나오고 있으며 이 주변에 습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일대부터 水源이 형성되어 성내로 작은 시내를 만들고 있다.

성내에서는 도기편외에 특별한 유물을 찾지 못하였다. 창고와 관청터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많은 기와편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기와편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마 지표에 매우 두텁게 부엽토가 뒤덮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고고학적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여러 유물이 채집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산성의 폐지와 산성내 창고의 이전 문제이다.¹⁹⁾ 군창에는 대개 병기와 군량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산성이 폐지되면서 대체로 군창은 治所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상례이며 원주 영원산성의 경우도 그러하였다.²⁰⁾ 다른 산성들도 대개는 그러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한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어느 시기엔가 산성 가까이에 둔창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산성의 군창이 폐지되면서 바로 인근에 둔

19) 유재춘, 『한국중세축성사연구』 420-421쪽 참조.

20) 『輿地圖書』 江原道 原州 寺刹 山城寺. 「在?原城中 壬辰倭亂牧使金梯甲 領兵入據 賊兵猝陷 州 軍及避亂人民 俱沒 梯甲死之 厥後設置僧將守護山城矣 城?寺廢 遂罷僧將 移置軍器餉穀於州內 …」

21) 이 둔창이 설치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8세기 중엽에 간행된 『輿地圖書』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屯內面”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둔내”라는 명칭이 “屯田”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결국 18세기 중엽에 둔창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둔내에는 둔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칭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여지도서』에 보면 둔내면에 “都廳里”라는 리명칭이 있는데, “都廳”이라는 명칭은 둔전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둔창에 대한 기록은 『關東誌』(1829~31년경)에 있는 지도에 나타난다. 본문의 「倉庫」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형성군내의 주요 시설물을 약도로 그린 지도에는 둔창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19세기초 이전에 둔창이 설치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1871년경에 만들어진 『關東邑誌』에는 규모는 18칸, 위치는 횡성현 동쪽 60리되는 둔내면 둔방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지도에 보면 이곳에는 屯倉과 守禦屯倉 두 동의 건물지 표시되어 있는데, 수어둔창은 아마 특별히 수어청 소속의 둔창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횡성현의 「軍摠」을 보면 兵曹騎兵 237명에 이어 守禦營別破陣兵이 216명으로 두번째로 많은 병종

IV. 태기산성의 성격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 통일되면서 방어시설은 다시 고려의 수도 개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고려가 건국되고 통일전쟁을 수행해 나가던 시기는 중원 지역에서는 唐宋 교체기로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한 시기이며, 특히 거란이 점차 강성해져 고려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가던 시기였다. 고려가 건국초기부터 평양성 축조를 비롯하여 북계지역과 서북로 거점지역의 방어시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란과의 전쟁과 여진의 침략이 장기화되면서 고려의 방어시설 구축은 대체로 개성을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에 집중되게 되었고, 덕종 2년(1033) 완성된 압록강에서 和州의 동해안에 이르기 까지 北境關防城(長城)은 실로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통일신라기~고려초에 자라잡은 성곽들은 몽고 침입과 함께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으며 농성전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성곽은 새로운 입보처가 물색되어 이전되는 등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편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중국에서의 위협보다는 전국 각지에 출몰하는 왜구에 대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연해지역에 많은 읍성이나 鎭堡城이 구축되게 되었다

한편 중세 산성, 특히 몽고침입을 계기로 구축된 산성은 종전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성과는 달리 대개 避難性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로 ① 매우 험준하고 比高가 높은 입지를 선택하였으며, ② 단애지대가 많은 험준한 지대여서 전 성벽선 가운데 한정된 구역에만 축성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산성구축 功役이 매우 적게 들었으며, ③ 축성방식에 있어서 계획성이 떨어지며, 석축이 허술하며, ④ 대개 ?의 구분이 없는 낮은 平女牆을 택하고 있으며, ⑤ 규모에 있어서 삼국시대의 것들에 비해 훨씬 대형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산성을 구축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중세의 산성, 특히 13세기 중반이후 구축된 산성들이 매우 높고 험준하며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하게 된 것은 전쟁의 양상과 관련이 있다. 삼국시대의 전쟁은 점령지를 즉각 지배체제내에 편입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전투행위와 결부되지 않은 양민에 대한 학살이나 납치 등 인명을 손상하는 잔혹한 행위는 비교적 많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시대 異民族의 外侵으로 빚

어진 전쟁은 기존의 양상과는 전혀 달랐다. 이민족의 침략은 영토쟁탈전이 아니라 약탈성이 강해지고 많은 人命의 死傷과 납치가 수반되었다. 결국 이러한 전쟁의 양상은 입보용 산성을 매우 험준하고 궁벽한 곳에 구축하게 하였다.

삼국시대에도 수많은 산성이 축조되고 유사시 산성에 입보하는 방어전술을 구사하였지만 당시의 산성은 대개 주민 주거지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이는 전쟁의 규모나 양상, 또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산성내 治所 설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통일기에 신라가 점거 지역에 축조한 성곽은 매우 견고한 것이었다. 대개 각지역의 鎭山이라고 불리는 곳에 축조한 산성이 이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산성은 후삼국을 거쳐 고려시대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대개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려중기에 있었던 蒙古軍의 대규모 침입은 기존 산성의 시험대가 되었으며, 장기 농성이 불가능한 곳은 점차 도태되었고, 포위공격이 어렵고 水源이 풍부하며 人馬를 충분히 수용할 공간이 있는 험준한 곳으로 입보 산성이 이전되었다. 이 시기의 산성은 긴급한 상황에서 축조되다 보니 자연 정교성이 떨어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산성구축 경향은 고려말 왜구에 대비하여 많은 산성을 수리·구축할 때에도 대개 변함이 없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태종대에 전국적으로 3, 4畝 거리를 두고 일률적으로 입보 산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축조방식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세종대 이후 읍성위주의 방위책이 중시되면서 산성은 퇴조하였다.

태기산성은 입지나 기록 등을 살펴볼 때, 처음 축조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초기에는 명백히 군사시설로 사용하였고, 대략 16세기초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성사 속에서 태기산성을 살펴보자면 일단 고대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은 적고, 蒙古 침입 이후 새로운 입보성을 만들면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힘지위주라는 점, 성내가 비교적 넓고 水源이 풍부하다는 점, 석축이 매우 조악하다는 점 등에서 볼 때 蒙古 침입 시기를 전후하여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태기산성은 입지나 기록 등을 살펴볼 때, 처음 축조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초기에

는 명백히 군사시설로 사용하였고, 대략 16세기초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築城史 속에서 태기산성을 살펴보자면 일단 고대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은 적고, 蒙古 침입이후 새로운 입보성을 만들면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함지위주라는 점, 성내가 비교적 넓고 水源이 풍부하다는 점, 석축이 매우 조악하다는 점 등에서 볼 때 蒙古 침입시기를 전후하여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사례로 볼 때는 전형적인 중세시대의 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를 가진 산성을 구축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중세의 산성, 특히 13세기 중반이후 구축된 산성들이 매우 높고 험준하며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하게 된 것은 전쟁의 양상과 관련이 있다. 삼국시대의 전쟁은 점령지를 즉각 지배체제내에 편입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전투행위와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민의 학살이나 납치 등 인명을 손상하는 잔혹한 행위는 비교적 많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시대 異民族의 外侵으로 빚어진 전쟁은 기존의 양상과는 전혀 달랐다. 이민족의 침략은 영토쟁탈전이 아니라 약탈성이 강해지고 많은 人命의 死傷과 납치가 수반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로는 납치와 학살을 피하기 위한 避難性이 강한 산성이 구축되게 되는 것이다.

태기산성에 대해서는 진한의 태기왕이 신라군에게 쫓겨 이곳으로 와서 축성하고 거처하였다는 축성설화가 전해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증빙할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산성의 입지를 볼 때, 삼국시대 초기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실제 지배집단의 교체과정에서 잔여세력들은 적은 군사력으로 버티기 위해 이러한 험준한 곳에 근거지를 마련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산성은 퇴락이 심하고 산성내부는 부엽토가 두텁게 덮혀 있고, 많은 부분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상에서는 소량의 도기편외에는 유물을 거의 수습할 수 없다. 향후 정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산성의 사용시기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태기산성은 정상부에 표지석을 세워 놓은 것 이외에는 거의 방치되어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방치'와 보존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방치되어 온 태기산성에 대한 학술조사와 함께 정비·보존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泰岐山 주변의 口碑傳承

이 대 범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태기산의 문화 지정학적 의미
2. 조사 개요 및 선행업적 검토
3. '태기왕 전설' 전승 과정 비교 검토
4. 태기왕의 행적과 관련된 지명 및 설화 내용
5. 결론을 대신하여

1. 태기산의 문화 지정학적 의미

태기산은 치악산과 함께 강원도 중부내륙에 위치한 고산으로 태백준령의 중심부에 놓여있어 여러 갈래의 산계와 수계를 형성하면서 영동과 영서를 구획하는 지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을 변별해 주는 문화 지정학적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태기산은 『세종실록』을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관동지』·『대동여지도』 등 19세기 이전에 간행된 사료에는 모두 덕고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언제부터 태기산으로 불렸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덕고산이 태기산으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태기왕 전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태기왕에 대한 기록은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태기왕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현재 태기산은 횡성 지역뿐만 아니라 홍천군 서석면, 평창군 봉평면 등 태기산 산록 마을의 주민들 모두가 태기산으로 부르고 있으며, 근래에 제작한 지도에는 모두 태기산으

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태기산 정상에서 서쪽으로(청일면 쪽) 약 600여 미터 지점에 산성이 남아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이 산성(山城)을 태기산성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세종실록』을 비롯한 19세기 이전의 사서에는 덕고산성(德高山城)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태기산은 서쪽으로는 횡성군(갑천면·둔내면·청일면), 남서쪽으로는 평창군(봉평면), 북쪽으로는 홍천군(서석면)의 등 3개 군(郡)에 걸쳐 산자락을 드리운 산으로, 그 산록에 많은 다양한 문화를 지닌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태기산 기슭에서 발원한 물은 동쪽으로는 평창을 거쳐 영월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둔내를 거쳐 주천강에 이르며, 횡성 쪽으로 흐르는 물은 섬강이 되고 서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홍천강에 이르고 있어 남한강과 북한강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수계의 문화성으로 보았을 때 태기산은 수계가 다양하므로, 그 산록의 수계를 따라 문화성이 다양할 것으로 짐작되며, 실제로 수계에 따른 문화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평창군 봉평면의 경우 산계로 보아서는 태기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나 문화성으로 보아서는 같은 태기산 서남쪽 기슭에 있는 횡성이나 홍천보다는 오히려 영동지방의 문화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문화의 차이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의 이러한 현상들은 같은 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취락이라 할지라도 마을 사이의 교역량이나 왕래의 빈도, 혼로(婚路) 등에 의하여 문화의 차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예이다. 실제로 봉평의 경우, 같은 태기산록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횡성이나 홍천 등지와는 영이 가로 막혀 있어 내왕이나 교역이 드물었던 데 비해 오대산계라 할 수 있는 진부 쪽과는 교역이나 왕래가 빈번하여 문화양상은 오히려 영동지역의 문화에 가까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태기산이 주변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변별해주고 있는 문화 지정학적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태기산과 관련한 태기산 주변지역의 구비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태기왕 전설 및 여러 지명 설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횡성군 갑천면·청일면·둔내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태기산 권역으로 포괄할 수 있는 평창군 봉평면과 홍천군 서석면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및 선행업적 검토

1) 문헌조사(2003. 7. 1 - 8. 31.)

필자는 태기산 주변의 구비문학의 전승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태기산과 관련된 구비문학 자료를 싣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기술을 담고 있는 다음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 ① 최승순 외, 태백의 설화 (상), 강원일보사, 1974.
- ②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 6집, 강원일보사, 1986.
- ③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 횡성군편, 1989.
- ④ 강원향토문화연구회,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 1995
- ⑤ 횡성군, 화성의 옛터, 1996.
- ⑥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편, 강원도 땅이름, 1997.
- ⑦ 최웅 · 김용구 편저, 강원전통문화총서 - 설화편, 국학자료원, 1998.
- ⑧ 둔내면지 편찬위원회, 둔내면지, 1998.
- ⑨ 강원도민일보사, 강원향토대관, 1999.
- ⑩ 횡성군지 편찬위원회, 횡성군지, 2001.
- ⑪ 이영식, 횡성의 지명 유래, 횡성문화원, 2001.
- ⑫ 김선평 외, 평창군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2.
- ⑬ 횡성문화원, 횡성의 구비문학, 2002.

상기 문헌에 실려 있는 태기산 주변 구비문학 자료들은 그 내용은 비슷하나 자료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①에 실린 '태기왕 전설'의 경우 채보자의 구술내용뿐만 아니라 채록자의 주관적 상상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②의 경우 횡성군 지역뿐만 아니라 홍천군의 서석면과 평창군의 봉평면 등 태기산 주변 지역의 자료도 함께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③은 각 면에서 2개 리 정도를 선정하여 조사 · 채록한 민요와 설화를 함께 수록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태기산과 관련한 자료는 발견할 수가 없다. ④ · ⑤는 구비문학보다는 태기산의 산성터 등 유적을 중심으로, 그리고 횡성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⑥ · ⑧ · ⑨의

자료는 1차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내용이 체계적이고 정연한 것이 특징이다. ⑦·⑫는 대학의 전문 연구자들이 조사한 자료로 ⑦은 내용에 따라 6항목 내지 8항목으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는 반면에 ⑫는 각 면별로 구분하여 채록된 순서대로 수록하고 있다. ⑩의 자료는 ⑨에 실린 태기왕 전설을 재수록한 것이다. ⑪은 지명 사전 형식으로 저술되었으나 태기왕(태기산)과 관련한 지명의 유래를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구비문학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저술이다. 가장 최근의 업적인 ⑬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조사자와 제보자의 대화 내용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문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태기산 주변의 구비문학에 대한 조사는 크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학술적 목적에서 실시한 것(①·②·③·⑦·⑫)과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자체 문화정리 사업의 일환으로(④·⑤·⑧·⑩·⑪·⑬), 또는 기타 필요성(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과나 자료의 가치면에서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태기산 주변의 구비문학은, 특히 태기산과 관련된 구비문학은 민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거의 설화가 차지하고 있었다. 설화도 태기왕과 관련된 인물설화와 태기왕의 행적과 관련된 지명설화가 대중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조사 대상지역을 횡성군(둔내면·청일면·갑천면)·홍천군(서석면)·평창군(봉평면) 등 태기산 주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②)와 횡성군 관내로 제한한 조사(②를 제외한 모든 자료)로 구분된다.

넷째, 태기왕의 신분에 대해서는 태기왕을 진한의 마지막 왕으로 기술하고 하고 있는 자료(①·②·③·④·⑤·⑥·⑨·⑩·⑪·⑬)와 진한의 마지막 왕이거나 춘천을 근거지로 한 백국의 왕일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자료(⑦·⑧·⑫)로 구분된다.

다섯째, 상기 자료 중 태기왕(또는 태기산성)에 관한 설화 중 서사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자료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는 ①·②·⑦·⑫ 정도이다. ⑥·⑧·⑨에는 태기왕 전설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지명 유래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이들 자료는 이미 채록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어서 구비문학의 전승 및 변모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현지 조사(2003. 9. 1 - 31)

문헌조사를 마친 후 필자는 9월 한 달 동안 유재춘(강원향토문화연구회 상임연구원 · 국사편찬위원) · 함복희(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이은희(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양민희(강원대학교 국문과 4년) 등과 횡성군 갑천면 · 청일면 · 둔내면, 홍천군 서석면, 평창군 봉평면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활동을 벌였다. 그 일정과 성과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하 현지조사를 통해 채록된 자료는 일련번호 ⑭로 표시한다.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읍동리, 삼거리, 전촌리, 추동리, 대관대리, 궁천리, 수백리 등	2003년 9월 3 · 5 · 6일	설화 14편
	청일면	초현리, 갑천리, 봉명리, 신대리, 속설리, 유동리, 춘당리, 유평리 등	2003년 9월 7 · 13 · 14일	설화 11편
	둔내면	자포곡리, 삼교리, 현천리, 두원리, 둔방내리, 현천리 등	2003년 9월 20 · 21 · 23일	설화 12편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갑산리, 풍암리 등	2003년 9월 27일	설화 6편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2003년 9월 28일	설화 10편

3. '태기왕 전설' 전승 과정 비교 검토

설화는 문자가 아니라 말로 전달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 꾸며 낸 이야기이다.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서사적이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허구적이다. 설화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나 신변잡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상상력의 소산이기 때문에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설화는 구전 문학,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 전승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변화하면서 전승된다. 설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① 구전성(口傳性) : 설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이러한 구전성으로 인하여 전승과정에서 이야기에 첨삭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변한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② 민중성(民衆性) : 설화는 민중 속에서 만들어져 말로 전승되므로 일정한 작자가 없다. 그것은 애초에 원작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구연자(口演者)들에 의해 전승되는 동안 원작자는 잊혀지고, 또한 그 작품도 변질되어 나타나므로 민중 공동의 소산물이라 할 수 있다.

③ 산문성(散文性) : 설화는 말에 의해 전달되는 이야기이므로 산문적이다.

④ 허구성(虛構性) : 설화는 ‘이야기’를 뜻하지만 허구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역사나 사실담 그대로는 설화가 될 수 없고, 이들에 민중의 상상력이 보태져서 허구화되었을 때 비로서 설화는 성립한다.

⑤ 보편성(普遍性) : 설화는 인류가 문자를 갖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져 민중 속에서 유전(流轉)되어온 점에서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다.(김선풋 외, 1993 : 33-34)

본고는 이러한 설화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태기왕 전설의 구비 전승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태기왕 전설의 형성 과정에 대한 가설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설화의 특성상 태기왕의 실존 여부나 행적은 논외로 하기로 한다.

텍스트로는 구비문학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동시에 태기왕 전설의 서사구조를 간직하고 있는 자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문헌자료는 ① 최승순 외, 태백의 설화(상), 강원일보사, 1974, ②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 6집, 강원일보사, 1986, ⑦ 최웅·김용구 편저, 강원전통문화총서 - 설화편, 국학자료원, 1998, ⑩ 김선풋 외, 평창군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2 등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텍스트로 삼았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통해 채록한 ⑭-1 ‘태기왕과 갑천면 내력담’(청일면 초현리 / 2003. 9. 7 / 정호준·남·70)과 ⑭-2 ‘태기왕 이야기’(2003. 9. 27 /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 김진택·남)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텍스트의 원문과 기본 서사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태기 성지(城址)(1974)

횡성읍내에서 동쪽으로 약 32km의 거리를 두고 있는 갑천면 신대리 덕고산 중턱에 이르면 무더기의 돌로 된 성이 보인다. 지금은 얇은 성이지만 오랜 풍상을 겪는 동안 황폐한 것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산성이다.

서기 937년경이다. 진한(辰韓)은 상당히 강한 나라였다. 틈만 보이면 신라와 겨루어 통합왕국을 세우고 싶은 야망에 불타 있었다. 한편 신라 쪽에서도 진한은 목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베개를 높이하고 단잠을 누리려면 진한과 무슨 결판을 내어야 할 때였다. 급기야 싸움이 벌어졌다. 물론 전쟁은 신라 쪽에서 일어났다. 삼랑진에서의 접전은 진한의 대패로 돌아갔다. 진한왕은 근위병 약간을 데리고 지금의 덕고산에 이르러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젠 갈 데가 없었다. 덕고산에서 4년을 지냈다.

그동안 만일을 위해서 부하들로 하여 산성을 쌓게 하였다. 신라군이 여기까지 쫓아온다면 일전을 불사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화전을 개간하고 몇 백 명 되지 않는 군사로 하여 한편 농사도 짓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진한 왕의 생활은 신라의 탐지하는 바가 되었다. 신라는 다시 군사를 동원하여 원정의 길에 오른 것이다. 진한은 11정록에 성벽을 구축하고 제법 정예군을 훈련하고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후로부터 이성을 진한왕 이름을 따서 태기성이라고 부르며 지금은 이 고장 주민들의 기우제 올리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최승순 외, 1974 : 235-6)

- 진한의 태기왕은 통합왕국 건립의 야망에 불탄다.
- 신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태기왕은 병사들을 인솔하여 덕고산으로 도주한다.
- 태기왕은 덕고산에서 머물며 병사들을 시켜 산성을 쌓고 신라군의 침입에 대비한다.
- 신라군의 원정군에게 패하여 태기왕은 몰락한다.

② 태기왕 전설(1986. 6.27 /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 김용래 · 남 · 71)

태기산을 넘어가면 말이요, 고 짝에 저 횡성 땅으로 인제 태기산이 이렇게 됐는데 저 쪽은 횡성이고 이 쪽은 봉평이거든요. 근데 여길 넘어가면 옛날에 거 논도 몇 십 마지기나

있었다고 그러고 온섬지기도 있었다나. 양쪽으로 이래 십미터 쯤 이 십미터 쯤 내려가면
고 밑에 성이 있어요. 지금도 성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끝에 가서는 성문을 짓고 평정
한데, 거기에 뭐 군사가 있었다나....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산이 끝에는 아주 요렇게 뚫어
요. 발이 양쪽으로 건너지게 그렇게 돼서 그 끝에는 동문이라구 그래가지고 돌이 이렇게
한 발 이상 한 아름 되는 걸 돌문, 문방이라고 이렇게 뚫어놔요. 농구선 넘나들고 그 안에 성
안으로 해서 횡성으로 다니는데, 옛날에 태기왕이란 왕이 난리에 몰려가지고는 거기에
피란을 왔답니다. 횡성으로 인제 적군이 들어올테니까, 그 때는 자유로 산을 맨들었다구
그러는데 산을 그렇게 맨들어 농구 적군이 마음대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 농구
는 거다 인제 석문거리를 만들어 놓고 군사를 시켜 인제 지켰는데 지금도 가보면 돌맹이
가 이렇게 있어요. 거 그래서 지키고 그러다 거 성안에 양쪽에 있었는데 어떤 오열이 말
이야

“태기왕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는 천상 가지 못하니까 돌아서 뒤로 가야치지. 앞
으로 못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횡성 둔내로 해서 이리로 오도록 해서 봉평으로 들어와서 이 동문으
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서 횡성서 넘어오겠거니 하고 지키는데, 그 사람
들이 동문거리로 넘어와서 다 싸우니까 말이야 그 패들이 못당해 가지고 고만-횡성 둔내
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 밑으로 뺨뚜루 나가는 길이 있는데 뺨뚜루 나가면 거 저 뭐야
옥산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잡혀서 할 수 없어서 옥사를 이제 했겠다. 그리고 거 밑
에 내려가면 멸온(면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멸온까지 내려가 가지구 아주 그만 멀해 버
리고 말았다. 그런 전설을 들었는데, 그 성을 본다면은 거기 뭐 허이한 전설은 아닌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도 가보면 성은 그대로 여전히 있죠.(서준섭, 1986: 136-8)

- 태기왕이 난리에 몰려 태기산으로 도주하였다.
- 입구에 산을 만들어 적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방비하였다.
- 산 부근에 석문거리를 만들어 놓고 태기왕은 횡성 쪽으로 적군이 침입할 것으로 예상
하고 병사로 하여금 보초를 서게 하였다.
- 적군은 둔내를 돌아 봉평의 동문으로 쳐들어가 태기왕의 군사를 물리쳤다.
- 태기왕은 패퇴하여 옥산대를 지나 도주하다가 멸온(면온)에서 멸망하였다.

⑦ 태기왕 전설(1998 / 황성군 둔내면 우용리 / 김성수 · 남 · 68)

여기 가면 태기산이라고 있어요. 태백산맥에서 태기산이라고 있는 데 태기왕은 삼한시대 진한의 마지막 왕인데, 태기왕이 신라 박혁거세한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강이 있어서 그게 무슨 강이냐 하면 섬강이라고 있는데 갑천이라고 있어요. 태기왕이 거기서 성을 쌓고 진을 치고 연자방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군사를 데리고 훈련을 하고 진을 치고 있다가 박혁거세한테 밀려서 어디를 갔느냐? 어답산이라고 있어요. 태기왕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어둔리가 그래요. 임금이 이 산을 뵈었다 이거야 박혁거세한테 밀려서 어답산에서 어둔리로 갔다가 태기산으로 갔어. 신라군이 들어오니깐, 악산인데 그 뒤는 큰 벌판이 있어요. 앞은 아주 악산이고 돌산인데 이쪽은 신라군이 못들어오지 하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신라군이 이리 안 오고 뒤로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서 박혁거세군이 거의 전멸시켰어. 그래서 진한 시대가 망했는데 그래가지고 태기왕이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 거기 가면 태기왕이 쌓았다는 성이 있고, 태기왕이 앉았다는 큰 돌이 있어요.

과거 강릉에 ‘맥’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춘천에도 있었죠? ‘에’ 왕하고 ‘맥’ 왕하고 배(태)기산에 성을 쌓고 싸움을 했죠. 성자리가 있어요. 고담에 골짜기 넘어 가면 왕이 머물러 갔다 해서 왕유리, 또 고아래 가면 매룡리라 그러는데, 숨 면자, 까치 농자 면농리. 그런데 속말로 매룡리, 매룡리. 또 태기왕이 거기서 멸했대서 ‘멸흥리’, 멸흥리라 그래요. 그담에 여기 ‘배고터’인데, 왜 배고터냐. 속설에 옥살이 갔다 배고파 왔다 해서 그래요.(최웅 외, 1998 : 284-5)

- 진한의 마지막 왕 태기왕은 신라왕 박혁거세에게 쫓겨 갑천 부근으로 도주하였다.
- 태기왕은 어답산 부근에 진을 치고 있다가 박혁거세에게 쫓겨 태기산으로 도주하였다.
- 태기왕은 태기산에 진을 치고 적군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신라군이 태기왕의 예상을 깨고 태기산 뒤편으로 침입하여 태기왕을 멸망시켰다.

⑫ 태기왕 이야기(2002. 11. 16 / 봉평면 무이리 / 하찬수 · 남 · 74)

태기산은 평창군의 경계였고 옛날에는 저기 예국과 맥국이 있죠. 예국의 수도는 강릉이었고 맥국의 수도는 춘천이었답니다. 예국과 맥국의 국경을 이룬 게 아닌가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국과 맥국은 왕국은 아니고 부족국가의 하나로 형성이 됐는데 고구려 적까지도 예맥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맥이라는 게 옛날 오랬어요. 그런데 그 마한, 진한, 변한을 삼한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삼국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 맥국이 춘천이라고 그랬으니깐 아마 신라인지, 진한인지 진한의 모체가 신라죠 아마. 그러니깐, 그건 잘 모르겠고 암튼 신라군인지 진한군인지에 맥국이 당해가지고 마지막 왕이 항복을 하니깐, 왕자 태자, 태자 이름이 태기라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건 전설인데 부왕은 항복을 했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항복 못하고 이 나라를 유지하겠습니다.”

하고 패잔병 싸우다 죽으니깐 패잔병을 이끌고 횡성으로 와서, 횡성에 오면 궁촌마을이 있고 ‘병지방이 있고, 지금 병지방은 관광코스로 유명하죠. 궁촌마을에 궁궐을 짓고 병지방에 병기고, 무기고를 해야 하겠는데 태기왕이 왕은 아니죠. 왕자가 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돌보고 거기가 도저히 도읍지지는 아니겠다 그리고 현재 약소의 군사로는 지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태자가 올라갔다고 해서 거 가면 어답산이 있어요.

어답산 어자는 임금을 표시할 어, 아닙니까? 어답산에 올라가서 관망을 하고 지세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거 같아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면서 갑천이라는 개울에서 군사 갑옷을 씻고, 이랬다고 해서, 해서 갑옷 갑자 내천 자 해서 갑천 이유가 말이되죠. 그 래가지고, 성골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신대립니다. 거가, 거기가면 공복사도 있고 오른쪽으로 더 들어가면 태기산 밑에 인제, 신대리 마지막 골짜기에 가서 태기산에 올라가서 중턱에 올라가서 성을 쌓고 태기산성이 시방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태기산성이 아주 거짓말은 아니여. 그래서 성을 쌓고 군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뭘 먹어야 될까 아냐. 시방 현재 올라가 보면 내담암이 있는데 거기가면 평편해요. 그때 한 때는 거기가 화전민을 해서 이주시키고 그랬어요. 몇 십 명을 이주시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분교도 설치하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 자유당 말일거야. 거기 아무튼 편평하게 지반이 너롭니다. 그걸 개간해 가지고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전설이니깐) 수확을 해서 군량미를 충당했다는 전설이 있죠. 하여튼 태기가 끝나야 말이 끝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한군인지, 마한군인지 똑똑히는 모르겠으나 저 신라인지 신라가 가만 보니깐 그게 크면, 신라가 가만 생각해 보니깐 그게 꽤 귀찮겠거든. 그걸 마저 없애야겠다. 그래서 그 성 앞에 가서 전면공격을 하

는데 성이 얼마나 험한지 올라갈 재주가 없어 위에서 돌을 던지고 그러니깐 옛날 싸움은 그랬잖아 활 쏘고, 돌던지고, 창던지고 도저히 난공불락이야. 공격하기도 힘들고, 함락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거를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지. 적장이 기진맥진 힘들어 하는데 어느 부슬부슬 비오는데 군사를 휴식시키고 잠이 들었대요. 비몽사몽간 잠이 폭 든거도 아니고 아닌거도 아니고 그런건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신령이 툅 나타나더니,

“미련한 놈아 넌 마빡만 알고 덜미는 모르냐?”

하면서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잠을 깨서 생각해 봤더니,

“전면공격보다는 후면공격을 해야되겠구나.”

덜미니깐, 덜미를 무는 거니깐.

다시 돌아와서 지방 현재는 용전리인데, 그때는 둔전평이라고, 둔전평, 둔전평은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둔 자야.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둔 자니깐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거기 토지도 많으니깐, 토지를 개간해서 군량미를 충당했다고 해서 둔전이야. 말이 이루어지지. 그러면 거 기회를 노리니 태기왕도 부족국가지만 왕은 왕인데 정보가 없는 건 아니니깐. 그래서 정보를 얻어서 삼형제봉에다 삼형제 장군을 보초시키고 덕거리에 가면 호령봉이라고 있어요. 천 삼백고지가 있어요.

호자는 이름 할 때 호령할 때 령령 령자. 호령장군에게다 군사를 줘서 보초시켰어요. 적이 침투해 온다고 그러면 삼형제봉에서 봉화불을 키면 호령봉에서 막바로 보여요.

그래서 호령봉에서 다시 봉화불을 붙이면 태기산으로 연락이 와요. 그때는 태기산이 아니라 덕고산이었어. 그때는 덕고산이었어요. 그거도 적군이 알았을 거 아녜니까? 서로 정보 없는 정치는 할 수 없으니깐. 그래서 적군이 알고 삼형제봉을 피해서 도수골이라고 있어요. 도사리라고 현재는 도읍 도자 일 사자 도사골이라고도 속칭 그러는데 인제 거기서 도주해서 삼형제봉을 피해서 도주했다고 해서 도수골이야. 행정상 도사리로 되어있죠. 도주했다고 해서 도사골이야. 거기서 도주하면 호령봉이 바로 직선 거리야. 직선거리. 그래서, 인제 도주해서 살살 들어가서 호령봉을 공격하지. 호령봉은 삼형제봉에서 봉화불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의의 습격을 받으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패망을 하니 태기왕한테 연락이 갔죠

“호령봉이 함락됐다.”

아, 호령봉이 함락되니 태기왕이 황당할 거 아냐. 그래서 삼형제장군이 알고 쫓아 올라가

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태기왕하고 점을 해봤어. 어디가 길한가 그래서 시방 원길리라고 하는 데가 길하다고 해서 원길리라고 한다. 이려고.

그 답에 적군이 무이리를, 여기가 무이리야. 여기서부터해서 저 앞마을까지 한 5킬로가 무이리야. 깊어요. 거기 가면 용마봉이, 투구봉이 있고 안장바우가 있어 말안장.

전설에 의하면 태기왕이 내려왔다 용마봉에서, 안장바우에서 안장을 잃고, 투구봉에서 투구 잃고, 용마봉에서 용마 잃고, 아 전진할라고 하니 앞이 막히니깐 옆으로 돌아서 시방 독산대 아니 옥산대 거기서 옥새를 잊어 먹었다고 하는데. 옥새를 잊어 먹으면 이젠 왕이 아니고 평민이 되는 거야. 옥새를 잊어버리고 내려가다가 왕이 너무 기진맥진해서 잠시 유했다고 해서 왕유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면온에 가서 일반군인까지 패했다고 해서 멸했다 그래서 발음상 멸이 오늘날 면온이 됐다. 뭐, 이건 아마, 어는 비오는 날 어떤 분이 짚신을 삼아가면서 전설을 맹글어논 거 같아요. 역사는 없어요. 근데 말은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삼형제 장군하고 왕하고 백옥포리에 왔어. 근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희망이, 단 두 사람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젠 여기서 종말을 접도록 하자 그래서 군사가 없는 장군은 백의 아냐? 백의로써 옥체를 입고 투신했다고 해서 백옥포야. (김선평 외, 2002 : 196-201)

- 맥국의 왕이 신라(또는 진한)에 패하여 항복했다.
- 맥국의 왕자 태기가 나라를 유지하겠다고 나섰다.
- 태기왕자는 패잔병을 이끌고 궁촌·병지방을 거쳐 어답산으로 올라갔다.
- 태기왕자는 적당한 진지를 찾아 갑천을 지난 신대리 마지막 골짜기의 태기산으로 올라갔다.
- 태기왕자는 그곳에 성을 쌓고 병사를 양성하였다.
- 신라군이 태기산성을 공격하였으나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함락시키지 못했다.
- 신라 장군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적진의 후면을 공격할 것을 계시하였다.
- 신라군의 동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태기왕은 삼형제봉에 삼형제장군을, 호령봉에 호령장군을 배치하여 신라군의 침입에 대처하였다.
- 신라군은 삼형제봉을 피해 그 앞의 호령봉을 점령하였다.
- 삼형제장군은 태기왕을 찾아와 길한 방향을 알기 위해 점을 쳤다.

○ 태기왕은 적군을 피해 원길리·무이리·옥산대 등지를 거쳐 도주하다가 면온에서 패망하였다.

⑭ - 1 태기왕과 갑천면 내력담(2003. 9. 7 / 청일면 초현리 / 정호준·남·70)

옛날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전 얘기인 모양인데, 그때 아마 태기왕이 아마 옛날에 그거 뭐 마한, 진한, 변한 아마 그때인 모양이야. 삼한시대. 그래 싸우다가 그만 이겨 가지고 여기 태기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와서 인제 주둔을 해 가지고 난 잘 모르는데 거기 올라가면 뭐 성을 쌓았대요. 그래가지고 섬골이 있고 섬바우가 있고 그렇데요 거기. 섬바우. 지금 거기 가면은 짜더래는데요 그게. 섬바우. 많이 짜났는데 녹아 가지고.

군사 양식이 필요한데 쌀은 썩으니까 소금을 처음에 했었잖아. 그기 땅 속에 굳었다가 시방두 가면 시방 바우가 가면 있어요. 혀를 대면 짜다. 거기 또 문섬지기라고. 문섬지기. 문섬지기는 논이 한섬지기라는 거지. 거기 올라가서 논을 썼대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먹을 라고 그랬던 모양이지. 문섬지기라는 게 있네 거기. 논 그래니까 20마지기. 한 섬지기면 1200석인가? 그렇게 인제 군대가 좋으니까 동원 해 가지고 거기서 먹을 걸 해결 할라고 아마 그래가지고서는 태기왕이 거기서 여기서 인제 차 들어올 때만 가고 내려다 봤지.

거 태기산에서 보면 요기 조금 등에 올라가면 아주 꼭대기가 직선이라서 그래 여기만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오기만 하면 칠라고. 아, 그랬는데 저 짝 평창군 봉평이라는데 뒤에서 넘어왔대요 이리. 그 앞에만 내다보고 있다가 뒤에서 급작시리 치니까 적에게 그만 패해 가지고 이리 막 내려왔데 내려왔는데 그래고 또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다 진짜 군사는 저 넘어서 냉겨 치니까 어떻게 해. 거기서 막 내려왔지. 쫓겨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도 아마 군인이 쫓 있었던 모양이지. 그래니까 태기왕 군사하고 여기 있던 군사하고 그러니까 인제 적당히 됐을 거 아니요. 그래 막 싸우다가 고만 이제 서로 인제 승부가 끝났겠쥬. 그래 끝났는데 끝나고 나중에 끝났는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싸우니깐 뭐 죽은 사람도 있고 피 흘린 사람도 있고 뭐 묻은 것도 있고 이럴 거 아니요. 그래 거기서 냇가에서 그걸 씻었다. 그런 걸 씻었다 해서 거기 갑내예요. 갑내. 갑천면 갑내. 갑옷 갑(鎧)자 내 천(川)자여. 그래 인제 썼던 투구두 인제 뭐 개울에서 씻고 이래가지고 그래 여기가 인제 갑내라 그래요.(이대범 채록, 미발간)

- 태기왕이 싸움에 이겨 태기산으로 와 주둔하였다.
 - 적이 태기왕 주둔지의 후면으로 공격해와 패주하였다.
 - 태기왕이 패주하면서 갑천에서 갑옷을 빨았다.
- ⑭ - 2 태기왕 이야기(2003. 9. 27 /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 김진택 · 남 · 56)

청량리에 가면은 거 지금은 지도에 운무산이라고 인제 지명이 있어요. 운무산이라고 이렇게 구름 운자에다가 안개 무자 써 가지고 운무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원명은 율무성이거든, 율무성. 그런데 언제부터 지도에 운무산 이라고 표기 됐어요. 근데 율무성이라는 그 지명이 그게 아마 그 태기왕 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태기왕이 뭐 왕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왕자가 그때 당시에 횡성 쪽에서 쫓겨 가지고 삼한시대 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쫓겨 가지고 오다가, 지치고 오다가 갑천에서 갑옷을 빨았다. 그래서 인제 갑천이다. 그래서 그때에 그 옷을 빨아 가지고 넣어놓은 것이 인제 청일면 이라는데 날이 청청하고 맑았다.

인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왕자가 그 율무성이라는 그 산에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 피신을 해 가지고 있는데 저쪽 횡성 쪽에서는 산을 도저히 절벽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성의 역할을 하고, 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고기 인제 그 속실리 안에 들어가면 고 율무산 바로 밑에 쪽을 성골이라고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죠. 성골이 있거든요.

(조사자: 성골. 성을 쌓았던 골짜기다. 그런 애집니까?)

그래 성골이라고 지금 거기 사람들 다 성골이라고 부르지요. 율무산이라는 것은 그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둔을 하면서 있다가 이쪽 거 추격하는 군사들이 홍천 쪽으로 그 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뒤에서 후면 공격으로 섬멸을 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이대범 채록, 미발간)

- 삼한시대에 태기왕이 쫓겨 율무성(운무산)으로 들어왔다.
- 갑천에서 갑옷을 빨았다.
- 태기왕이 율무산 부근에 은둔해 있다가 추격하는 군사들에 의해 섬멸당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여섯 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야기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 삼한의(또는 맥국)의 태기왕이 신라와의 싸움에서 패하였다.
- 병사들을 이끌고 태기산(덕고산)으로 도피하였다.
- 성(산)을 쌓고 양식을 비축하고 병사를 훈련하는 등,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추격하는 적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태기왕의 행적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감이 있으나 이상의 서사 구조는 각 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태기왕 전설’이 계승과 변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전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약 30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고, 서로 다른 제보자에 의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①·②·⑦·⑫에서는 이야기의 기본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⑫에는 기본 서사구조 이외에 태기왕의 행적과 관련한 지명 설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견고하게 유지되던 기본 서사구조가 ⑭ - 1·2에 이르러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데 ⑫와 채 1년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제보자의 기억력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이것도 서사구조를 단순화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투쟁’과 ‘패배’의 이야기로 범주화하면 ⑭ - 1·2 역시 앞의 자료와 동일한 계통의 이야기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태기왕 전설’의 발생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태기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태기왕의 실존여부 및 행적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기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취락에서는 공통적으로 태기왕 전설은 물론 태기왕의 행적과 관련된 지명 설화가 적잖이 전승되고 있는 점을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설화의 특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설화의 내용과 관련된 인물과 인물의 행적의 역사적 진위를 규명하는 일이 설화를 이해하는 본령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설화는 상상력의 산물로 허구적인 문학이다. 따라서 설화적(신화적, 문학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인류의 삶은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원시 사회에서 인류는 질병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적 제약과 맞서 싸워야 했고, 이후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분쟁은 물론 국가간의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투쟁은 비단 외부로 향한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 투쟁도 점차 다양화·다기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투쟁은 인류의 보편적 방식이며, 역으로 삶의 보편적 양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쟁은 자연스럽게 문학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명작 중에는 전쟁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역사물뿐만 아니라 민족상잔의 비극을 다룬 전쟁 소설에 이르기 까지 전쟁을 다룬 다양한 문학을 문학 유산으로 갖고 있다.

‘태기왕 전설’도 문학의 보편적인 소재인 싸움(전쟁)을 다룬 설화의 범주로 포함시키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전설의 발생에 대한 여러 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려 또는 조선 시대 말기, 사회적 혼란기에 빈발했던 민중봉기 세력이나 민중의 추앙을 받는 문제적 인물의 실패담을 바탕으로 한 설화화의 기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 및 지배계급의 세계관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박지원의 「허생전」 주인공 허생이 자신의 경륜을 시험했던 ‘작은섬’,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건국했던 ‘율도국’은 모두 ‘성공과 실패’의 범주에서 볼 때 태기왕이 패망했던 ‘태기산’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과 ‘태기왕 전설’은 모두 허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성공담은 문자를 매체로 한 기록문학(제도문학)의 범주로 포괄되고 실패담은 그와 관련된 민중들의 윤색을 거쳐 설화로 구전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인직의 신소설 「은세계」에 등장하는 최병도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원식·서연호 등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은세계」전반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최병도는 이인직이 창조한 인물이기보다는 조선조 후기 탐관오리들의 부당한 학대로 숨진 문제적 인물의 허구화, 또는 실존 인물의 허구화일 가능성이 높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정 감사와 같은 탐관오리는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조선조 후기에는 항존적인 인물이었으며, 그러한 무리들에게 억울하게 재물을 빼앗기거나 살해당한 최병도와 같은 인물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최병도(또는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인물)의 실화 ⇒ 최병도(두) 타령(판소리) 속의 인물명 「은세계」(신소설)의 최병도’의 계보는 태기왕이라는 인물의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태기왕은 민중의 존경을 받는 지역의 문제적 인물

로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맞섰다가 패배한 인물의 허구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태기왕을 추종하는 무리들 중 관군의 토벌을 피해 살아남은 민중들이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행적을 미화하려는 의도로 신분을 격상시켜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태기왕의 행적과 관련된 지명 설화의 내용이 비교적 소상하게 전승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조선조 후기 유랑광대패들이나 의적(義賊)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설화일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조선 왕조는 재정이 궁핍해지면서 재인 광대들을 한데 모아 관장하던 산대도감과 나레도감을 폐지하였다. 이후 여기에 소속되었던 광대들의 일부는 무리를 지어 전국을 유랑하면서 자신들의 재주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남사당의 되었고, 또 일부는 도적의 무리로 변신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조정의 무능과 관리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부조리한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많은 의적들이 등장하여 활동하였다. 대개 이들은 관군의 접근이 어려운 깊은 산중에 산채를 짓고 공동으로 생활하였다. 이들은 보부상들과 연계하여 전국의 상권을 좌우할 정도의 재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은 때로는 관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 관군의 토벌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황석영이 「장길산」에서 형상화한 산채의 무리들과 같은 태기산을 거점으로 활동한 의적의 존재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허구화되는 과정에서 태기왕전설이 등장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이 지역의 사정에 밝은 강담사에 의해 다른 지역의 설화가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야기책이 널리 유통되기 전인 조선조 후기에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민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문이야기꾼의 존재가 있었다. 강담사가 그들인데, 그들은 일정 지역을 활동 무대로 삼아 추수철이 끝나면 농한기에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곡식이나 엽전을 대가로 받곤 했다. 강담사의 이야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현장감을 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을 맺으면서 태기왕전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끝으로 비록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지역에 전승되던 신성한 이야기가 꽤주해온 동학군의 실패담과 연계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주장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쳐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위에서 제시한 설화적 상상력

을 도입한 새로운 접근법은 태기왕전설의 형성 과정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화적 상상력을 도입한 접근법은 상상력이 고갈되어가는 설화문학의 전승 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태기왕의 행적과 관련된 지명 및 설화 내용

○ 갑천 : 삼한 시대에 진한의 태기왕이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추격을 받아 수만 병력을 인솔하고 피난했다. 그는 지금의 덕고산 기슭을 흐르고 있는 주천에서 패주의 몽진으로 더럽혀진 갑주(甲冑)를 씻었다 하여 갑천이라고 했다.

○ 개나리(대관대리) : 태기왕이 어답산에서 이곳(개나리)을 볼 때쯤 멀리 공근면 수백리는 해가 비치는 물의 모습이 흰빛이 완연하여 수백리라 하였고, 멀리 대관대리로부터 일기가 점차 개인 곳, 즉 갠 날이란 뜻으로 청일이라 했다고 한다.

○ 병지방리(兵之坊里) : 진한 태기왕이 신라군에게 쫓겨 어답산에 피난할 때, 북방 방어를 위하여 병사를 모아 방어하던 곳이라 하여 병지방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 공서(세)울(병지방리) : 태기왕이 이곳에 머물 때 세금을 거두어들인 지역이라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병무산(병지방리) : 무자의 훈에 따라 다르다. 兵無山 - 태기왕을 추격하던 신라군들이 산세를 보니 태기왕 병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산위까지 추격하였으나 병사들이 없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兵舞山 - 태기왕의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산 위에서 춤을 추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兵武山 - 태기왕의 병사들이 이 산에서 무술을 연마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병문안(병지방리) : 태기왕이 이 곳 병지방리에서 병사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을 때 병사들이 문안을 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때 지금의 검역소 역할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은전머리(병지방리) : 태기왕이 이곳에서 세금을 받을 때 은으로 받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태기왕이 이곳에 머무를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고 해서 유래된 지명이라고도 한다.

○ 먹해(병지방2리) : 태기왕의 왕명을 받들던 신하들이 정사를 돌보던 곳으로, 글을 쓰기 위해 먹을 갈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동막(삼거리) : 어답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마을로 태기왕이 있는 곳에서 동쪽에 위치하여 있던 막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어답산(삼거리) : 태기왕이 밟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어염골(삼거리) : 태기왕이 군사들을 먹일 소금을 저장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문막이(전촌리) : 태기왕이 어답산에 있을 때 병사들이 이골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제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원수골(석문리) : 태기왕이 태기산으로 가는 데 주력 부대는 청일·갑천을 경유해서 가고, 일부 병력은 둔내로 들어와서 석문리 원수골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갔는데, 당시 인솔자가 '원수' 였다고 해서 원수골이라 했다고 한다.

○ 태기산성 : 태기산성은 청일면 신대리에 있는 고성으로 지금부터 1500년 전 진한의 마지막 왕이었던 태기왕이 신라 박혁거세에게 패해 북으로 몽진을 하다가 이곳 덕고산(나중에는 태기산이라 함)에 이르러 신라와 대항하기 위해 쌓아놓은 성이다.

○ 촛대바위 : 태기산 입구에는 망을 보던 군사가 태기왕이 신라군의 기습 공격으로 패망을 하자 굳어서 촛대모양의 바위가 됐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 옥산대(봉평면 무일리) : 태기왕이 태기산 밑에서 싸우다 옥쇄를 잃어버려서 옥산대라고 했다.

○ 왕바위터 : 태기왕이 그 위에서 고함을 쳤던 바위라 해서 왕터바위라고 했다.

○ 멸원리(면온리) : 태기왕이 신라군에게 쫓기다가 그곳에서 멸(滅)했다고 해서 멸원리(면온리)라고 했다.

○ 삼동거리 : 적군에게 쫓기던 태기왕의 일행이 세 패로 갈라진 곳이어서 삼동거리라고 했다.

○ 안장바위 : 태기왕이 이곳에서 안장을 잃었다고 해서 안장바위라고 했다.

○ 용마봉 : 태기왕이 이곳에서 용마를 잃었다고 해서 용마봉이라고 했다.

○ 투구봉 : 태기왕이 이곳에서 투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투구봉이라고 했다.

○ 왕유리 : 태기왕이 옥쇄를 잊어버리고 내려가다가 너무 기진맥진해서 잠시 쉬었다고 해서 왕유라고 했다.

- 백옥포 : 태기왕이 삼형제 장군과 함께 백옥포리에 왔는데, 병사도 없고 백의 장군이 되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백의로써 옥체를 입고 투신했다고 해서 백옥포라고 했다.
- 소학동 : 태기왕이 골짜기의 모양이 학의 등우리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 봉명 : 태기왕이 지나갈 적에 첫 닭이 울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눈물고개 : 태기왕이 이곳을 지날 적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눈물고개라고 했다.
- 청일면 : 태기왕이 어답산서 내려다보고 아주 흐렸던 날이 맑아서, 맑다고 해서 청일이라고 했다.
- 흑문대 : 태기왕의 병사들이 방어를 위해 막아섰던 곳이어서 흑문대라고 했다.
- 생곡리 : 태기왕 시대에 태기왕 병사들이 피리를 만들어 군호에 사용했다고 해서 생긴 지명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태기산 주변 지역 문헌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채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태기산과 관련된 구비 문학은 설화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설화는 태기왕에 대한 인물 설화와 태기왕의 행적과 관련 있는 지명 설화로 대별할 수 있다.

둘째, 태기산과 관련된 설화는 태기산 산록에 위치한 황성군 둔내면·청일면·갑천면, 평창군 봉평면, 홍천군 서석면 등지에서 고르게 전승되고 있다.

셋째, 태기왕 전설의 경우 채록 시기와 제보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공통적인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채록본에 따른 차이는 ‘싸움과 패배’, 즉 전쟁(투쟁)이라는 상위 범주를 적용할 경우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다섯째, 태기왕전설의 발생 과정을 밝히기 위해 설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① 고려 또는 조선 왕조의 말기, 사회적 혼란기에 빈발했던 민중 봉기 세력, 또는 민중의 추앙을 받는 문제적 인물의 실패담을 바탕으로 한 설화화의 가능성, ② 조선조 후기 유랑광대패들이나 의적(義賊)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설화일 가능

성, ③ 이 지역의 사정에 밝은 강담사에 의해 다른 지역의 설화가 윤색되었을 가능성, ④ 이 지역에 전승되던 신성한 이야기가 패주해 온 동학군의 실패담과 연계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 등의 가설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본격적인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기존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을 제안하는 성격의 소론이다. 따라서 많은 한계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검증과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 6집, 강원일보사, 1986.
강원도민일보사, 강원향토대관, 강원도민일보사, 1999.
강원도청, 강원도의 민요, 2001.
강원향토문화연구회, 횡성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 횡성군·횡성군문화원, 1995
김선평 외, 민속문학이란 무엇인가, 집문당, 1993.
김선평 외, 평창군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2.
둔내면지 편찬위원회, 둔내면지, 1998.
서연호, 한국근대회곡사 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이영식, 횡성의 지명 유래, 횡성문화원, 2001.
장덕순 외, 구비무학개설, 일조각, 1983.
최승순 외, 태백의 설화 (상), 강원일보사, 1974.
최용·김용구 편저, 강원전통문화총서 - 설화편, 국학자료원, 1998.
최원식, 은세계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 횡성군편, 1989.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편, 강원도 땅이름, 1997.
횡성군, 화성의 옛터, 1996.
횡성문화원, 횡성의 구비문학, 2002.
횡성군지 편찬위원회, 횡성군지, 2001.

태기산성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화 방안

김 병 철 /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2.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3. 태기산성 및 주변 지역 현황
4.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 방안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가 대규모의 상품시장을 형성하는 ‘문화의 산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욕구, 소비, 지향성의 확산은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경제 부문에서 문화적 요소가 상품구성의 핵심요소가 되는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는 ‘산업의 문화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경제활동에 문화적 투입요소가 고도화되는 동시에 문화적 요소가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이 되는 문화경제(조명래, 2000)시대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문화산업은 새로운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성장산업이자 경제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고유한 지역의 정체성을 지역문화에서 찾아내고, 그렇게 확인되거나 발굴된 문화적 자원을 문화 산업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문화산업화 전략이 대안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역 문화산업은 지역이 가진 문화적 자원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그리고 그 지역의 이미지와 그로부터 정책적으로 추구되는 특성화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상산업·게임산업·애니메이션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축제와 엑스포 같은 이벤트산업, 테마파크 등과 같은 관광레저사업, 그리고 유적지관광, 전통문화 특구 조성, 박물관 등의 전통문화유산 사업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지역 문화산업은 대단히 폭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이 가진 문화적 자원을 구체적인 장소성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시 문화상품화하는 전략이 지역문화산업의 전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문화산업에 있어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이다.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은 최소한의 물리적 개발과 시설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개발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의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는 경제적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관광이 점차 개별화, 차별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개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관광개발에 반영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화의 기획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자원의 보존·정비 및 개발, 상품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풍부한 지역 문화자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 내에 각종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문화관광상품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문화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문화관광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과 안내·해설제공 체계, 교통과 숙박편의 증진방안 등이 잘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문화관광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비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마케팅 체계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지방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원이나 향교, 능묘, 사찰, 성문이나 성곽, 누정, 사적지 등 각종 유형문화재와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 문화시설들은 그 보전형태나 안내방법, 해설요령 등에 있어 거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는 기존에 산업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들이 가장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역발전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분야, 그것도 역사·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 및 생태관광을 지역발전의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¹⁾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황성군이 보유한 역사문화유산의 하나인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기산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 실현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1) 문화관광대상으로서 문화자원

관광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그 존재 이유를 문화 자원 자체에 두는 형태의 관광을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이라 일컫는다.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협의의 문화관광으로 “공연예술을 비롯한 각종 예술감상관광,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참가, 명소 및

1) 한국관광공사가 1996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7개 지방자치단체(66.6%)가 장래의 주력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지목하였다. 관광산업은 전자·생명공학 등 첨단산업(22.0%), 일반제조업(11.0%), 농업(3.9%)에 비하여 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김정완, 2001)

기념물 방문, 자연·민속·예술·언어 등의 학습여행, 순례여행 등 어떠한 형태이건 문화적 동기에 의한 사람의 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광의의 문화관광으로 "관광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관광객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지식과 경험 및 만남의 기회를 넓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관광이동은 문화관광" (한국관광공사, 1995: 16)이라고 정의하였다.

Stebbins(1997: 490)는 문화관광을 "심미적·정서적이고 지적인 성격을 갖는 새롭고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추구하고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험적 관광의 한 형태"로 정의하였다(김상우, 2000: 41에서 재인용).

오늘날 관광산업에서 문화관광은 성장세가 가장 빠른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징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Lou Harris에서 실행한 한 조사에 의하면 1980년대만 해도 여행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문화,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관광객들이 30%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50%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 실시된 미국여행산업협회(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TIAA)가 행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관광객들의 동기 중 "다문화의 이해"의 중요성은 1980년대에는 50%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거의 90%까지 급증하였음을 보여준다(이봉구, 2001).

우리 나라의 경우 이제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문화관광 수요가 적은 편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역사문화유산, 역사문화인물과 연관된 장소, 고전이나 전설의 배경, TV드라마 작품의 배경지 등을 찾아가려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관광이 문화지식을 확충하고 새로운 문화체험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정보습득과 현장학습활동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임제해,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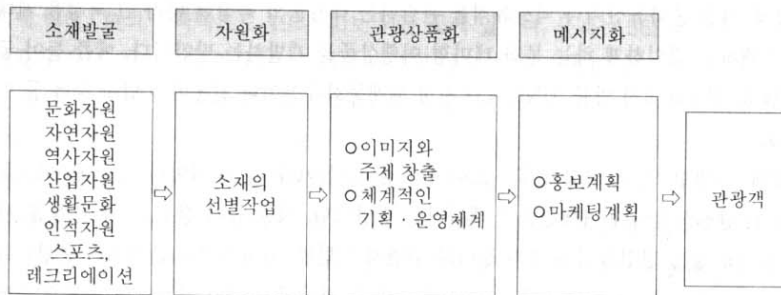
문화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원은 역사유적, 건축물, 조경 등의 유형문화는 물론 생활, 풍습, 언어, 전통, 예술 등의 무형문화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역사성이 있는 역사 문화자원은 물론 현대의 예술, 삶의 방식, 건축물, 도시 등 모든 것이 관광의 대상으로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자원은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시켜 어느 지역으로 방문을 유도할만한 문화관광자원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발휘하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한 것이 문화관광 분야이기 때문이다.

2)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일반적으로 관광자원화는 소재 발굴, 자원화, 상품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소재 발굴은 상품화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이며, 지역 내의 모든 유·무형 자원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조사·개발하는 단계이다. 자원화의 단계는 발굴된 소재를 소구력(訴求力)의 크기에 따라 선별하는 과정이며, 상품화의 단계는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상품을 구성하는 단계로서 이때 차별성과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상품화의 단계를 거친 관광상품은 시장(관광객)에 소구되는 메시지화의 과정을 거쳐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 매력물이 된다. 시장에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하는 메시지화 과정은 상품화 과정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1〉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과정

문화자원 역시 이와 같은 관광 상품화 과정을 거쳐 문화관광상품이 되며, 이는 문화자원의 문화적 요소와 관광적 요소를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문화와 관광의 접목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자원 중에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둘째, 관광적 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상품을 기획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관광자원의 주제 및 이미지를 설정하고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자원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연계 관광시설과 숙박, 교통, 식음, 쇼핑, 오락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자원을 매력 있는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김정완, 2001: 144-145; 김향자, 2001).

첫째, 기존 문화자원의 복원, 정비, 재개발 등에 의한 관광자원화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주로 역사성이 있는 유적지, 고건축물의 정비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 등의 재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매력물로 개발해 나가는 방법이다.

둘째,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신규개발에 의한 관광자원화로서, 주로 도시내의 박물관,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 개발이 해당되며, 기존의 문화적 요소를 인공적으로 건조한 민속촌 등과 같은 모델컬처(model culture) 시설개발 방법이다. 용인 민속촌, 공주·부여의 백제역사 문화촌 조성, 인천 중구의 차이나타운 재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각종 문화유산이나 역사유적을 관람하는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문화 테마형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궁궐 탐방, 전쟁유적지 방문,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나 전통마을 답사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유명한 인물, 영화나 TV 드라마 작품, 소설이나 시,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을 활용한 관광시설이나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장보고, 송강 정철, 다산 정약용 등 유명인물의 유적지 정비와 주변지역 탐방, 남원지역의 춘향제와 춘향테마파크, 흥부마을 및 국악성지 조성, 소설 '토지'의 하동군 평사리 최참판댁 복원과 주변 지역 정비, 전남 영암의 소설 '아리랑'과 연관된 아리랑 문학관 건립 및 아리랑 문학기행 코스 개발, 평창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문학관 건립, 영월 김삿갓 유적정비 등, 또한 '모래시계'와 정동진, '올인'과 제주도 등과 같이 영화나 TV드라마 속의 배경지 방문 또는 영화촬영장 활용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이 보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독특하고 매력적인 축제나 이벤트를 개

발해 판매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상품개발에 의한 관광자원화로 기념품 개발을 들 수 있다. 지역별로 독특한 특산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문화를 잘 알려 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3. 태기산성 및 주변 지역 현황

1) 태기산성 현황

태기산성은 황성군 청일면, 둔내면과 평창군 봉평면의 경계를 이루는 태기산에 위치한 고성(古城)이다. 대략 해발 750~1,000m 정도 되는 고지에 축성된 이 성은 진한(辰韓)의 태기왕(泰岐王)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게 쫓겨 태기산(泰岐山)에 들어와 성을 쌓고 방어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는 이와 관련된 지명이나 전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황성군(1995)에 따르면 조선시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는 태기산성에 대해 '현의 동북쪽으로 49리 50보 되는 곳에 있으며, 둘레는 568보 5척이다. 시냇물이 한 곳에 있는데 장류(長流)하여 마르지 않는다. 또 군창(軍倉) 5칸과 관청 2칸이 있다'고 하여, 조선 초기에는 이 산성이 방위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석축이며 둘레는 3,653척이다. 안에는 우물 한 곳이 있으며 군창(軍倉)이 있으나 지금은 반쯤 퇴락하였다'고 하여 점차 산성으로의 기능을 상실해가면서 산성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졌음을 짐작케 한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금폐(今廢)'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현재의 무너진 산성은 조선중기 이후 퇴락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태기산성은 종전의 기록에 의하면 3,653척이었다고 하였으나, 실측에 의한 총연장은 1,840m이다. 산성 안에는 비교적 큰 능선 하나를 끼고 있고, 수량(水量)은 많지 않으나 시냇물이 한줄기 흐르고 있다. 또 내부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서는 석축의 흔적과 다듬은 석재가 발견되어 세종실록 지리지나 기타의 기록에 나오는 군창(軍倉)이나 관청

지(官廳址)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나 규모는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추정할 수 없다. 동남쪽의 망대지(望臺址)로 보이는 곳부터 동문(東門) 방향의 석축은 대체로 무너져 내렸으나, 남문지(南門址) 주변은 비교적 축성된 형태가 잘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석축으로 볼 때 이 산성의 축성 폭은 대체로 100~110cm이며, 높이는 급경사나 절벽지형을 끼고 있어서 적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은 낮게 축성하고, 완경사 지역과 적의 접근이 용이한 곳은 높고 견고하게 쌓았다.

태기산성으로 접근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일면 신대리 버스종점에서 송덕사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합수(合水) 지점에서 오른쪽 골짜기를 따라 나 있는 태기산 등산로를 이용하여 약 3km 정도 가면 태기산성터가 나온다. 태기산성을 지나면 태기분교터가 자리잡고 있다. 다른 하나는 횡성군 둔내면에서 평창군 봉평면으로 넘어가는 양구두미재 정상에서 북쪽으로 난 일부 포장길을 따라 태기산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서 신대리로 하산하는 등산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태기산성으로 접근하는 기점이 되는 두 곳 모두 교통편은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청일면 신대리는 일반 버스,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 태기산 입구까지 약 2km 정도를 도보로 이동해야만 한다. 한편 양구두미재까지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으므로 둔내면 소재지에서 택시를 타고 접근할 수밖에 없어 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태기산성이 위치한 태기산은 높이 1,261m로 특히 주변 조망이 뛰어나다. 일찍이 태기산 정상은 둔내 11경 중 태기백운(泰岐白雲)이라 하여 오묘한 조화가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나 현재는 군사시설로 인해 정상에는 접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태기산 정상부에 오르면 서쪽으로는 운무산, 남과 북으로는 봉복산, 청태산과 구룡덕봉이 보인다. 특히 서쪽으로 전망이 활짝 트여 있어 저녁 무렵 이 곳에 오르면 내륙으로 지는 석양의 노을을 감상하기에 일품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펴낸 『한국의 가볼 만한 곳 100선』에도 일몰감상코스로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겨울철 양구두미재의 설화, 상고대의 눈부신 풍경을 감상하는 겨울여행코스로 추천할 만 하다.

2) 태기산성 주변 현황

태기산성의 등산로가 시작되는 청일면 신대리는 가구수가 72호이며 약 19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주요 농특산물로는 쌀, 감자, 콩, 찰옥수수 등의 농산물과 더덕, 도라지, 인삼, 오이 등의 특산물이 있다.

청일면 신대리는 농업자원과 자연경관(산림자원)이 조화를 이루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오지체험농장 조성(신축 45평 3동, 체험농장 부지 10,000평 확보), 마을 입구~태기산 입구까지 2km 가량 산악자전거 도로 설치, 삼림욕장 3,000평 설치, 전통손두부, 더덕요리, 뽕잎국수, 메밀국수 등 향토음식 판매를 위한 향토음식점 설치(1동 55평) 등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태기산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봉복사, 송덕사, 신대리삼층석탑 등이 있으며, 인근 평창군 봉평면에 이효석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9월 초에 효석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4.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 방안

1) 관광자원화의 전제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는 단순히 태기산성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를 관광이라는 틀로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태기산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는 지역개발의 종합적 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내 문화자원의 개발이 단위 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주변지역과의 조화, 지역 내 산업과의 연계 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 역시 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관리 계획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각 지역에서는 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다. 점차 성장하는 시장으로부터 최대한의 몫을 얻기 위해

서는 문화관광에 참가하는 (잠재)관광자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시설계획과 함께 관광프로그램, 홍보·마케팅 계획 등이 동시에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관광 개발은 지역의 공유재산인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참여는 문화자원의 개발 및 활용 방식에 대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발과정에서도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 관심사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개발(community based development) 방식으로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두고 개발의 추진방법은 지역성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며, 개발의 주체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철저히 지역중심의 관점에서 태기산성만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성(locality)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자원의 개발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지역 문화자원의 개발관련 주체는 지역주민, 지방정부, 관련사업체, NGO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는 관련 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추진될 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는 축적된 문화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문화·예술, 지역개발, 관광, 경영 등의 각계 전문가의 공동 참여가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 방안

(1) 태기산성의 정비 및 복원

지역의 문화자원이 관광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의 대상이 되는 문화자원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관광매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퇴락한 상태에 있는 현재의 태기산성으로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과

유인력을 갖기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기산성을 효과적으로 관리·개발하고 다양한 방식의 활용을 통해 관광매력을 창출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태기산성의 정비 및 복원이다. 태기산성에 대한 정확한 발굴 조사 작업을 통해 태기산성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태기산성의 정비 및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발굴 조사 작업에 기초하여 태기산성이 최소한의 관광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성벽 및 주변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남문지(南門址)를 중심으로 성벽을 정비하여 산성의 모습을 일부 재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변환경의 정비에는 태기산성의 역사성과 시대성에 어울리는 경관 정비와 함께 태기산의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의 건립과 산책로 정비 등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태기산성과 같은 역사문화유적은 그 역사적 원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 문화적·관광적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기산성의 성벽 및 관청 등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산성의 복원에는 많은 시간과 재정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에 따른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부분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진 청주 상당산성, 부여 부소산성, 고창읍성, 해미읍성과 같은 경우 비교적 인구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성 복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태기산성은 인구가 희박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태기산성의 이미지 연출

태기산성의 관광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태기산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연출이 요구된다. 산성·읍성을 활용한 문화관광의 경우 대부분 똑같은 모습을 창출하는데 그치고 있어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독특성과 희소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태기산성의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기산성의 특성을 통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스토리화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기초하여 이미지 연출의 컨셉과 주제를 설정하고 ① 상징적 요소의 연출, ② 주변경관의 연출, ③ 이동공간의

연출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태기산성과 연관된 ‘태기왕 전설’을 이미지 연출의 주제로 설정하고 이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화 하며, 이를 구체적인 상징물, 경관, 이동공간 등의 연출을 통해 재현하여 태기산성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명소로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태기산성 위쪽의 태기분교 터를 태기산성 역사체험장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태기산성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문화관광상품 개발

태기산성의 관광객 유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태기산성과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된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신대리 기준으로 연간 방문객은 약 1만여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 확대 및 창출을 위해서도 이러한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이봉구, 2001). ① 비슷한 유형을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예: 박물관과 박물관의 결합).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체류 연장 및 지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문화자원들을 결합하는 방법(예: 축제와 박물관 혹은 각종 전시회).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소구할 수 있게 되고 문화자원간 발생할 수 있는 경쟁가능성을 감소시키며, 경험 전달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③ 문화자원과 다른 자원과의 결합을 모색하는 것(예: 휴양지 방문객에게 박물관 입장료 할인하고 박물관에 토산품 판매점 설치 등). 이 방법은 자연자원이 주가 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또한 공동마케팅 노력을 통해 마케팅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기산성을 활용한 개발가능한 관광상품은 주로 태기산성과 성격이 다른 자원의 결합을 모색하는 것이 관광매력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농촌체험관광의 기반을 굳혀나가고 있는 신대리의 농촌관광체험과 태기산성의 역사문화체험을 결합한 관광상품, 또는 태기산 등산체험과 태기산성 역사체험을 연계시킨 관광상품 등이 가능한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문화관광상품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교통 및 숙박, 안내정보체계 등의 부수적 시설이나 여건을 정비·확충하는 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태기산성과 연관된 문화해설체계 구축

지역의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선행요건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해석작업을 통하여 이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설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역 문화자원은 잠재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거나, 역사적 관점에서 가치의 해석이 미비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태기산성 역시 산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해 태기산성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확한 해석작업이 선행된 후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설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태기산성의 문화해설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안내자의 육성과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태기산성 및 주변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원해설봉사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 시스템의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로는 서울의 '겨레문화답사연합'에서 진행하였던 '궁궐지킴이' 사업을 참고할 만하다. 겨레문화답사연합에서는 퇴직교사를 중심대상으로 서울의 5대 궁궐에 대한 자원 안내봉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원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전문강좌와 현장교육을 마친 후 이들을 궁궐지킴이로 활용하여 각 궁궐별로 관광안내와 보호활동, 문화유산 보호모니터링 등의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고정된 장소에서 일사적인 프로그램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문화관광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5. 맺는 말

상대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횡성군의 입장에서 태기산성은 매우 가치 있는 역사문화자원이며, 따라서 이의 보존과 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문화관광자원화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태기산성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태기산성의 정비 및 복원, 태기산성의 문화적 이미지 연출,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문화해설체계 구축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일차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는 무엇보다도 그 자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연구작업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태기산성에 대한 조사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태기산성의 정확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 역시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태기산성의 구체적인 관광자원화에는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자원과 지역산업, 관광산업 등과 결합하여 지역의 문화를 정비하고 자원을 다양하게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행구,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영산강 유역 고분(古墳) 자원을 대상으로」, 『광주전남비전21』31호,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1, 139-161.
- 김상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의 전략적 과제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 제5호, 2000, 39-56.
- 김정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 방안」, 『광주전남비전21』 30호, 2001, 131-150.
- 김향자,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컬처링크 아태지역 전문가 세미나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원발전연구원, 2001.
- 이봉구, 「문화 관광 마케팅에의 접근 전략」, 『컬처링크 아태지역 전문가 세미나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원발전연구원, 2001.
- 임재혜,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자원화 구성」, 『대구경북개발연구』 제3호, 1999, 221-257.
- 조명래, 「문화경제화와 문화도시계획」, 『도시연구』 제6호, 한국도시연구소, 2000, 115-130.
- 차장섭, 「오호리 산성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화 방안」, 『요전산성 학술세미나』 자료집, 삼척문화원, 2002.
-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의 개념과 발전방향」, 『관광정보』, 1995, 21-30.
- 황성근, 『황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5.

V. 어사매 문화마당

• 향토문학 동호인 작품

■ 산문

■ 수필

■ 시

■ 한시

■ 유적답사 기행문

■ 전통문화체험기

우리 산 이야기

김 승 기

언제부터인가 산에 취미를 갖게 되면서 주말이면 자주 산에 오른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을 등반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치악준령이 가지 친 크고 작은 지역의 산을 오르는 것도 큰 기쁨이 되었다.

물론, 전국적인 명산 마냥 수려한 산세도, 기암괴석이 있거나 힘찬 물줄기를 뿜어내는 폭포가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계절마다 철쭉이나 단풍이 지천인 풍광 좋은 산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새로운 산에 오를 때마다 전인미답의 신대륙을 발견한 듯 희열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깊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산행을 하기 전에 산에 대한 역사 또는 내력을 조금이나마 알고 간다면 산과 또 다른 대화를 나누며 다가갈 수 있다. 물론 동, 식물 따위의 생태계에까지 관심을 미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태기산, 어답산, 병무산, 운무산, 덕고산 등등 산들도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에는 나름대로 이력을 달고 있다. 비록 이름 없는 산일지라도 역겹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비화(秘話)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산이 품고 살아온 내력을 안다면 좋고, 모르더라도 산행을 하면서 산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고 그 깊은 과거로 거슬러 여행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알고 있거나 산과의 대화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고 여운이 남는 것들을 모아 보았다.

물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확한 것인지는 단언 할 수 없지만 혹 산에 오르다가 힘겨워 한숨 고를 때 떠올려 본다면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영욕의 역사가 교차하는 산 - 어답산

거리상이나 지형상 우리고장에서 가장 즐겨 찾고,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산이 어답산

(御踏山:표고 789m)일 것이다. 주변에 온천도 있고, 정상에 올라서면 한눈에 횡성댐을 조망할 수 있다. 댐 주위 어느 곳에서도 댐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없지만 이곳 정상에 올라보면 왜 저수지가 아니라 댐으로 불리는지 알게된다.

이름 그대로 임금(御)께서 밟(踏)고 지났다고 해서 유래된 산이다. 전설은 삼한의 하나인 진한(辰韓)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泰岐王)이 신라에 패해 몽진 길에 지났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패퇴하는 진한의 군사들을 추적하던 신라의 박혁거세(朴赫居世)왕이 지났다는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두분 다 임금인데 어느 분이면 어떠랴, 어찌면 두분이 다 지났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 정상에 올라 드넓게 펼쳐진 산하를 굽어보면서 한번은 몰락하는 왕조의 임금이 된 가슴으로, 다른 한번은 신흥왕국으로 부상하는 왕조의 임금의 눈으로 보라. 천하가 상반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설에는 정상에 오른 왕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날씨였다고 한다. 왕이 “개인 날”이라 감탄한데서 비롯된 지명이 오늘날 “개나리”라는 지명이 어원이 되었고 이를 한문으로 바꾸니 청일(맑을靑날日)이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날씨가 쾌청했던들 패퇴자의 눈에는 그리 맑아 보이지 않았을 터이니 아마도 승자편에서 보아야 옳을 것 같다.

한편, 청일이라는 지명이 황구출처(黃拘出處)라는 전설의 “개나오리”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니 참고 할 만하다. 지금 청일이라 불리는 땅들이 지금은 갑천면의 땅이 되었고 청일면은 옛 갑천의 땅들을 차지하고 있으니 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의 소리가 들리는가 - 태기산

횡성에서 가장 높은 산은? 또는 횡성에서 가장 유명한 산은? 이란 질문에 우리 대부분이 태기산(泰岐山)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치악산(稚岳山)이어야 한다.

태기산은 표고가 1,261m이고 치악산은 표고 1,288m이며,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횡성군의 영토이다. 뿐만 아니라 치악산을 업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이란 족쇄에 힘겨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룡사 탓인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원주의 산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

그럼에도 황성 사람들 태반이 국립공원 치악산에 대한 권리나 자부심과는 거리가 먼 듯 하다. 치악이 우리의 산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강림면 부곡리에서 고둔치(곰은치⇒直峙) 코스로 정상을 올라보자.

그러면 왜 치악이 황성의 산인가를 실감할 것이다. 치악산을 황성의 산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명한 국립공원이니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태기산은 치악산 비로봉(일명 시루봉)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니 어답산의 전설과 이어지는 태기산은 황성의 대표적인 산이다. 하지만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나 고문헌 어느 곳에도 덕고산(德高山)산과 덕고산성은 있으나 태기산이란 표기는 없다. 이 문제는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주1)

태기왕은 몇 안 되는 병사를 거느리고 어답산을 지나 태기산으로 피신하여 산록에 우물을 파고, 성을 쌓고, 군창터를 만들어 군사를 조련하며 4년을 절치부심 하던 끝에 이곳까지 추격해온 혁거세와 일전을 가졌으나 다시 패전한다.

그는 병사들을 잃고 한을 품은 채 유량의 길을 떠나고 혁거세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고 하산하던 길에 계곡에서 피로 물든 갑주를 씻었다하여 갑천이라 부른다. 갑천면에 속했던 것이 지금은 청일면 갑천리가 되었으니 헛갈릴 수도 있겠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산 뒷편에 위치한 평창군의 전설로 내용이 같고 태기왕도 존재하지만 진한과 신라가 아닌 예(濊)국과 맥(貊)국의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전설이니 진실을 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옛 성터에는 산성 표석과 주위로 이끼 낀 돌들이 흩어져 있고, 수십 여 년전까지 화전민들이 거주했던 집터에는 역새가 옷자라 실감 할 수 없지만 귀 기울이면 어디선가 함성이 들려 올 듯도 하다.

또 하나 6번 국도 쪽으로 조금 하산하면 시멘트 주춧돌과 산상의 거센 바람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키 작은 잣나무가 심겨져 있는 너른 공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70년대까지 산 위에서 마을을 이루고 집단으로 약초를 가꾸던 화전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터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농촌이 공동화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학교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니 한번쯤은 돌아 볼만하다.

시누대 숲엔 천년고찰의 숨결이 - 봉복산

봉복산(鳳腹山:1,022)은 우리 군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전통사찰인 봉복사(鳳腹寺)의 배후에 위치한 산으로 산의 유래는 봉황이 배를 하늘로 하고 누워있는 형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봉복사의 옛 이름은 봉복사(奉福寺)였다고 한다.(주2)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이 절은 한때 해운암(海運菴)등 많은 말사와 암자를 거느린 대가람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작은 암자처럼 초라하기만 하다.

대웅전은 6.25전쟁으로 소실되고 지금의 대웅전은 전후에 요사채를 복원하여 급한대로 사용한 것을 아직도 중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옛 모습대로 하루 빨리 복원하여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꽃 피우는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본다.

등산로를 따라 이어지는 계곡과 작은 소, 그리고 솔밭과 시누대, 철쭉길을 따라 걷는 산행도 좋고, 봄철에는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도 특별한 재미이지만, 나름대로 천년 역사를 간직한 사찰 부근의 신대리 5층 석탑이나 이름 모를 고승들의 고색창연한 부도탑과 부재들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봉복사와 신대리석탑, 송덕사 등에 관한 많은 전설은 기회 있을 때 들어 보기로 한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비록 사찰은 퇴락했으나 경내에 들어서기 전 산문 주위의 경치가 백미이다. 푸른빛이 감도는 봄이나, 숲이 무성한 여름이나,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이나, 고즈넉이 눈이 쌓인 겨울이나 과연 천년사찰은 무언가 다르구나 하는 운치와 아름다움으로 다가선다.

황장목(黃腸木)으로 쓰였을 만한 노송과 아름드리 굴참나무 군락 사이에 수십 명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과 오래 전부터 위장병에 특효라고 소문났던 약수가 있어 행자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더욱이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항상 맑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심산유곡에서 흘러내리는 계곡 물이 산행에 지친 땀과 피로를 씻어준다.

이 산에는 발목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도 늘 푸름을 잃지 않는 시누대(山竹)가 유난히 많다. 시누대는 60,70년대까지만 해도 쌀을 이는 조리(복조리)를 만들던 재료로 이용되었다. 복조리는 절과 이마를 맞대고 사는 산촌마을 사람들의 짭잘한 돈벌이 수단이었다.

조리가 주방의 필수품이었던 시절과 정초에 복조리를 팔고 사며 복을 빌던 시절에는 신대리마을이 “복조리 마을”로 불릴 만큼 유명세를 탔지만 얼마전 이 마을에 들러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조리를 만드는 사람은커녕 복조리에 대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안타까웠다.

조리를 만들 때 쓰이는 도구를 다 버렸기에 재현이 어렵고 재현한다 해도 판로도 없단다. 물론, 돈이 안되기에 단절된 문화이고 유산이겠지만 잘 생각하면 돈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겠다는 아쉬움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구름에 가린 듯 신비를 간직한 - 운무산

운무산(雲霧山:표고 980m)은 태기산을 중심으로 북서에 위치한 산이다. 다른 산이 주로 평창군과 경계를 이룬다면 이 산은 홍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름 그대로 사계절 구름과 안개에 가려져 있다는 산이 되겠으나 구름과 안개에 가려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신비롭거나 높은 산은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여러 산과 그 지맥들에 가려져 멀리서 조망할 수 없기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구름에 가려진 듯 보기 힘들다고 운무산이라 이름하였는지 모르지만 멀리서는 볼 수 없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산이다.

태기산에서 꽤한 태기왕이 이곳에 피신하여 마지막 항거를 하기 위해 운무산성(일명: 울무산성)을 쌓고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과 기거하였으나 하늘의 뜻이 자신에 다다르지 않음을 탄식하며 어디론가 방랑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 산행 중에 목을 축일 겸 마신 술로 인해 산정에 오래 머물며 운무산성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태기왕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고 그 후 종적은 알 길이 없다.

일설에 의하면 고구려 혹은 궁예 활동했던 시대에 축성되었고 돌로 쌓았으며 성의 크기는 2정보 정도로 우물과 농경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으니 전설로 남겨 두자.

운무산은, 횡성의 산은 기암괴석이나 특별히 등산하는 맛이 나는 산이 없다는데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산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지방도에서는 물론, 속설리마을 깊은 산 중턱에서도 비경은 숨어서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다.

산에 오르면서 산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산의 매력이다. 수리봉, 문바위, 선바위 등 암봉이 절경을 이룬 이 산의 단풍이 설악산 단풍과 비견할 만하다고 하여 누군가는 “작은 설악산”이라고 극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울창한 침엽수와 관엽수림을 지나 기암괴석을 타고 하늘에 닿는 석벽을 기어 오른 후 천연의 전망대에서 가을 운무산의 단풍을 보노라면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그래서 운무

산은 추천하고 싶은 횡성 최고의 산이다.

산행 후에 맑고 찬 계곡수에서 자란 싱싱한 송어회를 맛보는 것도 별미이다.

그 밖의 산들

공근면에 소재한 오음산(五音山)은 홍천군과 경계인 삼마치 정상부근의 산으로 산세가 수려하다고 하나 공근면 삼배리 방면의 군사도로로 오른 기억이 있는데 정상부까지 신작로라 해야할 길로 오르다 보니 산을 타지 못해 이 산만이 주는 별다른 감명을 받지 못했다.

다만, 오음산이란 지명은 이 산에 각기 다른 다섯 가지 소리를 내는 산짐승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고 해서 유래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지금은 야생동물의 남획으로 다섯 가지 짐승이 살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금은 정상부에 위치한 중계소에서 5개국의 국어의 교신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다섯 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평창군과 경계인 문재 정상에서 오를 수 있는 백덕산은 중앙지의 등산안내에 매주 거르지 않고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산이나 횡성, 평창, 영월이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산이라 소속을 단정짓기 어렵지만 산행의 시작이 횡성 땅이니 한번 올라 볼만하다. 특히 눈이 두텁게 쌓인 한 겨울에 제 맛이 난다. 한번의 산행으로 3개군 땅을 밟아 볼 수 있는 것도 묘미다.

우천과 안흥의 경계인 전재의 주봉인 매화산은 산세와 풍광이 좋지만 국립공원의 치악산의 일부로 등산로가 폐쇄되어 원칙적으로 등반이 금지된 산이다.

청일면의 많은 고산 중의 하나로 군내 제일의 폭포인 봉명폭포가 있는 병무산(표고 902m)과 발교산(표고998m)은 올라본지 20여 년이 지나서 언급하기 어려워 이 산들이 간직한 전설과 함께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밖에도 근교에는 성지봉, 횡성 덕고산 등 많은 산이 있으나 이 역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주1)

동국여지승람 횡성현

【山川】 덕고산 - 현의 동쪽 82리 강릉부 경계에 있다. 【城郭】 덕고산성 -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653척이다. 안에 우물 하나가 있고 군창(軍倉)이 있다. 지금은 반쯤 퇴락하였다
세종실록지리

덕고산성 - 횡성현 동북쪽으로 49리50보 되는 곳에 있으며 둘레는 568보 5척이다. 시
냇물이 한곳 있는데 장류(長流)하여 마르지 않는다. 군창 5칸과 관청 2칸이 있다.

조선각도읍지

【城址】덕고산성 - 관문에서 동쪽으로 70리 덕고산에 고성(古城)이 있는데 돌로 쌓았으며 둘레
는 3,653척으로 그 안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폐했다.

【山川】덕고산 - 현의 북쪽 70리에 있고 강릉 오대산까지 서쪽으로 120여리이고 북쪽으
로 홍천 경계 홍장산(洪腸山)과 접하고 봉복사가 있다.

이상의 기록과 여지도에 금폐(今廢)라 된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까지는 군사적 요충지
로 성곽등 실제 군사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2)

동국여지승람

【佛宇】봉복사(奉福寺) - 덕고산에 있다.

조선각도읍지

【寺刹】봉복사(奉福寺) - 현의 북쪽 70리에 있다.

(주3)

황장목(黃腸木) - 궁궐에서 쓰기 위한 질 좋은 소나무를 일컬으며 나무의 수심부분이 단
단한 심재부를 취하여 조제한 목재로는 왕실의 신관을 만드는 재궁용(梓宮用)으로 쓰였
으며, 조선초기부터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황장금표(黃腸禁標)를 세워 관리하였으
며 치악산 입구에 소재한 금표가 유명하다.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이 효 자 / 횡성읍 읍상3리

癸未年 5月6日 입하(立夏) 날씨:맑음

태압 감아 놓은 시계처럼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들녘에 파종해 놓은 씨앗들이 궁금 해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습니다. 봉투에다 제 각각 이름을 적어 담아 두었던 종자들을 밭에 내다 심었더니 벌써 고개를 내밀고 싹을 틔운 것들도 있습니다.

들녘에 마련한 제 밭은 참깨가 다섯 망이고 종묘상에서 모종을 사다 심은 청랑고추가 길게 두줄입니다. 나중에 들깨 모종을 하려고 간격도 넓게 두었습니다. 고추나방은 들깨향을 싫어 하기 때문에 사이에 들깨를 섞어 심으면 고추에 기생하는 벌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꾸자꾸 욕심이 생겨서 넓은 콩밭은 시력 탓도 있지만 눈이 모자랍니다.

택지조성을 하기 전에 우리 땅이던 터를 짐작으로 해서 그곳에 임시밭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제 밭이긴 하지만 횡성읍 읍마택지로 명칭이 바뀌었고 땅주인도 한국토지공사가 되었습니다. 제 밭은 아파트 부지 자리인데 분양이 될 때까지 농사를 지을 계획으로 2년째 밀거름을 내고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제 밭 왼편으로는 일반택지 자리인데 이름 모르는 여인이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늘 맨발이었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맨몸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녀는 마치 풀의 먹살을 잡고 싸우는 자세를 취하고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맞서 바랭이 풀을 뽑던 어느날 그녀는 밭으로 이웃이 되는 저에게 속내를 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외동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증권에 손을 댔다가 어마어마한 카드빚을 지는 바람에 그녀가 살고 있던 집까지 다 내어주고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빈땅이 있다기에 와 봤더니 숨통이 트인다고 했습니다. 읍마택지 땅이 아니었으면 원일 났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흙에 나 앉으니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가라 앉았다고 했습니다. 하기가 흙은 가시돋힌 밤송이 하나도 밀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날 세운 유리조

각 하나도 다 보듬어 안고 식여주려 합니다. 흙은 말 없이도 화난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 주었나 봅니다. 그녀는 흙에서 무사히 큰 고비를 넘기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었나 봅니다. 생명에 대한 공경심을 일깨웠기 때문에 아픈 마음이 쉬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십년 연상이지만 그녀와 저는 새참을 나누어 먹으며 콩밭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 이내가 읍마택지 일대를 잠포록히 물들일 때까지 들판 한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7월16일 초복(初伏)날씨 : 맑다가 밤에 비

수만평의 읍마택지는 빈 땅이 한칸도 없었습니다. 옥수수, 율무, 땅콩, 수수, 녹두, 결명자와 갖가지 채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농작물 전시장 같았습니다. 몇 년전 감정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언성을 높이던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거대한 농작물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오이 한줄 심어 놓고 출근할 때 돌아보고 퇴근해 와서 또 돌아보는 젊은 부부도 있고, 호박을 옥수수처럼 촘촘히 심어 놓은 초보도 있고, 섞어짓기(혼작)와 돌려짓기(윤작)을 해가며 풍, 흉년에 대비한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섞어짓기와 돌려짓기를 잘하면 병충해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흙과 풀과 계절을 잇고 살던 사람들이 저마다 호미와 삽을 들고 나와 새생명을 불어 넣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땀방울 맺힌 얼굴들은 모두다 행복한 얼굴입니다.

기쁜 마음들입니다. 물론 가을이 되면 수확의 기쁨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흙과 만나고 이를 통해 생명을 기르고 돌보는 일이 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해진 운동화 끈을 여미고 나온 사람들은 몇평의 땅에 작물을 가꾼다는 의미를 넘어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 만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온 들녘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생명의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났습니다. 종 모양의 흑임자 꽃에는 벌레들이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고 읍마택지 일대는 꽃밭이 되었습니다.

제 밭 오른편에는 배불뚝이 새댁이 2년에 걸쳐 청도라지 꽃과 백도라지 꽃을 조화롭게 피워 놓았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하얀 고추꽃을 눈송이처럼 피워 놓고 그 밑에서 찻물 고

추를 따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잘 말려서 금줄에 매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꽃잔치가 벌어진 음마택지, 또 한편에선 신비의 꽃이 피었다고 술렁거렸습니다.

사람이 몰린 쪽으로 가 보니 난생 처음 보는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구마는 꽃이 없는 식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꽃을 만져 보는 사람에 향기를 맡아보는 사람에 신기해서 야단들이었습니다. 꽃 모양은 나팔꽃과 비슷하기도 하고 꼭 같기도 했습니다. 색은 옅은 보랏빛이면서도 분홍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얼추 보아서 철순이 넘으셨을 한 할머니가 몇해 전에도 어느 시골서 고구마 꽃이 핀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꽃도 사람처럼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인지 봄에 피고 가을에 또 피는 진달래도 있고 제 철에 피고 국화철에 또 피는 민들레도 있다고 별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본적이 없는 꽃을 피운 고구마 넝쿨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보잘 것 없는 고구마지만, 자기 태어난 땅이 등기 부상에 전(田)이 아니고 택지(宅地)내의 정원이란 걸 알고 꽃을 피워낸게 아닌가 하여 더 신비스럽고 경이로웠습니다.

다음날 퇴근해 온 남편과 딸아이에게 보여주려고 서둘러 밭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같이 꽃은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소문나면 구경꾼들 몰려들고 그리되면 주위의 농작물이 피해(짓밟히는) 볼 것을 염려해서 다 따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돌연변이로 피어난 신비의 꽃을 지기도 전에 따버린 사람들이 야속했습니다. 다행히 군대간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사진 한 장 찍어 놓은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안완식 선생님이 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종자>란 책에 보면 고구마는 나팔꽃과 같은 속에 속하는 작물이지만 꽃이 피기 어려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팔꽃을 대목으로 해서 고구마를 접 붙이고 낮의 길이를 짧게 하는 차광재배를 하게 되면 나팔꽃이나 메꽃과 비슷한 꽃을 피게 할 수 있어 새로운 품종을 육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고구마의 앞에서 광합성한 전분이 지하부인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여 지상부의 탄소와 질소의 비율(C/N)을 조절하고 단일처리함으로서 개화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9월 23일 추분(秋分) 날씨 : 맑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날, 들에는 행복을 케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수확기에 접

어든 들녘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농사란 기쁨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른 봄부터 새들과의 전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고개를 밀고 올라오는 콩깍을 한 알만 먹는게 아니라 모조리 전멸시키다시피 하는 비둘기와 까치떼 쫓으랴, 잡초뽑으랴, 농번기 내내 고단했습니다.

그래도 자연과 함께 땀흘리다 보면 배워지는 것도 있고 터득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이 못하는게 없다고는 하지만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는 못합니다. 또, 농사란 기술과 투자로서 가능한 산업이 아니라는걸 배우게 됩니다. 농사는 그야말로 고도의 감각과 경험과 철학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농부 혼자 서두르고 애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때맞추어 비를 내리고 도와주어야만 풍작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올 여름은 비에 젖고 태풍 매미에 찢어진 우울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하게 여문 햇곡들이 밭의 주인들을 기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별에 그을린 얼굴마다 미소가 가득합니다. 제 밭 왼편에서는 봄에 올라오는 새싹을 보는 기쁨으로 설레고, 여름 한 낮은 엄청난 잡초의 생명력에 질리고, 가을을 맞아 수확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그녀가 온 몸으로 행복을 캐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땀속에 든 아기는 받아내듯 안아내는 것은 고구마가 아닙니다. 자연의 선물입니다. 온 들녘이 행복을 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고구마는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높고 수확량도 많아서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가을햇살 속에서 조심조심 행복을 캐어 담는 사람들의 손길이 밀레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땅이 있고 흙이 있어 세상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11月8日 입동(立冬) 날씨 : 비

순환하는 계절은 어느새 비와 태풍으로 얼룩진 여름을 몰아내고 가을을 건너 뛰어 초겨울의 문턱에 와 섰습니다. 추수한 콩을 열댓박씩 담아 다섯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싸들고 외출을 나섰습니다.

향기 좋은 삼푸로 머리를 감아 빗고 옷을 잘 차려 입어도 제 몸에선 흙 냄새가 배어납니다.

도심 한 복판에 가 서 있어도 시골티가 납니다. 나홀전에 팻죽을 쑤어 먹었다는 형님의 새 이웃이 치자빛 나는 콩가루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대뜸하는 말이 “이 콩 직접 농사 지은 거지유?” 합니다. 초면인 사람들도 제가 농사짓는 아낙이란걸 첫눈에 알아차리고 시골의 안부를 물어옵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농사에 관하여는 프로라는걸 눈치챈 밭의 이웃들이 자기네 고추가 병이 났다고 무슨 병이냐고? 무슨 약을 써야 하나고? 물어 왔습니다. 전 그때마다 곡식도 사람과 같아서 약을 잘못 쓰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좀 피해를 보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손수 풀을 뽑아주며 정성을 쏟다보면 무공해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잡초도 흙으로 돌아가면 거름이 된다고 풀을 매주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농약과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쓰면 산성흙이 된다고 그리되면 사람의 몸까지 병들게 된다고 단단히 알려주었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한낱 미물에 가까운 식물들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영특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도 잠자고 먹고 2세를 낳기 위해 열심히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체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도라지 몇 뿌리를 캐다가 움찔하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도라지들은 발돋움을 하고 땅위로 고개를 내민 자세로 서 있기 마련입니다. 뿌리 식물들을 캐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도라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발에 언 흙은 조심스레 파헤치며 묵은 싹 밑을 찾아보니 흙이 땅 속 깊이 몸을 움츠리고 들어가 동면을 하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봄이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발돋움해 올라왔다가 추운 겨울이 되니 몸을 땅속 깊이 가라앉히고 봄을 기다리며 저 살 궁리를 하고 있는 도라지를 보며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물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다 영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제가 흙을 사랑하고 자연을 섬기게 된것도 아마 그쯤부터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년년이 뜨겁고 벅찬 가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울 가을도 어김없이 빈 그릇과 텅빈 가슴이 풍성한 가을로 꽉 채웠습니다.

청국장과 콩탕요리를 잘 하시는 형님이 콩자루를 끌어안고 “울가을도 깨끗하게 잘 여물었네. 수고 많았네.” 하십니다. 실은 콩이 잘된게 아닙니다. 잦은 비로 쪽정이가 반인 콩을 밤새워 한알한알 골라 낸 것입니다. 손에 물집이 나도록 털어서 키질로 고르고 손끝으

로 가려낸 땀의 결실이 또 다른 고마움과 끈끈한 사랑을 만들어 냈습니다.
 보람과 기쁨으로 형님댁을 나와 돌아오는 길에 읍마택지에 둘러보았습니다.
 아직도 밭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청무밭 이랑을 오가며 마지막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
 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게도 고마움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씨앗들의 창고 역
 할을 해 주었으니까요. 미처 대토(代土)를 못한 상황에서 2년동안이나 임대료 없이 농사
 지으며 씨앗을 묵히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으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떼지지 않는 걸음으로 읍마택지를 돌아나오면 그간의 고마움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터무니 없이 낮았던 보상가에 대한 서운함도 다 접었습니다.
 두해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던 읍마택지가 갑신년 새봄엔
 더 큰 희망으로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각 필지마다 뚝뚝뚝 주렁이 들어서고 크고 작은
 빌딩이 꼭 들어차는 날을 기다립니다.
 눈발이 날리는 저녁,
 고구마를 깎아 하얀 속살을 밥속에 찹니다. 제 특유의 청국장 냄새는 대문밖까지 남편 마
 중을 나갑니다. 남편이 함박웃음을 물고 들어서면 집안 가득히 꽃이 피어납니다.
 콩꽃, 팻꽃, 깨꽃, 고구마 꽃이 피어납니다.

〈농민신문사 주최 “2004년 전원생활수기” 당선작〉

할머니의 봉투

이 미 진 / 횡성여고 2학년

할머니는 가난한 삶을 모았다
찢어지고 버려진 봉투의 삶도
할머니의 농장 안에서는
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에겐
그들도 새 삶이었다
풀칠해주고 아껴주면
다시 살 수 있는...

종이 봉투의 작은 손을 잡고 있던
차가운 무지개가 사라지면
가난한 삶도 거진 없었다

깜깜한 햇빛 속에서 종이 봉투는
그렇게 희망의 삶을 살았다.

< 2003년 강원도 고교생 · 일반인 백일장 시부문 장원 당선작 >

겨울 나무



정 하 영

저마다 가졌던 것들을
다 털어 내고도 모자라
제 몸 마디마디 숨어 있는
한 방울 마저 뿌리 아래로
톡톡 털어 보냅니다

긴 동면의 시간
꿈꿈 얼지 않기 위해

팅...팅...팅
질푸른 미소,
달팽이관을 타고
파란 물이 듭니다.

군더더기 쌓여 비대한
내 혈관 속에 파란 물이 들어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곤
기뻐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의 숨 가파른 순간
이 겨울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참된 나를 찾기 위해

마라도 기행

전 태 규

우리나라 최남단
풍랑에 젖은 섬 하나
쓸쓸히 누워 있으니
슬픈 여인의 섬, 마라도라 했는가

해안의 새벽바람 섬 한바퀴 휘-이 돌아
등대지기 눈빛과 웅크하고
파도가 잦아드는 해뜰 무렵
그리움의 긴 울음소리 찾아 나선다

하멜이 표류하다가
'가파도'가 저기라고 뱃머리 돌려
끝내 마라도만 사모하다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떠나버린 사나이

물사람들 무리 지어 상륙하는 날
동지나해역 쪽빛물결에
머리감고 몸단장 고이 하여
돌아눕는 슬픈 여인.

떠난 세월의 끝에서
시작하는 날의 끝까지
백마(白馬)타고 오신다는
마라도의 어린 왕자님, 오늘도 안녕.

祝中都發展



厚堂 송인석

高樓巨閣聳蒼天	고루거각용창천
天佑中都發展邊	천우중도발전변
政客公明皆雅士	정객공명개사사
儒林清白總詩仙	유림청백총시선
農工躍進豐饒市	농공약진풍요시
經濟伸張慶賀筵	경제신장경하연
文化繼承民俗厚	문화계승민속후
可期來世泰平年	가미래세태평년

고루거각이 푸른하늘에 솟았으니
 하늘이 중도를 보호하여 발전하도다
 정객이 공명하니 다아사요
 유림이 청백하니 모두 시선이더라
 농공이 약진하니 풍요로운 시장이요
 경제가 신장하니 경하하는 자리더라
 문화를 계승하여 민속이 후덕하니
 가히 내세에 태평한 해를 기약하리로다

參拜奉月壇追慕孝子 宋滔先生



樂山 鄭 秉 烈

奉壇參拜晚秋詩	봉 단 참 배 만 추 시
敬慕先生孝道宜	경 모 선 생 효 도 의
王得水魚垂後範	왕 득 빙 어 수 후 범
孟子雪筍效前基	맹 자 설 순 효 전 기
誠心永耀千年鑑	성 심 영 요 천 년 감
學行能成萬古期	학 행 능 성 만 고 기
仍賜旌閭碑建立	잉 사 정 료 비 건 립
京鄉諸士讚揚詩	경 향 제 사 찬 양 시

늦가을 봉단을 참배하고
선생의 효도행의를 경모하네
왕상은 어음속에 잉어 얻어 후세에 모범 드리었고
맹종은 눈속에 죽순 구하였으니 전인의 본을 본받았네
성심은 기리빛나 천년에 귀감되고
학덕은 능히 이루었으니 만고에 기매일세
인하여 정려의 은전 하사받아 비세우니
경향의 선비들 시지어 높이 기리네

황성의 숨은 문화유산 찾기

임 나 연 / 둔내고등학교 1학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도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정말이지 아무 것도 모르고 여태 나의 고장에서 살아온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 학교 1학년은 10월 24일 황성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기로 했다.

우선 버스를 타고 우리들은 신대리 3층 석탑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청일면에 자리잡고 있는 신대리 3층 석탑은 도 유형문화재 제 60호라고 한다. 멀리서 보기에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석탑의 모습은 정말이지 아름답게 느껴졌다.

석탑을 보면서 나는 국사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탑은 조립한 것이 있고, 모형을 낸 것이 있는데, 조립한 것은 옛 우리 선조들이 처음 탑을 만들 때의 기법이고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돌에 그림을 새기고 모형 하였다.” 라는 이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더욱더 난 탑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역시 이번 탑은 눈으로 보아도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탑은 조립된 것이 모형을 낸 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는 지식이 있었기에 알 수 있었다. 이런 지식이 조금이나마 머릿속에 있어서인지 나는 탑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이 쏠리기 시작했다.

탑을 다 구경한 뒤 우린 그 근처 산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고 얼마안가 봉복사 부도가 나란히 우리를 배웅하는 것처럼 늘어져 있었다. 이 부도 속에는 스님들의 몸 속에서 나온다는 사리가 간직되어있다고 하여 신기하였다. 또 얼마안가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둘 쌓여 이뤄지길 기원하는 봉복사 돌탑이 나왔는데 여기서 모두들 돌을 올려 소원을 빌었다. 소원을 빌고 난 뒤 잦은 발걸음으로 몇 발자국 안가 봉복사가 우리 눈앞에 있었다. 여기서 우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봉복사라는 이름은 봉황의 배 부위에 속한다고 하여 봉복사라고 지었다는 것과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봉복사는 꼭 어머니의 태반 속에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 월정사처럼 큰절이었으나 지금은 재 건립한 것이며 황성에서 제

일 오래된 절이라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여기저기 절터를 구경하고 재 건립한 것들 중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굴뚝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우린 다시 발길을 돌려 버스에 승차하였다.

버스는 또 다시 우리를 태우고선 다른 장소를 향해 전진해 나갔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망향의 동산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곳에서는 중금리 3층 석탑도 우릴 반기고 있었다. 역시나 나는 중금리 3층 석탑에 관심을 두었고, 이 석탑도 또한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 석탑은 신대리 3층 석탑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바로 기단면석에 팔부중상과 옥개석등의 모양이 조각 되어있음을 보았다. 또한 이 석탑을 보면 색깔이 틀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곳의 부속품을 대신해서 다른 돌로 대신 끼워둔 것 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망향의 동산은 3개리가 댐으로 인해 침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면서 다시 볼 수 없는 고향의 그리움을 대신하기 위해 그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려고 만든 곳이 망향의 동산이라고 한다. 망향의 동산과 돌탑 그리고 그 뒤에는 산과 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곳의 경관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아름다운 경관의 모습을 아쉬워하며 우린 또 다시 버스에 탑승하였고 버스는 또다시 다른 문화유산의 장소로 우릴 인도하였다.

우리가 온 곳은 3.1공원 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충혼탑을 먼저 보았다.

충혼탑은 한국전과 월남전등에서 순국한 본군 출신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하며 이곳에서는 매월 6. 6 현충일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동안 그곳에서 묵념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3.1 운동기념비(좌측)와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우측)를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애국의 고장은 횡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애국의 고장이라서 그런지 기념비에는 애국정신이 속속 깊이 깃들여져 있는 것 같았다. 기념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서 오우덴 중령 현충비를 보았고 이것은 네덜란드의 오우덴 중령과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단을 내려와서는 태풍루를 보았는데 태풍루는 1798년 정조 22년 당시 정래송 현감이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고자 건립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6.25사변때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태풍루는 1992년에 복원된 거라고 한다. 또한 태풍루는 민생고를 없애고, 백성의 평안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태풍루를 다 구경하고선 우린 또다시 버스에 올라타 버스에 몸을 맡긴 채 다른 장소로 출발하였다.

다음 도착지는 시간관계상 가지 못할 것 같았던 도자 연구원 이었다.

이곳은 공근면 창봉리 옛 창봉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전시실과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실 등을 고루 갖추고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 6호 기능보유자 장송모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분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맥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생활 속에 조상의 숨결을 뿌리내리고 나아가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도자기에 대한 상식하나를 알게되었다. 도자기의 무늬를 보면 색이 선명하여 눈에 띄는 예쁜 도자기들은 상업용으로 만든 것이고, 도자기의 색이 흐리고 은은한 것은 직접 수공예작품이라는 것을 난 알게되었다. 장송모씨의 설명을 들은 뒤 우리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막간의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점심식사를 끝낸 뒤 다시 우리는 버스에 지친 몸을 싣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조금은 몸이 지쳐버려 귀찮게 느껴졌지만 곳곳이 참고 다음장소에 기대를 실었다. 우리가 도착한곳은 공근면 상동리 지방도로 옆이었다. 그곳에는 상동리 석불좌상과 상동리 3층석탑이 서있었다. 상동리 석불좌상은 형태가 어찌 좀 불안정하게 보였는데 그렇게 보이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건 바로 석불좌상의 얼굴을 도난 당한 후 얼굴만 새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좀 불안정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 불상은 신라 불상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 초의 작품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다시 버스에 올라탔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도착한곳은 풍수원 성당으로 책자를 통해 보면서 빨리 가보고 싶다고 느끼던 그곳에 도착한 것이다. 골목 같은 길을 걸어 올라가 풍수원 성당을 보았다. 도 유형문화재 제 69호로 지정된 풍수원 천주교회는 성직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1888년에 불란서 성직자 르메르 신부를 맞이하여 1907년 정규하 신부가 건립한 도내 최초이고, 전국에서는 4번째로 세운 고딕양식의 성지이다. 풍수원 천주교회의 내부를 살펴보려고 했으나 우리가 갔을 때는 신도들이 예배를 하는 시간이었는지, 내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쉬엄쉬엄 풍수원 천주교를 다 보고 우린 다시 내려와 버스를 타고 다음코스로 또 출발~!
이제는 몸이 아주 나른해 저버려서 이것저것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보니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로 한얼문화 예술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술관이라고 해서 거대한
박물관같은 형식이 아닌 분교였었다. 그곳에는 부부 화가가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 해놓
았다. 동헌 이양형씨와 설매 이정자씨 두 분의 작품이 전시되어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정
말이지 미술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으며 동물사육장이 있어 여러 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스한 가을햇살 아래에서 고요히 잠들고픈 느낌도 들
었다.

예술작품을 멋지게 감상하고 또다시 우린 발걸음을 재촉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였
다. 이동 중 우린 시간이 없는 관계상 나머지 다른 곳은 다음기회에 보기로 하고 마지막
장소인 정금 민속관으로 이동하였다. 우천면 정금리 횡성 회다지소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제 25회 1984년)에서 지방문화의 불모지인
본도에 최우수인 대통령상의 영광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회다지 소리의 선
소리꾼인 양중하씨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 4호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대통령 하
사금을 비롯한 각계의 지원으로 전국 유일의 마을 민속관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하루간의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린 지치고 아쉬운 마음으로 차에 올라타 학교로 다시 돌아
왔다. 정말 뜻깊은 날 이었던 것 같다. 내 고장에 대해 좀더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정해진 코스를 다 돌아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여러 문화
유산에 대해 내가 모르는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내가 조금 더 박식해 졌다는 느낌이 든다.
누군가 나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난 뭣뭣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
음 번에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좀더 자세히 보고 넉넉한 시간을 가져 많은 문화유산
을 봐야겠다.

살아 숨쉬는 횡성의 문화유산

송 지 혜 / 둔내고등학교 1학년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결코 내가 사는 고장 횡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횡성 유적지 답사 체험을 함으로써 횡성의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를 둘러보고 얼마나 횡성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신대리 3층 석탑, 봉복사, 중금리 3층 석탑, 읍하리 석불 좌상, 3·1운동 공원, 오우텐 중령비, 태풍루, 장송모 도자연구원, 상동리 석불 좌상과 3층 석탑, 풍수원, 한얼 문화 예술관, 정금 문화관 순으로 답사를 하였다. 하지만 이 많은 문화재와 유적지 중 나는 신대리 3층 석탑과 봉복사, 3·1운동 기념비, 그리고 상동리 석불 좌상과 3층 석탑이 인상적이었다.

신대리 3층 석탑은 무엇보다도 탑과 조화를 이룬 뒤의 자연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탑의 상륜부 쪽이 없는지라 만약 상륜부가 있다면 이 탑은 어떤 형태였을까? 생각도 해보았다. 탑신부 끝의 상처가 이 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탑을 뒤로 한 채 봉복사로 향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신대리 3층 석탑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고,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때 역시나 신대리 3층 석탑은 아름다운 자연과의 조화로 나를 거듭 감동케 했다.

신대리 3층석탑에 뒤이어 바로 간 곳은 봉복사였다. 봉복사로 향하는 길이 너무나 상쾌했기 때문에 마치 가을에 단풍구경을 하러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봉복사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도라는 것을 봤는데 궁금히 하는 아이들을 보고 설명해주시는 분이 너무나 친절하게 스님들의 사리를 넣어두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부도는 이끼가 낄 정도로 오래된 것이 있는가 하면 만든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하얀 부도도 볼 수 있었다. 봉복사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돌탑을 볼 수 있었다. 같이 올라오던 친구들이 돌탑에 돌을 얹

으며 소원을 빌었고, 나도 질세라 옆에서 조그만 돌을 주어 간단한 소원을 빌어보았다. 봉복사는 현존하고 있는 사찰 중에 가장 유서가 깊다고 하는데 과연 봉복사의 굴뚝과 주변 석물에는 그동안의 세월과 역사가 배어 있었다.

봉복사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설명해주는 분은 여기는 동서남북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엄마의 자궁 안처럼 포근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봉복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나는 아이들이 다 내려갈 틈을 타서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가까이에서는 못 느꼈던 봉복사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었다. 추녀 끝의 미와 색채의 미, 자연과의 조화 또한 어느 사찰 못지 않게 아름다웠다.

다음으로 나를 감동시킨 것은 3·1운동 기념비였다. 3·1운동 기념비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면 기미년 3월과 4월에 걸쳐 전개한 횡성 군민 만세운동에서 다섯 명의 지사가 일제의 총탄에 숨지고 태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수많은 군민들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라 한다. 3·1운동 기념비는 횡성 사람들의 독립의식과 조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정신이 깃들여있었다. 3·1운동 기념비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됐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수탈 당하던 우리 고장 횡성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상동리 석불좌상과 3층 석탑을 보았을 때 나는 신대리 3층 석탑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었다. 상동리 3층 석탑은 끝이 아름답게 하늘을 향해 휘어져 있었다. 추녀 끝보다는 약간 덜 기울어진 이 각도는 상동리 3층 석탑에 신대리 3층 석탑과는 다른 너무나도 큰 아름다움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탑의 기단부의 일부분이 복원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재의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상동리 석불좌상을 보면서 다시 되새김질하게 되었다. 상동리 석불좌상은 언뜻 보기에도 부자연스럽게 머리부분이 복원되어 있었다. 상동리 석불좌상 앞에서 나는 우리 세대가 문화재에 대한 의식을 바로잡아서 이렇게 훼손된 문화재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고 계승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동안 횡성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문화유산을 답사하다 보니까 횡성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답사한 곳 말고도 횡성문화원에서 나누어준 “횡성의 문화유산”이라는 책에는 더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었다. 다음에 기회가 다시 온다면 횡성에 현존하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을 다시 한번 답사해 보고 싶다.

소중한 우리의 재산 '문화유산'

김 명 아 / 대동여자중학교 3학년

4월 26일 대동여중 학생 자치회 임원들은 황성의 문화유산체험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 처음에 황성의 문화유산 체험이라는 말에 문화재 체험이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황성에는 유형문화재 10점과 무형문화재(회다지소리, 도자연구원)2점이 있다고 했다. 그 한곳한곳을 체험하면서 황성의 문화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 이번 체험의 목적이였다.

처음에 들린 곳은 정암리에 있는 도유형문화재 제110호인 '문정공조충지석' 이였다. 이 곳은 고려시대 3대원수인 문경공, 문정공, 광정공 세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우천, 안흥을 거쳐 '강림리 의병총' 에가는 도중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를 보았다. 네덜란드 참전비를 보니 대한민국 월드컵 히딩크감독님이 생각이 났다.

월드컵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강림리 의병총'에 도착해서 꽤 높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 가보니 민공호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있다는 의병총을 볼 수 있었다.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했다.

다음 장소로 가는 도중 노고소라는 버스 옆 강을 보았다. 강이 멋있는 산과 어우러져 더 멋있고, 웅장해 보였다. 강원도의 가장 큰 자랑인 산과 강의 맑은 자연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모두가 다음 장소인 태종대의 소개를 들으면서 도문화재 제16호인 태종대에 도착하였다.

치악산 남동쪽에 위치한 태종대는 말을 묶어 놓은 곳 '주필대'라고 불리다가 태종이 왕이 되기전 들렀다간 후 태종이 왕이 돼서 '태종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태종대 밑으로 내려가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황성의 문화유산에 빠져들고 있었다.

둔내면을 지나 청일면 신대리에 위치한 봉복사에 내렸다.

꽃이 떨어지는 긴 길을 올라가면서 봉복사 돌탑에 돌을 얹고 소원을 빌었다.

신라 선덕여왕 16년인 647년에 창건된 봉복사는 횡성군내 현존하고 있는 사찰중에 가장 유서가 깊다고 한다.

나도 절에 다니는 터라 부처님 앞에서 두손 모아 인사 드렸다.

내려오는 길에 도유형문화재 제60호 '신대리 3층석탑'에 들렀다. 일대의 평와편들이 산재해있어 이 사지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말 곳곳에 있는 구멍들이 신기했다.

다음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구방리로 발길을 옮겼다.

전에도 한번 와 본 기억이 있어서 더 반가웠다. '화성의 옛터'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아직까지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댐건설로 많은 집들이 사라지고 큰 강이 된 곳의 풍경은 마치 오색 비단을 깔아 놓은 듯 찬란하게 빛났다.

사진도 찍고, 점심도 먹고, 그다음 장소를 향해 떠났다.

다음으로 볼 문화재는 평소에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보고 싶었던 공근면 '상동리 석불좌상'

이었다. 이 좌상은 89년 도난 당해 원형과 다른 모습이였다.

문화재를 도난해 갔다는 소리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 장소는 횡성의 무형 문화재 2점 중 한곳인 '장송모 도자연구원'이였다

초등학교때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본 기억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도자기 하나하나가 더 신기해 보이고 더 깊이 관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미를 나타내는 곡선을 그린 도자기, 달마도를 그린 도자기, 그리고 전쟁중 손실된 도자기의 파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큰 도자기부터 찻잔 하나하나 까지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신기했다.

아쉬움으로 마지막 장소인 횡성댐에 갔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들이 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물에 관한 비디오와 여러가지 전시물들을 보았다.

특히 물 전시관 체험실에서는 신비한 과학의 원리로 물을 체험해 보니 더 재미있고, 신기했다.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느끼게 될 물 부족을 지금부터라도 막아

야 한다는 교훈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다.

처음에 버스에 오를 때와는 달리 횡성의 여러 문화 유산을 체험하면서 문화유산에 관해
관심도 많이 생겼고, 이곳 저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곳일까? 하며 세워진 비석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문화유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친구들에게 읽어줘서 그런지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문화 유산을 지켜서 나의 자녀에게도 문화유산의 신비
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찍은 내고장 횡성의 문화 유적지

김 미 정 / 대동여자중학교 3학년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횡성 문화 유적지 탐방'의 짧고도 긴 체험이 시작 된건 4월 26일.

시끌벅적 버스 안.

간신히 부푼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생님, 친구들, 후배들, 그리고 횡성 문화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저씨 한 분과 함께 제일 먼저 세덕사를 보기 위해 정암리로 출발했다.

이 곳은 문경궁, 문정궁, 광정궁, 세 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라고 하는데, 세덕사.....말 그대로 대대로 쌓아 내려온 아름다운 덕화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을 그대로 다음 목적지인 강림의병총과 태종대가 있는 안흥 강림면으로 향했다.

민공호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들의 전사자와 주민들의 조국광복을 위해 눈감으신 이 곳, 그때 그 분들의 고귀한 음성이 마음 속으로 잔잔히 밀려들어 왔다.

곧 태종대로 향했는데, 이 곳 태종대는 치악산 남동쪽에 위치하며 태종이 왕이 되기 전, 왔다 간 곳으로 말을 묶어 놓고 갔다 하여 주필대라 불리어오다가 방원이 등극하자 태종대로 불리어져 온다고 한다.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과도 관련이 있어 그런지 더 흥미진진했다.

꾸미지 않은 자연속에 그대로 올라앉은 태종대.....바로 아래 큰바위에 한자로 태종대라 쓰여진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그 또한 웅장했다.

그 다음 목적지는 둔내면 봉복사 절, 자연의 품안에 그대로 들어앉은 봉복사를 올라오느라 흘린 땀과 다리의 피로는 어느새 봉복사의 시원한 얼굴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다.

봉복사는 봉황의 배에 위치한다는 뜻으로 상하좌우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어머니의 뱃속을 연상케 했다. 정말이지 내가 다시 태아가 된 느낌이었다.

지난 과거를 잠시 접어두고, 다음은 구방리에 위치한 화성의 옛터. 책으로만 접한 돌칼,

화살촉 등을 내눈으로 직접확인 할 수 있었다. 비록 유리관 안이어서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신기했다. 또, 이곳 저곳 흠집 나고 금이 간 것은 그때 그 세대의 생활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횡성의 문화 탐방도 잠시, 횡성의 유적지에 반해 그만 잊고 있었던 내 허기도 채웠다.

훨씬 가벼워진 몸을 이끌고 공근면에 위치한 상동리 석불좌상으로 향했다.

3층 석탑 바로 옆에 있는 석불좌상을 처음 보았을 때, 목 부분에 접착한 부분이 왜 있나 했더니 1989년에 도난을 당해 새로 만들어 붙여 놓은 것이라 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지정 무형 문화재 제6호인 장송모 도자연구원의 전통 도자기를 감상했는데, 조상님의 장인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은 우리 전통의 우아함과 단아함, 멋스러움을 그대로 살린 도자기에서 어린 내가봐도 고개가 절로 끄덕일 만큼 조상의 숨결을 그대로 뿌리내린 전통공예의 맥을 엿볼 수 있었다.

짧지만 긴 횡성 문화 유적지 탐방은 이렇게 마쳐지고 웬지 모를 아쉬움에 마음이 차분하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은 쉿! 조용해졌다.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일까?

오늘이 아니었으면 쉽게 경험하지 못했을 횡성의 문화 유적지…….

오늘의 횡성을 눈으로 찍어 내 마음속 앨범에 끼워둔다.

독립기념관을 다녀와서

김 미 혜 /강림중학교 3학년

우리학교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강원지역 청소년 11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강좌를 받으러 독립기념관을 다녀왔다.

이번으로 제5회를 맞이하는 전통문화강좌는 강원산간지방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화천의 간동중학교 정선의 나전중학교 150여명이 같이 교육을 받았다.

17일 아침 학교를 떠나며 독립기념관에서의 합숙에 대한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 우리는 정오가 되어서야 도착을 했고 간단한 수료식을 끝내고 학교별로 1관서부터 7관까지 도우미 언니들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았다.

제1전시관은 민족전통관이였다. 이 전시관에는 선사시대 이래 조선시대 후기까지 우리 겨레의 문화유산과 국난극복에 관계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관은 근대 민족운동관이다. 이 전시관에는 1860년대부터 1910년 국권 상실때까지의 근대 민족운동과 구국운동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3전시관은 일제 침략관이다. 이 전시관에는 이러한 일제의 침략과 만행의 실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일제 침략에 대한 것은 방송, 책들을 통해 많이 접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하여 경제적 수탈과 독립운동에 대한 비인도적인 탄압을 감행하다 끝내는 우리민족을 말살하고자 하였던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다. 전시관들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관이었던 것 같다. 고문당하는 모습을 실제처럼 만들어 놓았다. 하나 하나 볼 때마다 탄성이 나오고 눈을 찡그리고 입을 막을 만큼 잔인했다.

제4전시관은 3·1운동관이다. 이 전시관에는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과 3·1운동 관계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5전시관은 독립전쟁관이다. 제5전시관에는 만주를 중심으로 연해주와 미주 등지에서 전개된 무장항일투쟁 관련자료, 한국광복군과 의열투쟁에 관련된 각 자료와 모형물, 영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6전시관은 사회문화 운동관이다. 문화운동실에서는 어문, 문학, 역사, 어론, 출판, 교육, 종교,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전개한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전시하고 있으며, 사회운동실에서는 여성, 소년,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각 계층의 항일운동을 전시하고 있다.

제7전시관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관이다. 임시정부는 대외적으로 외교활동을 통하여 독립운동의 활동을 소개하고, 독립을 위한 교섭을 추진하였으며, 안으로는 각 독립운동단체를 지도, 지원하고 교육, 문화,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독립정신을 함양하였다. 이 전시관은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해외독립운동 활동 상황, 상해 한인거리 재현 및 생활상, 임시정부의 활동, 국내 한국까지 관련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제7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상이 인상 깊었다. 인물 하나하나를 세세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좋았다. 이렇게 전시관관람이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를 옮겨 도자기 만드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 도자기공예를 하는 곳은 야외전시장에 있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찰흙을 문지르고 쌓고 주무르고 모두 맘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만드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그 곳이 약간 더워서 그랬는지 맘을 잘 흘리지 않던 나도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해서 맘을 닦으며 향아리를 겨우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향아리에 친구들과 함께 만든 카페주소를 모두 적어 두고 나왔다. 그 곳을 나오니 어느새 벌써 산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밤 9시가 돼서야 우리는 오늘 모든 교육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 숙소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었고 독립기념관에서 한 30분 걸어가면 크게 야영장 형식으로 되어있는 수련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수련원을 다녀봤지만 이번처럼 시설이 좋은 수련원은 처음 이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체육관, 생활 교육실, 식당, 체력단련장 등 많은 여러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18일 아침 나는 다른 날 보다 오늘 더 기대에 부풀고 가슴떨려움을 느꼈다. 오늘 받는 교육중에는 중군위안부로 가셨던 할머니 중에 살아 계신 할머니께서 그 때 당시 상황을 들려준다고 해서였다. 첫 시간부터 오늘은 좀 더 생생하고 가슴속에 와 닿는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10시가 되자 우리 앞에 설치된 단상에는 파마머리에 얼굴에는 깊이 패인 주름과 잔주름이 열기설기 그어져 있고 잔잔한 눈웃음을 짓는 친할머니 같은 분이 앉아 계셨다. 할머니 옆자리에는 할머니를 도우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독립기념관 남자직원이 앉아있었다. 할머니는 앞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꼭 둘러보시며 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먹을 불끈 쥐고 열의에 찬 눈으로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며 중군위안부는 일본이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성적 노예집단이다. 위안부와 정신대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한국, 대만, 일본여성들이 대상이 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은 수십만명의 한국 남성을 강제로 연행해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전쟁이 확대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국의 여성들까지 징용해갔다. 끌려간 여성들은 12~40세의 미혼 여성으로 일본과 한국 등의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였으나, 점점 위안부로 일본 군인들의 성욕구해소를 위한 성적 노예가 되는 숫자가 증가하였다. 1938~1942년 무렵에는 간호보조·군부대 잡역·여자 특수군속 등의 명목으로 동원하였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에 배치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중군위안부라는 말은 어느 책에서 들어 본적이 있다.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께서는 마른침을 삼키시며 강제로 끌려나가서서 일본군에게 폭행 당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일본군에게 머리를 심하게 맞아 상처가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는데 그 때 그 상처로 코피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난다고 말하신다. 그 때 강요당했던 그 상황을 좀 더 알고 싶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아직 어려서 자신이 해주는 말을 듣는다면 충격이 클까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때 들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잔인했는지 눈에 훤히 보인다. 그 당시 유행성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다고 한다. 할머니도 그중의 한 분 이셨고 할머니는 불에 타기직전에 독립군에 의해 구출되었고 가지고 있던 짐을 잃어버려서 중국에서 2002년도까지 계속 사셨다고 한다. 중간 중간 할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강요하시듯 학업에 충실히 하고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을 하셨다. 나라를 두 번 빼앗겨서는 안되니 우리들이 곳곳이 지켜 나가라고 나라 잃은 나라의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당부하시듯 말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울음을 터트리셨다. 북받쳐오르는 듯 그 때의 치욕이 동시에 생각이 나셨는지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런 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입을 막고만 있었다. 할머니가 강단에서 내려와 뒷문으로 걸어가실 때는 우리 모두 일어나 힘찬 박수를 보내드렸다.

할머니의 손을 꼭 쥐어보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꼭 우리나라의 훌륭한 청소년들이 되겠다는 다짐의 박수로 마무리했다. 일제의 아픔을 피부로 느낀 그 분을 직접 접하고 났을 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끄러운 사실과 역사왜곡의 더러움까지 우리의 기억속에서 물 흐르듯 그냥 흘러보낸 내자신이 한심했다.

이렇게 뜨거운 강의를 받은 우리는 4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갖고 나서 2시간동안 사물놀이를 배웠다. 여러 파트로 나누어 징, 장구, 쥘리, 북을 따로 가지고 앉았다. 악기마다 다른 장단을 익히며 하나씩 소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소리나는 악기를 만져서 인지 우리 것을 배운다는 기쁨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즐거운 표정 이었다. 첫 장단을 익히고 다 같이 연주할 때는 어깨가 들썩이고 흥이 났다.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들의 장단에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춤을 추셨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신이 났고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정신 없이 두드렸다.

그래서 인지 2시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앞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던 강사분들도 흥에 겨워 머리를 흔들며 장단을 쳐서 그런지 모두 땀범벅이었다. 지금까지의 교육들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배운 것 같아서 뿌듯했다.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프로그램으로 레크레이션이 남아있다. 저녁을 먹고 숙소 앞에 있는 체육관에서 레크레이션 강사와 함께 그 동안 교육받느라 힘들었던 몸을 풀었다. 또, 서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끼리 더 친해지라는 자리였다. 이런 저런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씩스러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서로 말도 걸어보고 웃어도 보고 아주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숙소로 돌아와 피곤한 듯 모두 지쳐 누웠다. 나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지쳐있었다. 그래도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전에 본 중군위안부 할머니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 때 상황이 크게 실감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에는 또 다른 충격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아침 오늘은 독립기념관을 떠나는 아쉬운 날이다. 떠나는 우리들을 반겨주리라도 하듯 첫 날부터 어제까지도 보이지 않던 태양이 아침 일찍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숙소를 걸어 내려오는 길에 땀은 조금 나긴 했지만 발걸음만은 힘찼다. 우리는 숙소를 내려오면서 근처에 있는 통일염원의 동산으로 갔다. 통일염원의 종을 치기 위해 우리는 4명씩 짝을 지어 줄을 싼고 차례로 종을 세 번씩 울렸다. 종을 만들어 놓은 위치와 구조가 굉장히 정교했다. 이 통일염원의 동산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그 의지를 후세에 길이 전할 역사교육으로 통일염원의 동산이 조성 되었다고 한다. 상징조형물은 원뿔형 무지개모양으로 그중심에 종을 설치하여 남과 북이 합일된 통일실현의 의지를 종의 울림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출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국민들의 통일염원을 벽돌에 새겨

후세에 영구히 본존하고자 국민참여의 장이 마련됐다고 한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땀을 흘리며 종을 쳤다. 종소리는 웅장하고 가슴까지 떨림이 느껴졌다. 처음 쳐보는 종이라 신기했고 TV로만 듣던 종 울리는 소리는 가히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의 종소리가 북한동포들 가슴속에 잔잔히 울려 퍼져 하루빨리 통일이 다가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마지막 한지공예를 했다. 한지공예는 짧은 시간에 작고 간단한 손거울 만들기를 했다. 한지공예를 하면서 한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한지는 원주가 유명하다는 것은 나는 가까이 살면서 알지 못했던 점이다. 한지공예를 끝으로 우리는 다른 학교들과 그리고 독립기념관과의 아쉬운 이별을 해야했다. 돌아오는 버스안에서는 다들 피곤했는지 모두들 지쳐서 잠을 잤다. 2박3일 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 역사를 더 바르게 알고 왔다는 사실에 뜻 깊고 알찬 체험을 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독립기념관을 다녀와서

이 은 영 / 강림중학교 3학년

추석연휴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전통문화 강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몰랐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2박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도착을 하자 환영이라는 글과 함께 제5회 독립기념관 전통문화 강좌라고 써 있는 플랜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화천의 간동중학교, 황성의 강림중학교, 정선의 나전중학교가 써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통문화 강좌의 처음 시작이 되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맨 처음에 입소식이 끝나고 전시관을 돌았습니다. 안내하는 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관을 돌아보니 이해도 잘 가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제1전시관은 민족 전통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주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선사시대 이래 조선 후기까지 우리 겨레의 문화 유산과 국난 극복에 관계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2전시관은 근대 민족운동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우리 민족은 조선후기부터 일본과 같은 열강들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면서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조상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3전시관은 일제 침략관 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주먹을 꽉 쥐게 되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만행을 보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 우리민족을 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여 한국인들을 징용·징병등을 통해 전쟁터로 내몰았고 군대 위안부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울컥하였고

내 주먹을 더 꼭 쥐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진정 되지 않은 상태로 제4전시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4전시관은 3·1운동관으로서 우리의 일제 침략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으로 우리민족의 민족성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5전시관은 독립전쟁관으로 우리 민족이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켜 강한 독립의 의지를 보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6전시관은 임시 정부관으로 혼란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우리민족의 노력과 민족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시관을 다 관람한 후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곳곳이 이겨내고 열심히 싸운 우리 조상들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끌고 가 징용·징병을 통하여 전쟁터에 내몰고 내 또래 만한 여자들을 거것으로 끌고 가 군대 위안부를 시킨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본.....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일본이 요즘 역사왜곡까지 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역사왜곡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징용·징병으로 끌려가신 조상들과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신 할머니들이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 우리가 당해 온 수많은 억압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단 1분 1초라도 빨리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 위안부에 대하여 한 할머니를 통해 강화를 받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았다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그 혹독한 탄압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인들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언젠가 어떻게든 독립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바꾸어 내가 만약 그시대 사람이었다면 일본에게 독립하는 그 날까지 저항 할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날 독립지사에 계도 1시간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역시 같은 생각을 여러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게는 당연히 어느 나라에게 다시 한번 뺏겨서는 안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과 대항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것은 접어두고 사물놀이, 도자기공예, 한지공예를 하였습니다. 사물놀이를 배울 때 나는 징이었는데 징은 배우기가 쉬워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에게

다배우고 전체적으로 쳐봤는데 짧은 시간에 대단히 좋은 소리가 나서 기뻐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더 뿌듯했던 것은 우리나라 악기로 연주를 하니 더욱 뜻 깊었고 어느나라의 악기보다 더 토속적이고 고유한 음색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자기 공예를 하면서는 우리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날 한 한지공예는 거울 만들기였는데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고 모양도 준비 되어 있어 만드는데 큰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곳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다 뜻깊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다음에도 기회가 생긴면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통일염원의 동산에 가서 통일염원의 종을 쳤는데 종소리가 거대하고 웅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일염원의 마음을 담아 종을 쳤다는 것이 뿌듯하였습니다. 종을 3번 쳤는데 남쪽에서 치고 북쪽에서 치는 것을 반복하며 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이 종이 울리고 울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곳에 가서 느낀 것은 오로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그 어떤 나라에게 빼앗겨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얼을 본받아 나도 그런 국민이 되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옛것을 소중히 간직하자. 다짐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주신 독립기념관의 담당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Ⅵ. 문예백일장 입선작품

• 향토문화행사

■ 제17회 태기문화제

- 초등부
- 중등부

■ 제18회 태풍문화제

- 초등부
- 중등부

■ 이연승시비건립

6주년기념 학생백일장

- 동시
- 산문

※ 제17회 태기문화제 ※
초등부 최우수(동시)

연

이 윤 임 (우천초등학교 4학년)

파란하늘 위로
월월날고서
우리보고 오라고
사랑사랑
꼬리칩니다,

울긋불긋
색꼬리 달고서
사랑사랑
꼬리칩니다,

푸른하늘
높이높이
올라가면서

우리들의 소원
하나하나씩
담고 가지요,

우리 소원
이루어지길
빌면서,

푸른하늘
높이높이
올라가지요,

알록달록
색동옷 입고,

암보일 때까지
올라가지요,

※ 제17회 태기문화제 ※
중등부 우수

눈사람

남 혜 수 (우천중학교 2학년)

새 하얀 눈 속에서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람

겨울이 갈수록
죽어가는 사람,

그러나
끝내 버려지는 사람

그러나
미소짓고 죽을 수 밖에 없
는 사람,

살을 깎는 바람에
상처받는 사람,

소리없이 왔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

그러나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눈사람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러나
두 다리로 한번쯤
걸고픈 사람

※ 제17회 태기문화제 ※
초등부 우수(산문)

신나는 연날리기

권 성 은 (성북초등학교 4학년)

지난 겨울방학때 내 친척 주영이와 함께 연날리기를 하였다. 바람도 적당히 불고 오늘은 웬지 좋은일만 생길 것 같았다. 연을 획! 날리니 정말 높이 올라갔다.

“와! 내가 제일 높이?”

서로 말다툼도 하였다. 그런데 내 친척은 계속 화냈다. 치... 기분이 나빴다. 잘하려고 해도 계속 연이 그쪽으로 가는데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화해를 하였다.

‘야~높이난다. 연은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었다. 내가 아는 것은 방패연 가오리연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가지의 연을 상상하여 보았다. 용연, 물고기 연, 새연등 여러 가지를 상상하였다.

“킁킁 언니 너무 웃겨! 그런 연들이 있을까?”

내 친척 동생이 이렇게 말하며 웃자 나도 그냥 따라서 큰소리로 웃었다.

연은 내 마음을 신나게 해주었다.

집에 들어가 연에 대해 물어보니 꼬리연, 장군연, 학연등이 있다.

“진짜 특이하다. 장군연은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도 생겼다. 장군이 그려져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연에 대하여 모르는지 몰랐다. 조금 쟁취하였다. 친척동생과 나는 다시 나가 연을 날렸다. 연은 꼭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새같았다.

나도 한 마리의 토끼처럼 신나게 뛰어다니며 연을 신나게 날렸다.

“와 ~ 높다. 높아!”

아까 날렸는데도 다시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연은 언제부터 날렸을까? 아무래도 80년은 넘었겠지. 옛날에는 집적 손으로 만들었겠지? 만드는 것은 재미있을까? 나는 한번도 만

들어 본적이 없다. 조금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든다.

“어~왜 글루가지. 어?”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으~ 기분이 나빴다. 내 친척의 연은 훨훨 잘 날아다니는데... 나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하는데 생각처럼 잘 빠지지 않았다. 연은 친척동생의 도움으로 겨우 빠졌다. 나는 또 다시 조심스럽게 연을 날렸다.

“이제 조심해야겠다 조심조심.”

내 친척동생은 이런 내 모습이 웃긴지 계속 작은소리로 웃었다. 나도 조금은 내 모습이 웃겼다. 연도 내가 웃긴지 이리저리 날라다녔다. 오랜만에 친척동생과 함께 연을 날리니 신나고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언니, 내년엔 또 와서 같이 연날리기하자.”

내 친척동생도 재미있었는지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연은 훌륭한 일도 하였다. 김유신 장군이 연을 날린 것 말이다. 연은 오래도록 대한민국의 민속놀이로 유명할 것이다. 내가 커서도 우리 후손들이 연을 날릴 수 있을까? 미래에는 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연에 꿈을 싣고 날리며 전세계에서 연을 신나고 즐겁게 날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 제18회 태릉문화제 ※
중등부 최우수(동시)

우리 할머니

박 소 희 (우천초등학교 6학년)

주글 주글 지렁이 길 위해
오뎅 솥은 언덕
그 위에 초롱초롱 많은 샘

넓고 넓은 언덕너머
꼬부랑 꼬부랑
하얀 아지랑이들
여기저기 많은 꿀짜기
할머니의 고생길이셨네.

노랑게 여문 벼이삭
고개 숙이듯
평생 베풀며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
그래도
뭐가 그리 고마운게 많으신지
늘 고맙다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

※ 제18회 태릉문화제 ※
중등부 최우수(운문)

두 마리의 폰수

이 현 경 (안흥중학교 1학년)

저기메 보인다
햇빛에 그을려 검게 타버린 얼굴로 함박꽃이 된 마냥 복스럽게 웃어보는 계집애,
호박꽃 같은게……,
저기메 보인다
창가에 스며드는 햇볕에
'뽕긋' 하는 계집애가,
안그래도 작은 눈 더 작아 뵈잖아!

저기에서 들린다
컬컬한 소리 내며 흥얼거리는 계집애의 노래소리,
그래, 너 노래 잘한다!

저기메 보인다
배고프다고 꼬장부리는 계집애,
누가 폰수 아니랄까봐……,

저기메 보인다
오늘도 마주앉아
서로 이쁘다 칭하는
두 마리의 폰수가,

※ 故이연승선생 동시비 건립 6주년 ※
초등부 최우수

햇님

심 현 주 (강림초등학교 4학년)

얕밟다! 얕밟다! 할수록
햇살은 더 내리쬐고

덥다! 덥다! 할수록
햇살은 더 내리쬐고

나의 미움을 알았는지
구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숨어서 한없이 울고있네

하지만 금방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네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구름사이로 내민
햇님의 환한 미소

※ 故이연승선생 동시비 건립 6주년 ※
초등부 최우수(산문)

태백산 끝으로

오 현 민 (성북초등학교 6학년)

“야! 일어나!”

아까부터 눈을 따끔따끔 찌르던 햇살이 커튼에 조금씩 가려질 무렵 퍽퍽거리는 목소리에 눈을 비벼댔다.

시끄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커튼을 잡고있던 내 손을 뿌리치고 커튼을 확 열어 제꼈다.

눈부신 햇살 때문에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미 높이 솟아버린 해 밑 쪽으로 수수해 보이지만 웅장함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태백산이 보였다.

창문 조금 위쪽에 위치한 시계의 검은색 시계 바늘은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넌 애가 잠이 왜 그리 많냐? 오늘 저어기 올라가기로 했잖아.”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나를 쳐다보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의 오랜친구 혜린이다.

아, 그랬지...

오늘 등산하기로...

어젯밤 우리는 태백산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집을 빌렸다.

그리고 나와 혜린이를 비롯한 7명의 아이들이 이집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아주 슬픈 이유로...

혜린이의 부모님이 다투신 이유로 혜린이를 위해 우린 이렇게 모였다.

그리고 기분 전환을 위해 등산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후아~ 공기 좋은데~”

태백산은 아침이슬로 약간의 습기가 돌았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산은 서늘하기만 했다.

“매미다!”

“딱따구리!”

“하늘소도 있어!”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소리를 질러댔다.

산 길은 올라가는 동안 헤린이의 얼굴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가득 담고 있었다.

태백산 정상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맹세했다.

다신 울지 않겠다고, 10년후에 다시 이 곳에 오겠다고…….

그리고 나서 타임캡슐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넣었다.

열쇠도, 가방도 모두...

산을 내려오는 길에도 우린 행복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자마자 헤린이는 떠나갔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를 따라갔다.

헤린이를 태운 자동차는 태백산 끝머리로 사라져갔다.

아침에 그렇게 눈을 찔러대던 햇살이 사라지고 붉게 물들어 버린 해와 함께…….

Ⅶ. 문화원 소식

■ 2003 사업실적

- | | |
|--|---|
| ▶ 지역문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음악회· 문화예술공연 | ▶ 시설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개설운영 |
| ▶ 향토문화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교양 및 향토사강좌· 문화유적지 순례 | ▶ 향토사료 조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사료집발간 |
| ▶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제행사· 향토문화기록촬영· 전통민속예술경연 | ▶ 문화학교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강좌운영 |
| ▶ 애향활동 전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향지 및 문학지 발간· 향토인물 선양 | ▶ 문화사랑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강좌 및 체험학습 |
| | ▶ 기타지원문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석문발간자료수집·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학술세미나 |

문화원 소식

지역문화사업

전시회

각종 전시회의 지원과 협력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과 창조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는 황성문화원은 문화원의 시설 및 장소를 개방하여 열린 문화공간 확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18회 태풍문화제 서화전 (10/17~19)
- 제20회 백합영상회 사진전 (11/27~12.1)
- 제19회 그림샘 미술전 (12/4~6)
- 제11회 황성연묵회 회원전 (12/8~10)
- 제 4기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 (12/22~24)



음악회

청소년들에게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청소년 건전가요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수준 높은 음악단체등의 초청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순화에 기여하고 있다.

- 제7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5/24)
- 청소년을 위한 난장음악회 (12/4)
(모던팝소케스트라)
- 리듬엔브라더스 출연



문화예술공연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 공연을 통해 우리의 멋과 흥을 군민에게 선사하고 있는 '황성군민을위한전통국악예술대공연'이 지난 11월 21일 성황리 개최되었다. 또한 관내 초교생을 위한 창작환경어린이뮤지컬 "부메랑"이 아동들의 열렬한 호응속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 창작환경어린이유지컬 "부메랑" (10/20)
- 횡성군민을 위한 전통국악 예술대공연 (11/21)



향토문화교육사업

문화교양 및 향토사강좌

저명한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개최하고 있는 문화교양 및 향토사강좌가 관내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9월 29일 "멋지게 변화자"는 주제로 카피라이터 최윤희 강사를 초빙하여 교양강좌가 실시됐다.

- 문화교양강연회 개최 (9/29)



문화유적지순례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외 문화유적지 답사를 실시하고 있는 문화원은 금년도 5차에 걸친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를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울 창덕궁, 경복궁을 관외 유적지로 답사, 선인들의 순결한 문화정신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관찰 연구하였다.

- 관내문화유적지답사

(1차 4/26, 2차 4/28, 3차 4/29, 4차 4/30, 5차 10/24)

- 관외문화유적지답사 (7/3)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문화제행사

제18회 태풍문화제 행사중 풍물경연대회, 서화전, 학생백일장, 사생대회, 문화행사 시연 및 공연을 본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민속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제17회 태기문화제에서 학생백일장, 민속경기(제기차기, 연날리기)를 개최, 향토문화의 발전과 전통민속문화를 보존·전승시키는 데 노력했다.

- 제17회 태기문화제 (2/14~15)
- 제18회 태풍문화제 (10/17~19)



향토문화기록촬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기념물, 국난극복, 호열유적 기타 향토문화 유적등을 촬영하여 후손들에게 향토문화 교육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향토문화를 촬영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전통민속예술경연

각종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본 문화학교 '어사매 풍물놀이패' 단원들이 출연하여 수준높은 우리고장 고유의 전통민속사물놀이를 선보이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제10회 강릉 단오맞이 풍물경연대회에 출연한 어사매 풍물패 단원들이 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도 동상을 수상하는 등 향토문화를 전승, 보전하기 위해 기울인 그간의 노력들이 대외로부터 알찬 결실로 열매 맺고 있다.



- 제8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5/20)
황성문화원 어사매 풍물패 출연 동상 수상
- 제10회 강릉 단오제 풍물경연대회 (6/4)
황성문화원 어사매 풍물패 출연 은상 수상
- 제2회 전국 화성주부 풍물 축제 (10/11)
황성문화원 어사매 풍물패 출연 특별상 수상
- 제12회 강원국악경연대회 (10/15)
황성문화원 어사매 풍물패 출연 금상 수상



애향활동전개사업

애향지 및 문학지 발간

우리고장의 대표적 향토지인 어사매 18호를 지역인사 및 사회단체, 교육기관, 출향인사 등에 발간 배포했다. 특히, 18호에는 “태기산

성과 횡성"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에 출판한 연구문을 중점 수록하였고, 문학인 출향인사들이 투고한 작품 다수와 향토사를 수록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내 문학 동호인들이 투고한 작품을 수록 발간하는 "횡성문학제10집"을 후원 발행했다.

- 애항지 "어사매"제18호 발간(12월)
- 한시집 "횡성음사"제8집발간 (7/20)
- 문학지 "횡성문학"제10집 발간 (12월)



향토인물선양

3월의 강원문화인물로 선정된 "박원 정현석" 선생의 현대적 재조명을 통해 선생의 사상과 이념을 선양하는 강연회가 성무경 박사를 초빙하여 개최하였으며 12월의 강원 문화인물로 선정된 독립운동가 최양옥 지사의 삶과 의 열투쟁을 주제로한 학술 강연회를 개최했다.

- 박원 정현석 선생의 현대적 재조명 (3/5)



- 故이연승 동시비 건립 6주년기념 어린이 글짓기 대회 (5/28)
- 최양옥 지사 학술강연회 개최 (12/18)



시설관리사업

홈페이지 개설운영

문화원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 개설하여 주민과 가까이 하는 열린 문화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홈페이지 개설 (4/23)
- 사무용 컴퓨터 및 난방기 교체 (11/17)

향토사료 조사사업

향토사료집발간

횡성지역 애국선열들의 항일의병활동과 해외독립운동사료를 조사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한 "횡성의 민족운동사"를 발간하여 전국문화원 및 관내 기관단체 등에 배포했다.

- 향토사료 제19집 "횡성의 민족운동사" (12월)

- 제1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 및 문화탐방 (11/27~28)



문화학교 운영사업

문화강좌운영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개발 및 지식기반을 창출한 밝고 명량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 서예교실, 사물놀이(주간·야간), 국악교실, 일본어교실, 영어교실, 한지공예



문화사랑방 운영

문화강좌 및 체험학습

잊혀져가는 전통농악놀이의 맥을 이어가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전승시키고자 사물놀이 가락익히기, 국악(민요)부르기, 단소익히기 등을 실시하고 전통문화체험학습

을 위탁 연수 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사업으로 계속 실시 할 계획이다.

- 해외문화 교류탐방
- 전통문화 체험학습운영 (7/28~8/8)
- 전통문화 체험학습 위탁연수 (9/17~19)



기타지원문화사업

금석문발간자료수집

관내에 산재하여 건립, 보존되어 오고있는 향토문화 역사자료인 금석문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역주, 탁본, 촬영 등을 통한 올바른 역사기술과 선현들의 업적을 기려 후손들에게 전승하고자 금석문 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 횡성의 금석문 자료수집 용역
(기간 4/1~12/30)

학술세미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학술세미나는 도내 유수의 대학교수들을 초빙한 가운데 “태기산성과 횡성”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도 본 문화원은 지방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학술세미나 등을 더욱 폭넓게

개최하여 향토문화를 진흥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태기산성과 횡성" 학술세미나 개최

- 기초강연 : 원용환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주제발표 :

유재춘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상임연구원)

이대범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김병철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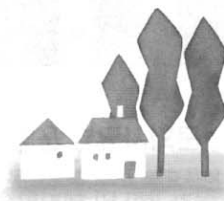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애국의 고장 횡성의 정신적 뿌리인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학생용변대

회, 학생그림공모전, 군민만세운동주제 OX퀴즈 등을 개최하는 등 순국선열의 고귀한 이념과 사상을 선양 고취했다.

· 횡성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 (4/1)



횡성문화원 임직원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장	자 택
원장	이 일 영	횡성읍 읍하1리 69 (H.P 011-9919-2666)	343-2669	343-0808
부원장	전 인 환	횡성읍 조곡리 433 (H.P 017-375-2070)		343-7700
"	양 기 호	공근면 학담리 205 (H.P 011-374-8328)		762-8328
이사	권 용 환	횡성읍 조곡리 70		345-0555
"	김 광 수	횡성읍 읍상리 284 (H.P 011-371-2618)	343-2618	343-5100
"	김 윤 수	공근면 학담2리 성골 (H.P 011-377-2181)	344-7896	343-2181
"	김 상 겸	횡성읍 마산리 451-3		343-3514
"	양 중 하	우천면 정금리 849-3		343-2602
"	오 세 민	둔내면 둔방내리 108-9(H.P 011-361-2633)	342-5888	
"	유 관 종	우천면 용둔리93(H.P 017-338-2706)		342-2706
"	윤 만 복	횡성읍 읍하3리 215-3(H.P 011-377-2572)		343-2575
"	윤 춘 식	횡성읍 읍상1리 333	343-1286~8	343-3349
"	이 석 원	횡성읍 읍상1리 346 (H.P 011-361-3488)	343-3518	343-3526
"	정 두 영	횡성읍 읍하리 299-6	343-2404	343-0694
"	정 재 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A-201(H.P 011-367-3618)	343-7963	343-3336
"	조 원 섭	횡성읍 입석리 (H.P 016-9221-8545)		343-2685
"	조 원 용	횡성읍 읍하리 대동 아파트 101-1307	340-2206	344-0939
"	한 상 태	횡성읍 입석리 162-8	343-3553	343-2670
감사	전 상 국	횡성읍 입석리 65		343-2466
"	진 광 수	횡성읍 입석리 162-1		342-7777
사무국장	홍 성 진	횡성읍 목계리 102-2	343-2271	343-3120
간사	허 미 선	횡성읍 북천리 중앙아파트 3동 402호	343-2271	343-2553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3년 12월 8일현재

NO	성명	주소	자택	직장
1	강대령	서원면 창촌1리 548-3	343-7647	
2	강신민	둔내면 둔방내리 경림아파트 101-1303	342-0377	
3	고명규	횡성읍 읍하리 511-16	343-3337	345-1013
4	고석용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3-1305	011-374-9088	344-9080
5	고한석	공근면 수백리 295	343-6336	
6	곽호근	횡성읍 읍하리 원흥아파트 102-1204	345-9298	
7	구본섭	횡성읍 읍상리 동화꽃화원	343-2752	343-2752
8	권용환	횡성읍 조곡리	345-0555	
9	권옥래	횡성읍 입석리 65-8	343-2686	
10	김관수	공근면 수백리	343-6821	
11	김광수	횡성읍 읍상리 284 백우사장	343-5100	343-2618
12	김남준	횡성읍 읍상2리	343-3603	
13	김동근	횡성읍 내지리 217	343-3959	
14	김두선	횡성읍 읍상4리 동원아파트 209호	343-2495	345-8504
15	김미영	횡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APT 104-1306	343-3315	
16	김병기	횡성읍 입석리 65-17	343-3172	
17	김병남	횡성읍 북천2리 115-57	340-2601	
18	김상겸	횡성읍 마산리 451-3	343-3514	
19	김수암	우천면 우항1리	342-6459	
20	김순옥	서원면 옥계2리 466	342-8211	
21	김승진	횡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아파트 102-606	343-2711	340-2229
22	김영근	서원면 석화2리 494	342-8065	
23	김용진	우천면 두곡리	342-6135	
24	김용화	횡성읍 읍하3리 267	343-5038	
25	김운수	공근면 학담2리 성골	342-2181	
26	김재율	둔내면 둔방1리 179-2	342-1480	
27	김정웅	횡성읍 읍상리 315-8 김약국	343-2707	
28	김종익	우천면 상대리		
29	김진혁	우천면 문암리 55	342-6019	343-2100

형성문화원 회원명부

2003년 12월 8일현재

NO	성 명	주 소	자 택	직 장
30	김 찬 흡	형성읍 읍상4리 306-2	343-2533	
31	김 창 식	형성읍 읍하리 73-6 국도광고	343-4900	343-2100
32	김 천 수	형성읍 마산리 493	343-3434	
33	김 철 호	형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B-101	343-2689	
34	김 현 주	우천면 상하가리	342-6518	
35	남 기 영	형성읍 마산리 2만 66	342-8444	
36	도 광 태	원주시 단계동 롯데아파트 3-504	742-8229	343-0207
37	도 창 혁	형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아파트 105-907	343-5946	343-3229
38	민 영 진	형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B-401	343-4073	
39	박 관 수	안흥면 소사리 1334	343-1115	343-6255
40	박 덕 식	형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607	343-8384	344-8384
41	박 동 근	홍천군 남면 시동리	432-4529	
42	박 만 훈	형성읍 입석리 180-3	343-7751	
43	박 명 선	서원면 창촌1리 397	342-8339	
44	박 순 성	형성읍 입석리 192	344-0758	343-9362
45	박 순 업	형성읍 조곡리 277		343-2612
46	박 종 일	형성읍 가담리 50	343-3259	343-2380
47	박 태 식	형성읍 가담1리 468	342-2609	
48	방 규 진	형성읍 북천리 148 형성읍사무소	343-9661	343-2482
49	서 강 민	서원면 창촌1리 546	342-8680	
50	서 계 원	형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3-907	343-5812	
51	석 원 수	형성읍 북천리 137-5 영진아파트 102호	343-6900	343-3370
52	송 영 국	공근면 매곡리 367-10	342-3014	
53	송 인 석	둔내면 영랑리 539	343-1774	
54	신 구 선	형성읍 북천리 115-37	343-1350	
55	신 동 환	형성읍 마산리 333	343-3765	
56	신 상 선	형성읍 읍하리 422-2	343-8910	342-4063
57	심 진 황	형성읍 읍하리 섬강아파트 1-203	343-7841	343-2271
58	안 병 성	둔내면 자포1리 409	342-1155	
59	안 병 화	형성읍 읍상리 원흥아파트 102-505	343-0641	343-6975
60	양 기 호	공근면 학담리 205번지	762-8328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3년 12월 8일현재

NO	성명	주소	자택	직장
61	양 우 환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707	343-9526	343-7364
62	양 중 하	우천면 정금리 849-3	342-2602	
63	오 세 민	둔내면 둔방내리 108-9	342-5888	342-5888
64	우 광 수	태백시 철암동 철암중 고관사 A-102		
65	원 종 춘	횡성읍 읍하1리 110 한림서당	343-3162	
66	원 종 택	횡성읍 읍하리 75-5 명문사	343-2653	343-2653
67	원 종 훈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304	343-7920	
68	유 관 종	우천면 용둔리	342-2706	
69	유 병 규	홍천군 남면 명동리	432-4252	
70	유 인 상	횡성읍 읍하1리 115-11 횡성치과	343-8890	
71	유 장 곤	둔내면 현천1리 139	342-2130	
72	유 태 선	횡성읍 읍하리 90-2	343-6717	
73	윤 기 화	횡성읍 입석리 18	343-3171	
74	윤 만 복	횡성읍 읍하3리 215-3	343-2575	342-9510
75	윤 병 덕	서원면 창촌1리 546	342-8680	342-9510
76	윤 병 철	횡성읍 읍하1리 90-6	343-2208	
77	윤 춘 식	횡성읍 읍상1리 333	343-3349	
78	이 계 범	우천면 정금리 256	342-2761	
79	이 광 수	횡성읍 복천리 태우아파트 3-801	342-6006	
80	이 근 형	횡성읍 읍상3리 295	343-2748	
81	이 돈 영	횡성읍 복천리 영진아파트 가-503	343-2755	343-2755
82	이 미 자	서원면 창촌1리 397	342-8339	345-9905
83	이 방 우	공근면 학답1리 209-8	342-3412	
84	이 병 설	횡성읍 개전리 241-1	018-374-3066	343-2982
85	이 병 오	횡성읍 복천리 영진아파트 A-302	343-6789	011-305-6055
86	이 석 원	횡성읍 읍상1리 346 횡성새마을금고	343-3526	343-3518
87	이 승 운	횡성읍 정암1리 206	345-9905	345-9905
88	이 승 호	원주시 흥업면 흥업2리 748-2	763-7386	
89	이 영 식	안흥면 안흥4리 2반 214	342-2094	
90	이 일 영	횡성읍 읍하1리 69	343-0808	343-2669
91	이 장 우	횡성읍 가담1리	343-2723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3년 12월 8일현재

NO	성명	주소	자택	직장
92	이 계 구	횡성읍 읍하1리 305	343-2434	343-1202
93	이 종 근	횡성읍 마산리 13-2	343-2722	343-0207
94	이 철 우	우천면 정금리 507	342-2665	
95	임 종 훈	둔내면 자포2리 643	342-1555	
96	임 종 홍	횡성읍 읍하4리 6	343-2056	
97	전 상 국	횡성읍 입석리 65	343-2466	
98	전 상 규	횡성읍 읍상4리 541-5	345-2356	
99	전 원 표	둔내면 둔방1리	342-2459	
100	전 인 환	횡성읍 조곡리 433	343-7700	345-5005
101	정 건 환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206	345-0056	
102	정 계 철	원주시 개운동 444-15	761-1063	
103	정 남 진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206	345-0056	343-2404
104	정 두 영	횡성읍 읍하리 299-6	343-0694	343-2404
105	정 병 유	공근면 공근리	342-3217	
106	정 병 익	횡성읍 입석리 132	343-2390	
107	정 삼 영	횡성읍 읍하3리 214-6	343-3130	
108	정 영 식	횡성읍 읍하리 421	343-1407	345-1111
109	정 영 철	횡성읍 읍하리 대립연립 303호	343-0310	
110	정 우 철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3-306	343-2818	
111	정 윤 철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A-203	343-8292	
112	정 인 영	횡성읍 읍하택지 550-3	343-8698	
113	정 재 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A-201	343-3326	345-5124
114	조 경 택	횡성읍 읍상2리 274	343-2742	
115	조 규 선	홍천군 남면 유치2리 575	432-4802	432-8400
116	조 영 현	횡성읍 읍상2리 278-10		343-2306
117	조 원 섭	횡성읍 입석리	343-2685	
118	조 원 용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1307		340-2206
119	지 영 수	원주시 우산동 88스포츠	762-7701	743-7737
120	진 광 수	횡성읍 입석리 162-1	342-7777	
121	진 기 범	횡성읍 읍상리 278-8	343-3334	343-2687
122	채 금 순	둔내면 자포1리 455-2	342-1245	

2003년 12월 8일현재

188 문화원 소식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황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20,000원)

안 내 : 황성문화원 ☎ 343-2271

어사매 제18호

발 행 일 : 2003. 12

발 행 처 : 황성문화원

발 행 인 : 이일영

편 집 : 홍성진

기획/제작 : 누리기획

(비매품)



황성문화원

TEL. 033-343-2271

FAX. 033-343-7652